

59TH GRADUATION EXHIBITION

DESIGN

THESIS PROJECT

2022

인하대학교
건축학전공
2022 졸업작품집

발간사

인하대학교 건축학전공 5학년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인사를 우선 전합니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전시를 드디어 마치고, 많은 준비와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전시를 성대하게 치뤘습니다. 본교 건축학전공의 실험정신과 설계문화를 다시 나누고, 값진 노력의 열매를 거둔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지도해주신 5학년 설계스튜디오 담당 교수님들께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제 59회 인하건축전은 대면현장전시로 진행되었고, 많은 교내외 인사와 선후배, 졸업생, 학부모님들께서 전시장에 들러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총 29명의 5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본교 건축학전공의 명성에 걸맞게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이슈와 주제를 다양하고 심도 있는 시각을 통해 접근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실험을 시도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인하대학교 조명우 총장님과 공과대학 권용구 학장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건축학부 명예교수님과 전임교수진, 동창회 회장단, 용마루 회장단, 외래교수진 등 다양한 내외빈들을 초청하여 건축전 축제의 시작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졸업작품발표회에서는 건축학전공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여 5학년 선배들의 작품 설명과 초청 크리티크의 작품평을 보고 들으며 인하건축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시장에는 용마루회원 작품과 함께, 작년에 작고하신 故 원정수 교수님의 추모전도 함께 개최되어 건축전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폐막식은 켄 성진 민 건축가의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취업박람회, 동문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용마루상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시상식에서 김원영 용마루상 심사위원장 (토포스건축사사무소 대표)의 참가작에 대한 심사평과 조언이 있었으며, 3명의 용마루상 수상자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작품 설명과 토론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건축적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인하건축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까지 함께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간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건축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준 김은솔 졸업준비위원장과 위원회의 헌신과 자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졸업작품 전시 준비를 위해 묵묵히 수고해준 대학원 조교들, 작품 제작과정에 참여한 학부생들, 여름 방학기간 내내 졸업작품전시회를 준비해준 학생회장, 건축학전공 행정조교 선생님,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로 응원해주시는 존경하는 동료 교수님과 명예 교수님, 동문회, 용마루건축사회, 후원사 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5년이 넘는 기간동안 자녀들의 성장을 사랑과 격려로 지켜봐 주신 학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설계작품을 통해 인하대학교 건축학전공의 빛나는 문화와 전통, 긍지를 드높이는 인하건축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홍승완 교수

축사

“팬데믹”이라는 흔하지 않는 삶의 형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화된 것이, 해를 거듭 지나고 조심스런 대면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팬데믹”이라는, 아픈 현상 속에서 졸업설계를 임했던 남다른 추억이, 각 자의 인생에 한 점이 될 것입니다. “꺾이지 않은 마음”으로 말이죠

지난 몇 해 동안 진행되었던 온라인 수업과 졸업설계 전시회를 뒤로 하고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전시회를 하게 되었기에 여러분의 남다른 각오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온라인상에서 같고 닮은 상당한 내공도 엿볼 수가 있었고 상상도 못했던 것들도 보게된 것이라서, 새삼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참여적이고 청량감 있는 작업 내용을 보았을 때, 인하대학교 건축학과의 저력을 볼 수가 있었고 답답한 팬데믹을 잠시나마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굴곡에서도 헤쳐서 나오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 깊은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진취적인 기상이 인생의 한 점과 파편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다시 새로움에 도전하는 중요한 시작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점”들은 진솔한 참모습의 건축가가 되는 데 중요한 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막 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항상 격려와 응원하며, 용마루는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의 졸업전시와 작품 내용들의 성과를 보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후배들의 모험과 신선한 절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작품집을 출간하면서 그러한 열정과 노력 그리고 느낌은 그대로 전달하기에는 부족할 수는 있겠으나, 그룹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인하건축의 자랑”이 기록될 것입니다.

진솔한 건축가의 꿈과 기상을 크게 꾸며, 작업한 작품들을 모아서 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욱이 학과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교수님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녹아서 만들어진 후학들의 꿈들을 볼 수가 있어서, 교수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새겨진 형상들이 후배 여러분들께 쏟아지는 어떤 기대감보다도, 여러분의 건축적 진솔함으로 척박한 땅을 축축한 신선함으로 일구고자 하는 건축가로서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작품집 속에 시각적 기록과 추억의 기록도 담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걸음마단계에서 조금 나은 단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지지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청춘과 그 움직임들이 다양하게 표현된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지 말고 행복을 마음껏 즐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신선한 “청춘과 젊음”은 폭발적인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터질 듯이 건강한 “인하대학교 건축학과의 심장”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기에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심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생생한 작품집 발간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용마루회장
이 안

총평

모형의 절단면에서 예리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치밀한 구성으로 자기 의도의 선명한 점도 보았습니다. 또한 공간의 진정성을 표현하고자 노력한 탐도 보았으며 작품 발표의 총명한 눈빛도 보았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창의적인 과정을 걸친 2022년 모든 작품에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 졸업 설계에 참여한 학생 여러분, 불철주야 지도하여 주신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작품이 각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를 바라며 졸업 후 인하대학교 건축학과와 저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 CON+ACTING PATCH(문용제)

도시 인프라로 인해 발현되는 도시구조의 변화를 비판적 시각으로 본 작품으로서 간결한 컨셉을 밀도 있게 구현하여 도시의 공간적 구성을 건축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절된 도시 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해 패치(PATCH)라는 개념을 제안했으며 이를 도시 스케일로 치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작품은 지하와 지상, 도로와 도시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분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하나로 융합시켜 도시공간에 녹아든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보이기도 하며, 스스로 번식하며 도시공간을 수선해 나갈 것 같은 상상력을 불러 일으킵니다. 프로그램들을 단면적으로 리듬있게 연결하고 한강과 주변 자연환경의 스케일과 거부감없이 동선의 흐름으로 형태를 만들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간선도로와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과 저층과 고층의 조합이 반복된 점이 패치라는 컨셉과 다소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장려상 - URBAN PROMENADE(마승현)

도시 인프라에 대한 이해와 문제 제기, 그리고 대지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시적 해석이 뛰어난 작품으로서 정릉천의 수변공간과 인접한 시장 불력을 도시 산책로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이와 더불어 지역 커뮤니티라는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작업의 과정이 우수했습니다. 도시 산책로의 보다 적극적인 물리적 연결과 프로그램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표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건축적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표현력이 뛰어났습니다.

장려상 - the RED CARPET(원지연)

땅과 프로그램 해석이 뛰어났습니다. 단면 구성 또한 프로그램과 적합합니다. 현재는 흐릿해진 층무로의 장소성을 새로이 정의하고자 하여 레드카펫은 영화의 환상 속성을 상징하는 공중브릿지로 구현되었고, 도시 맥락의 길의 연결은 사이트 속에서 무심하게 지나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변 도시 조직을 떼어 파편화하고 다양한 기법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기존 구도심의 장소성 체계를 완전하게 전복시키고자 한 듯 보입니다. 다만, 자기 생각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여 완성도 면에서 아쉬웠습니다.

심사위원장

토포스건축사사무소, 김원영(위원장)

졸업전시참가자

강승우, 김도성, 김민경, 김선중, 김수민, 김은솔, 김준우, 마승현, 문용제, 배제운, 부유진, 원지연, 유동현, 유백림, 유재형, 이건우, 이동우, 이민수, 이신원, 이정훈, 임성현, 정현재, 주우훈, 최승호, 최은서, 서홍승, 한동희, 홍원택, 황인아

교수진

구영민, 김경배, 김광호, 김형섭, 박지영, 박진호, 임종엽, 정혜진, 조민정, 홍승완 | 건축학전공 전임교수
김영수, 김재정, 변승용, 이영민, 이화숙, 최성훈 | 5학년 설계스튜디오 겸임교수

용마루상 심사위원장

김원영 | 토포스건축사사무소 대표

용마루상 심사위원

김종찬 | 제이투건축사사무소
김현주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현
남지현 | 에이아이엠건축사사무소
박정란 | 동양미래대학교 건축과 교수
윤성봉 | 무유기건축
이준호 | 건축그룹[tam]
황준호 | 에스빌파트너스(주)
*Critic_스몰러 건축사사무소, 최민욱

후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금호건설(주), 계룡건설산업(주),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남광토건(주), (주)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동부건설(주), 대보건설(주), (주)대우건설,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범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엠앤디종합건축사사무소, (주)엠디에이건축사사무소(목양),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중흥건설(주), (주)제일건설, (주)토문건축사사무소, (주)태영건설, 현대건설(주),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목차

발간사	2
축사	3
심사평	4
참가자·심사위원·후원	5

학생작품

문용제 CON + ACTING PATCH	8
마승현 URBAN PROMENADE	14
원지연 the RED CARPET : between Fantasy and Reality	20
강승우 RE : ASSEMBLE	26
김도성 Gray to Green	30
김민경 Urban Market Village	34
김선중 Slanted Green	38
김수민 Stitch the City	42
김은솔 Fragmented Garden	46
김준우 KNOTS, 이질적인 것들의 얽힘	50
부유진 IN 2050 : NEXT GENERATION OF INDUSTRIAL COMPLEX	54
백제윤 WALK DOWN A WAY	58
서홍승 SPREAD GATE	62
유동현 A Market Garden for New Tribalism	66
유백림 Figured Ground	70

유재형 Gathering Ground	74
이건우 NOMAD'S CITY	78
이동우 Inter-Rumphere (Underground School)	82
이민수 Connecting Context, Connecting Guro	86
이신원 힐튼, 대지에 녹아들다 : Melting Hilton	90
이정훈 Re:cord_다시 기록하다	94
임성현 Re: Boot Camp	98
정현재 Protect, Connect, Flow!	102
주우흔 CITY IN THE CITY	106
최승호 Gradation Hospice	110
최은서 No. 1 PIER	114
한동희 Hillton: Low stares / sLow steps	118
홍원택 Urban Animation Street	122
황인아 PART of city	126

CON + ACTING P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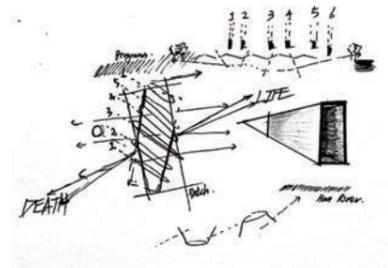
The way of untangle the complex city

용마루 2022 용마루 건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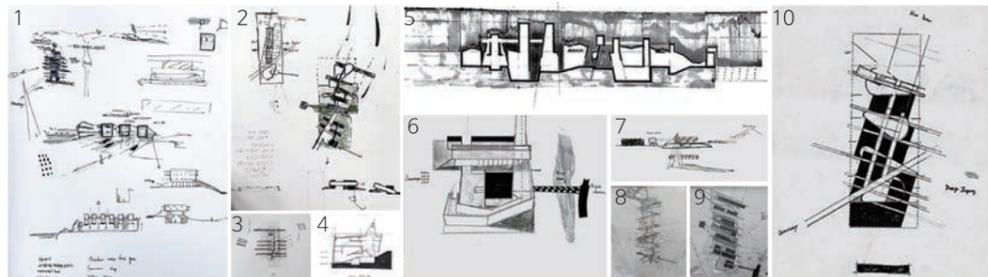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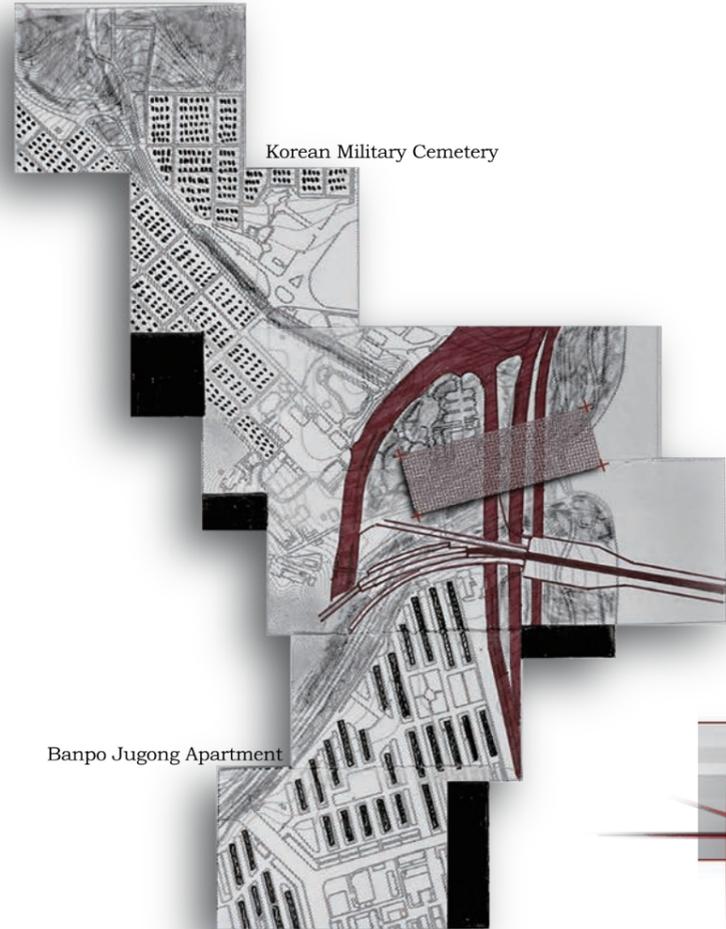


문용계

교통 인프라의 확장은 원거리의 이동성을 수월하게 하였지만 미시적인 보행의 관점에서 기존 하나의 장소였던 곳을 분할하여 막다른 길을 만드는 하나의 경계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충원 전면에 펼쳐진 사이트는 3개의 차도에 의해 단절된 한강과 근린공원의 녹지, 남북으로 흐르는 동작역으로 인해 단절된 일상, 비일상공간이 교통 인프라에 의해 형성된 경계선들에 의해 존재한다. 교통 인프라와 그로 인해 나뉘어진 특징적인 프로그램들이 뒤엉켜 있는 장소에 patch라는 어휘를 통해 도심 속 영감을 풀어주고자 한다.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326-3 일대
면적 65,322㎡
규모 지상 14층, 지하 5층



PIER



Han - River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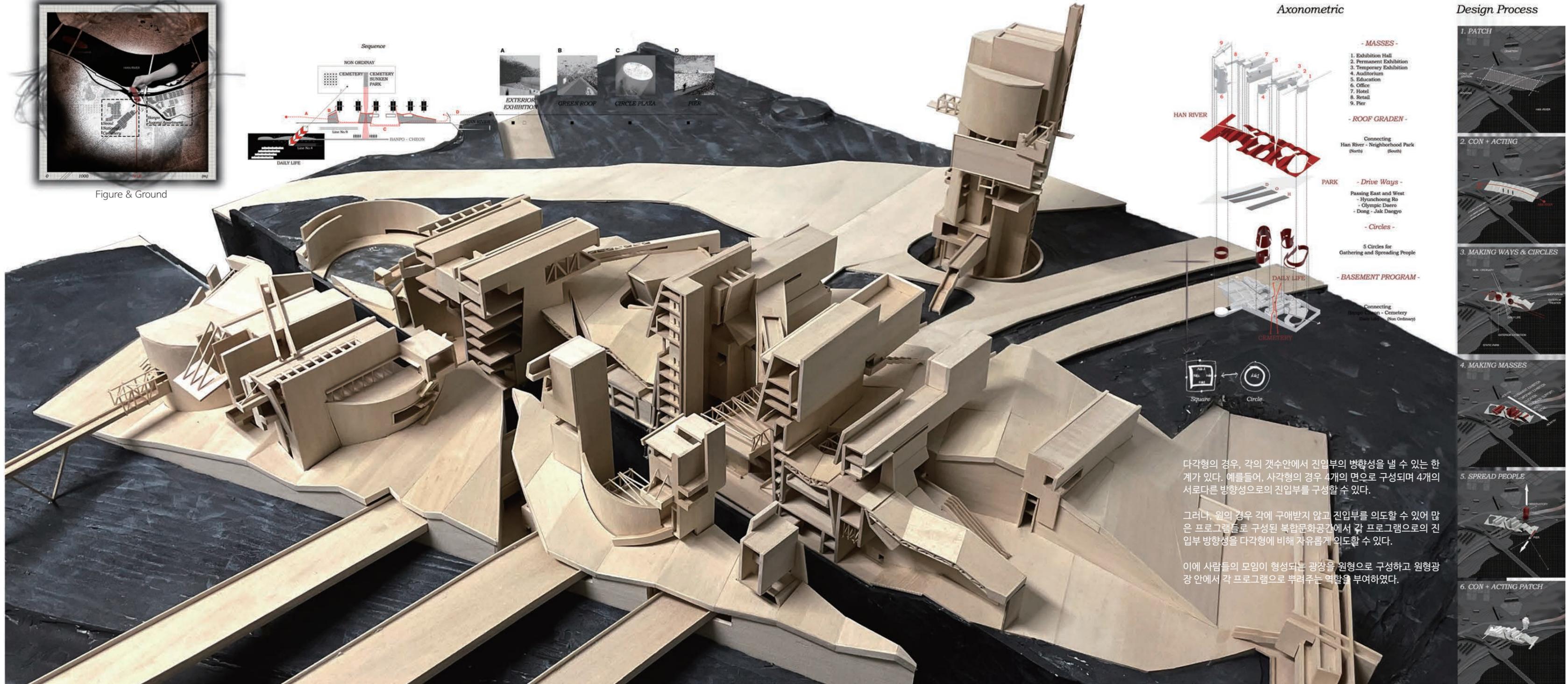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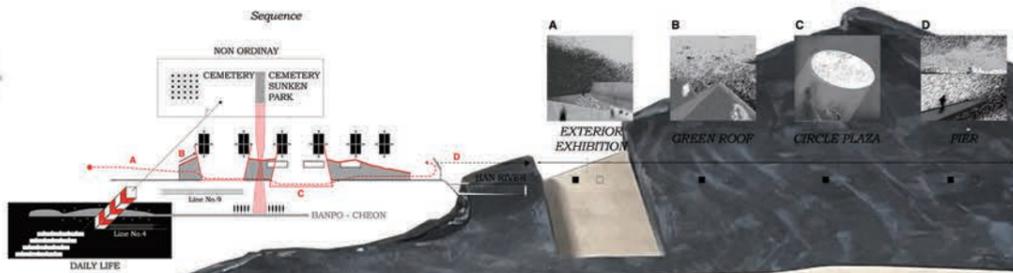
1. 초기 디자인에 대한 생각
2. 사이트 매스 구성
3. 축에 대한 개념 스케치
4. 오디토리움 구성 스케치
5. 섹션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
6. 외부로부터 유입에 대한 스케치
7. 주변과의 관계성
8. 초기 어지러진 생각
9. 정리된 생각
10. 최종 직전 정리되어가는 과정

TOWER





Figure & Ground



Axonome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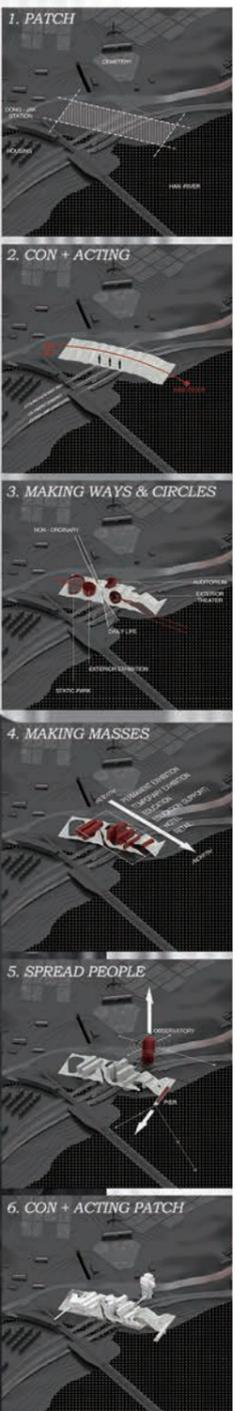
- **MASSES** -
- 1. Exhibition Hall
- 2. Permanent Exhibition
- 3. Temporary Exhibition
- 4. Auditorium
- 5. Education
- 6. Office
- 7. Hotel
- 8. Retail
- 9. Pier
- **ROOF GRADEN** -
- Connecting Han River - Neighborhood Park (North) (South)
- **PARK** -
- Drive Ways -
- Passing East and West - Hyunchoong Ro - Olympic Daero - Dong - Juk Daegyo
- **Circles** -
- 5 Circles for Gathering and Spreading People
- **BASEMENT PROGRAM** -
- Connecting Banpo Cheon - Cemetery (Bank Station - Bus Ordi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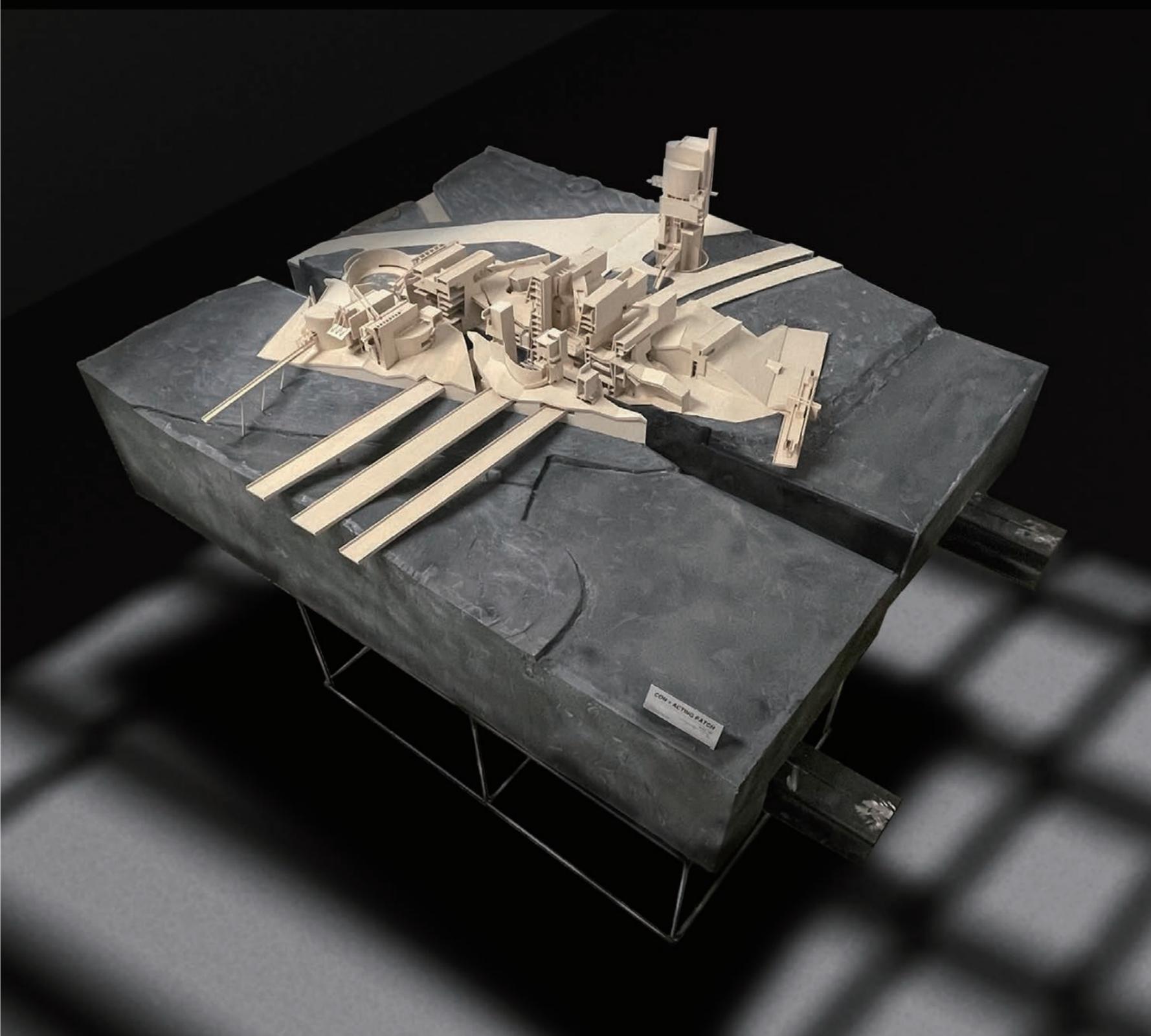
다각형의 경우, 각의 갯수 안에서 진입부의 방향성을 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예를들어, 사각형의 경우 4개의 면으로 구성되며 4개의 서로다른 방향성으로의 진입부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원의 경우 각에 구애받지 않고 진입부를 의도할 수 있어 많은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에서 각 프로그램으로의 진입부 방향성을 다각형에 비해 자유롭게 의도할 수 있다.

이에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되는 광장을 원형으로 구성하고 원형광장 안에서 각 프로그램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Design Process





URBAN PROMENADE

산책로를 통한 도시조직의 연결성 강화

 2022 용마루 건축상



마승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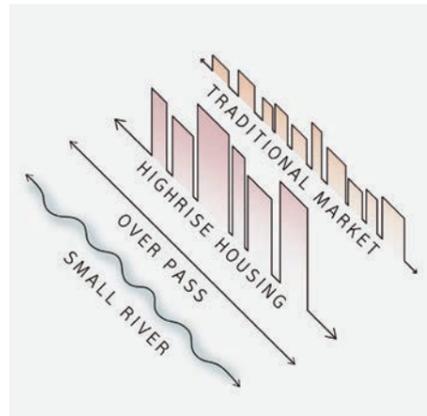
자본의 논리에 따라 진행된 급격한 도시화 과정은 수변공간을 포함한 도심내 자연환경을 배제하고 진행됐었다.

이 혼적인 도시 인프라는 수변공간으로 내몰리며 상당부분 수변공간을 점유하게 되었고, 현재에 들어 이 지역간 각종 물리적 단절 및 고립을 유발하게 되었다. 이에 산책로라는 개념을 통해 수변공간에서부터 이어 단절되었던 도시적 맥락을 해소시켜주고자 한다. 도시조직과 수변 공간의 경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지역 커뮤니티를 제안하고, 서로 상이한 공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축적 가능성과 공간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90번지 일대
면적 20,849㎡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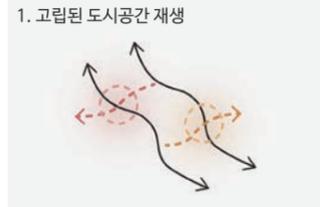


SITE CON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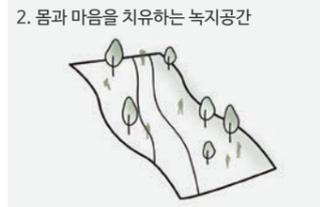


사이트는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해있다. 북개 주차장을 따라 올라가 약령시장의 뒷 부분과 아파트 옆의 주거 부지를 이용하고자 한다. 맥락을 살펴보면, 크게 전통시장, 주거, 그리고 고가도로를 따라 산책로의 축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 축은 서로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높은 주거 단지에 막혀 주변과 연계되지 못하며, 주거단지는 북개주차장이라는 레이아웃 때문에 정릉천의 접근성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각 축의 방향이 너무 강하게 흐르고 있어 그 사이에서 고립되는 공간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축들의 단절을 해소하면서 사이트 전체의 공공성과 정체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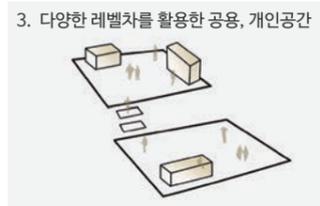
CONCEPT DIAGRAM



남북측으로 흐르는 강한 축을 관통하는 가로축을 형성한다. 축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고립된 공간들을 재생시키고자 한다.



산책로의 성격을 사이트까지 연결시켜 대지 곳곳에 설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문객들과 주민들에게 사이트를 커다란 쉼터처럼 인식하도록 구성한다.



산책로의 판을 다양한 레벨로 나누며 다양한 동선을 구성하는 동시에,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공간을 적절히 분리하며 프라이버시를 유지한다. 그 사이에서 여러 형태의 공용, 개인공간을 만들어낸다.

RENDER SHOT



View from the promenade



View from the 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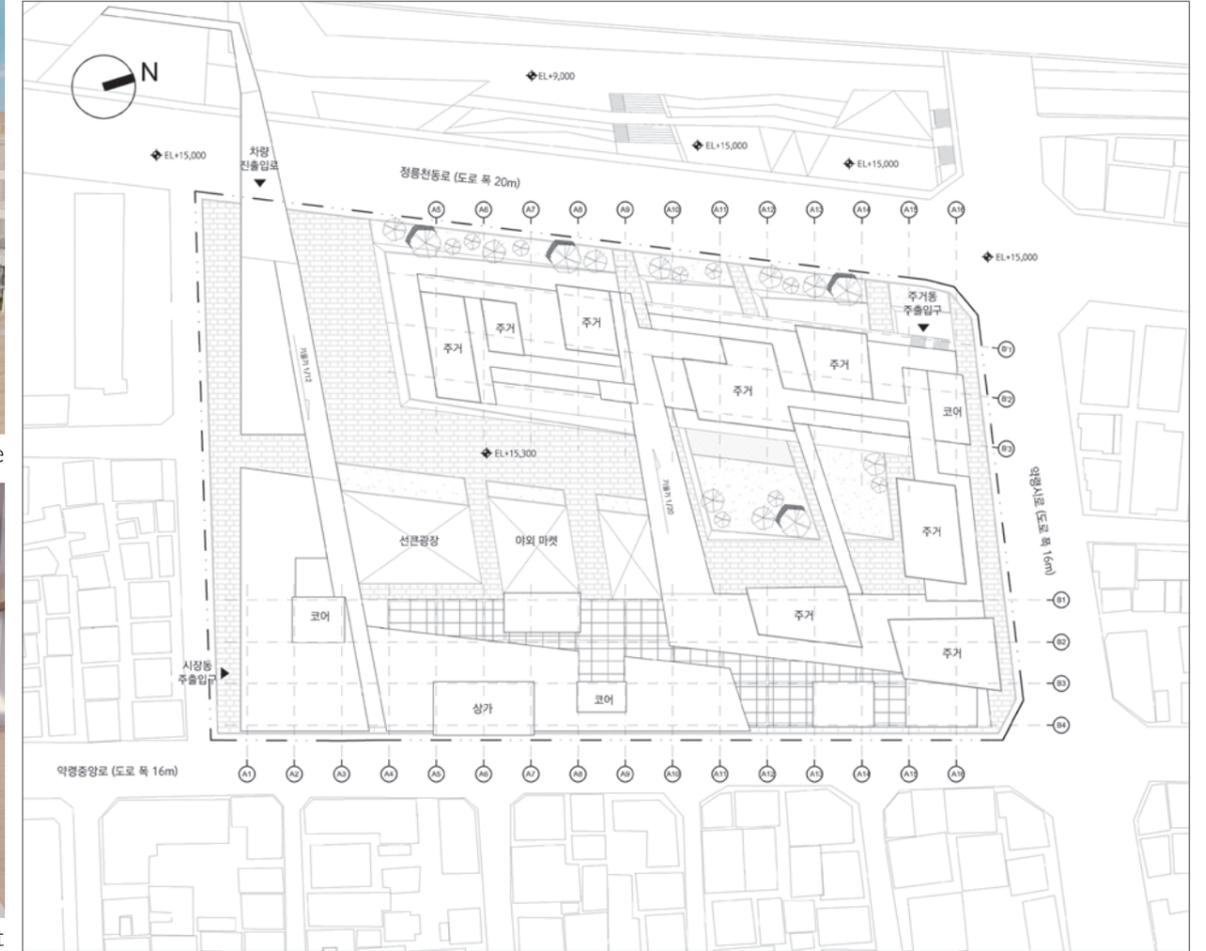


View from the courty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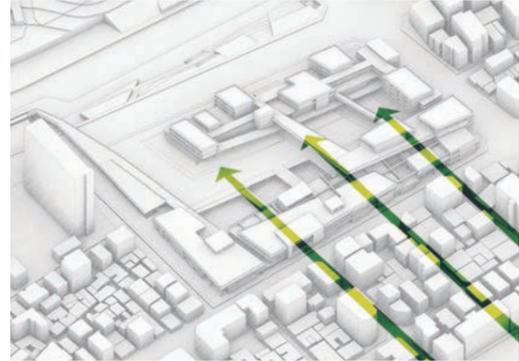
View from the market

SIT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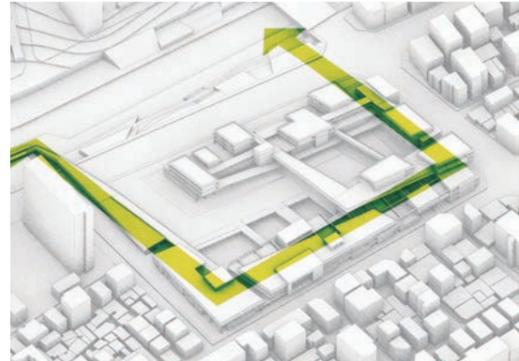
DESIGN STRATEGY

1. 시장 가로축의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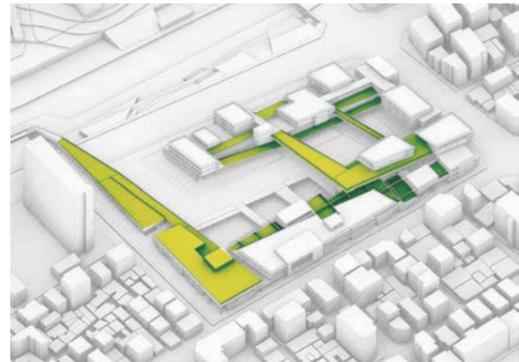
사이트 동측에 위치한 시장의 소로의 흐름을 반영한다. 시장의 방문객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사이트 동선까지 이어지도록 해당 가로축에 따라 매스 와 대지의 프로그램을 분절한다.

2. 산책로의 흐름을 받아주는 가로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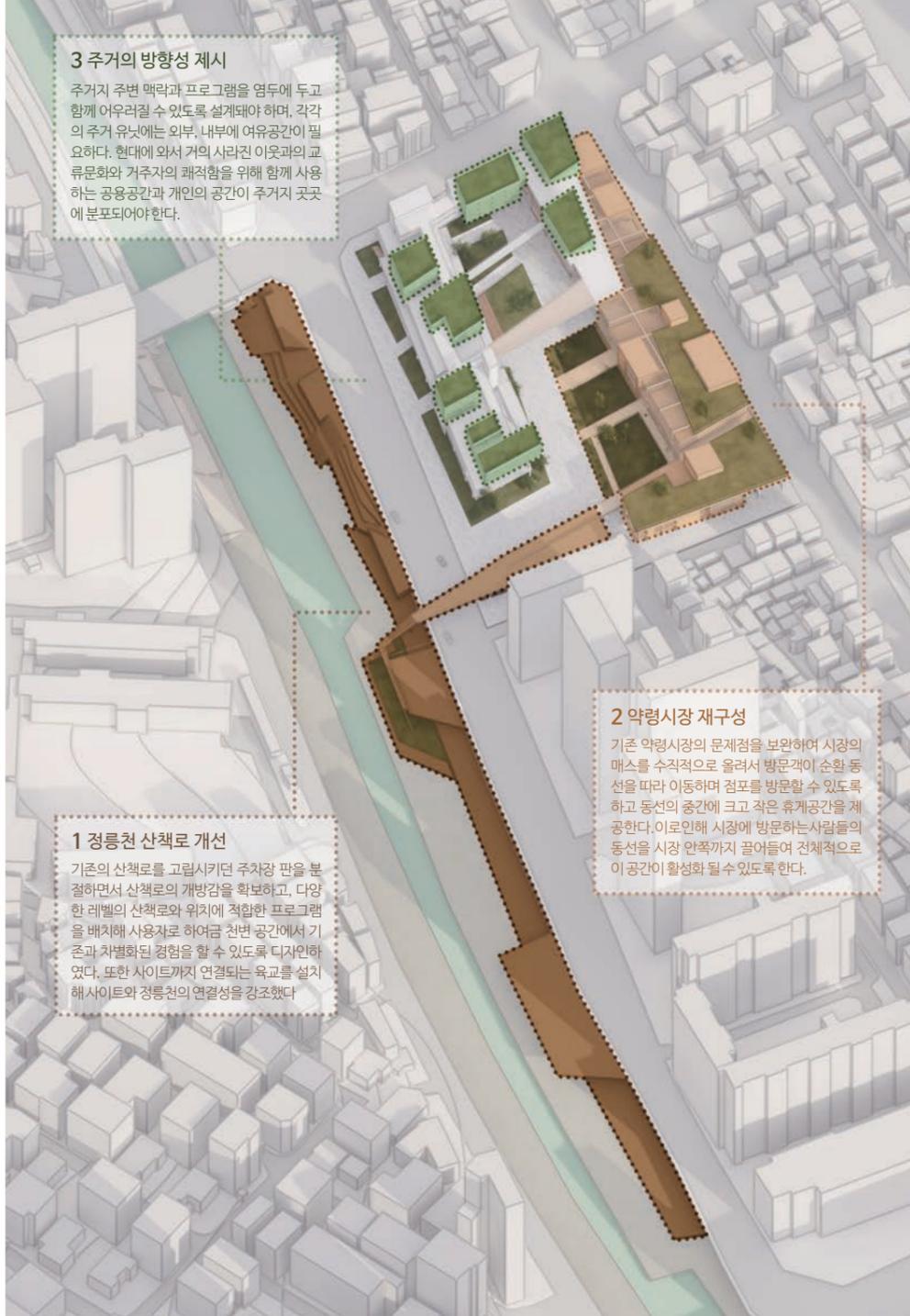
산책로와 사이트를 연결해주기위해 산책로에서부터 이어지는 흐름에 따라 가로축을 형성한다.

3.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산책로 판



산책로에 따라 형성된 축을 판으로 형성화하여 사이트 내의 프로그램들을 이어주는 동선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PROGRAM DIAGRAM



3 주거의 방향성 제시

주거지 주변 맥락과 프로그램을 영두에 두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각각의 주거 유닛에는 외부, 내부에 여유공간이 필요하다. 현대에 와서 거의 사라진 이웃과의 교류문화와 거주자의 쾌적함을 위해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과 개인의 공간이 주거지 곳곳에 분포되어야 한다.

2 약령시장 재구성

기존 약령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장의 매스를 수직적으로 올려서 방문객이 순환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점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동선의 중간에 크고 작은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시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시장 안쪽까지 끌어들이어 전체적으로 이 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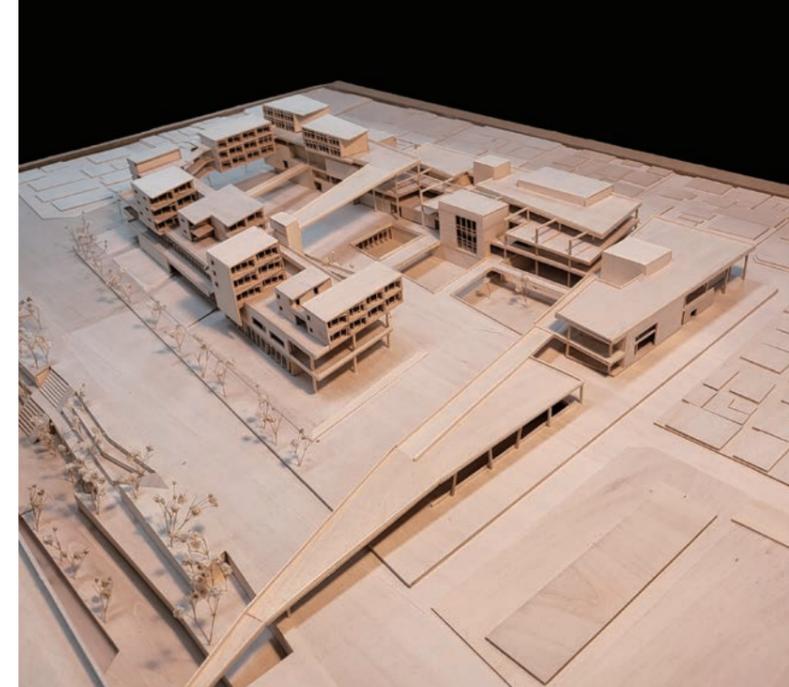
1 정릉천 산책로 개선

기존의 산책로를 고립시키면 주차장 판을 분절하면서 산책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다양한 레벨의 산책로와 위치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배치해 사용자로 하여금 천변 공간에서 기존과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사이트까지 연결되는 육교를 설치해 사이트와 정릉천의 연결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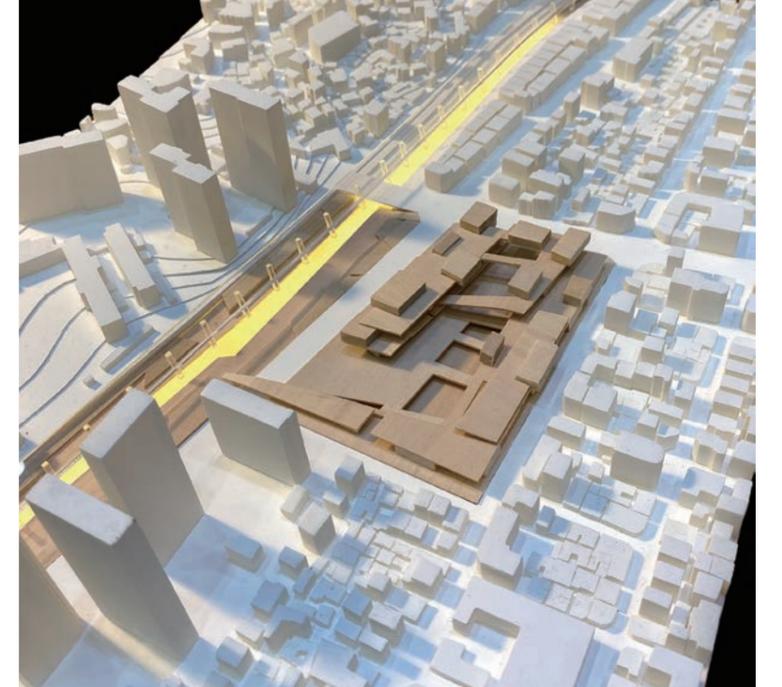
MODEL IMAGE



MODEL IMAGE



SITE MODEL IMAGE



the RED CARPET

: between Fantasy and Reality

충무로3가 일대 복합영상문화시설 계획안

용마루 2022 용마루 건축상



원지연

현재 세계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한국 영화계는 '충무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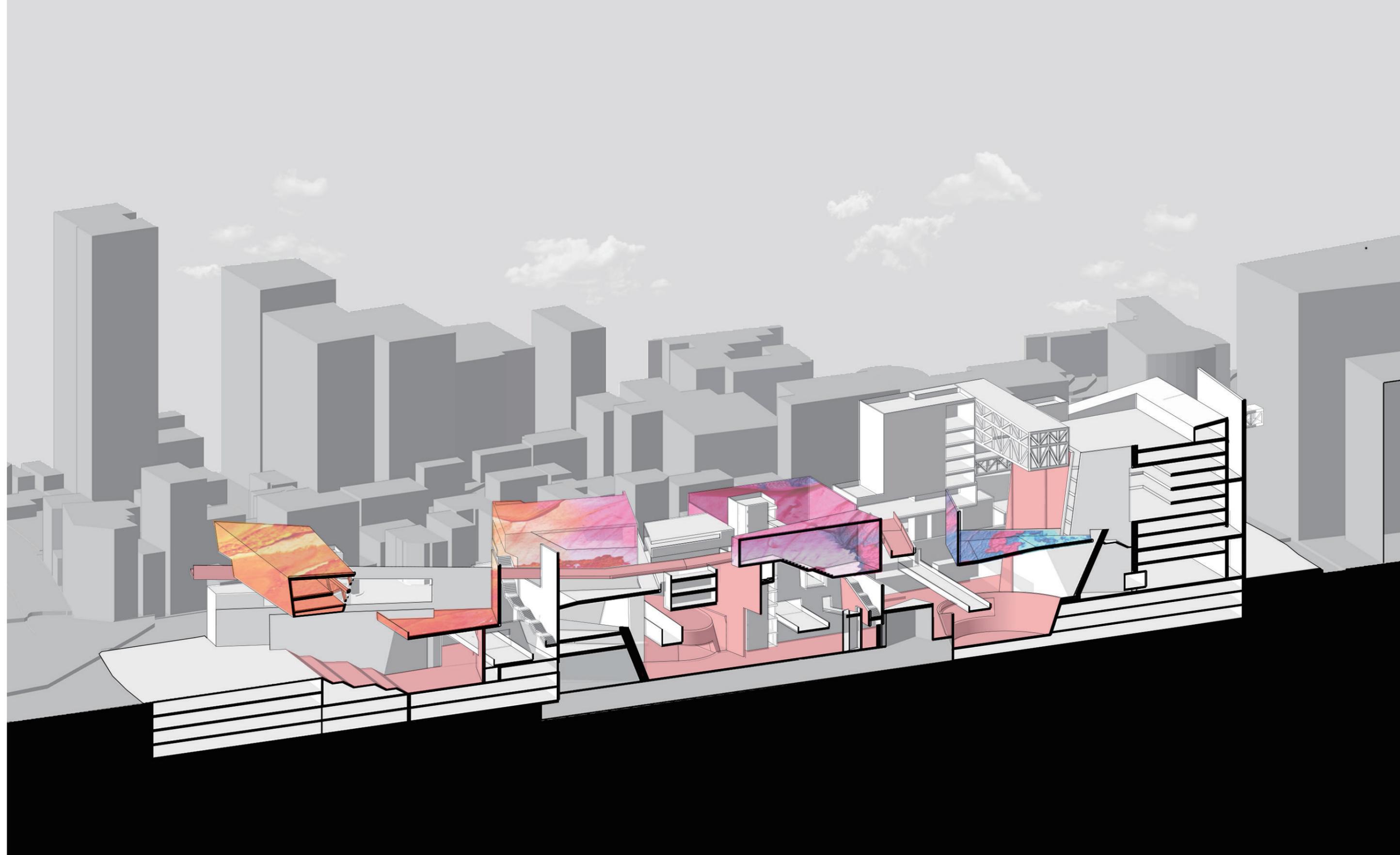
이 이름은 광복 이후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영화사들이 대거 밀집해 있던 충무로3가에서 기원한 이름이지만, 1990년대 이후 많은 영화사가 강남으로 이주하면서 현재 충무로3가에는 영화와 관련된 산업이 자취를 감추었다. '영화'라는 장소정체성을 잃어버린 충무로3가는 명동, 세운상가, 을지로, 남산 등 서울의 강렬한 도시 요소 사이에서 고립되고 침체되어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였고, 한국 영화계의 구심점이라고 부를 만한 공간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장소정체성을 잃어버린 충무로 일대에 한국 영화계의 구심점이자 영화제를 개최하는 영상복합문화시설의 제안이다. 지상의 '현실'의 레이어와 허공의 '환상'의 레이어, 두 레이어 사이에 존재하며 지상과 허공을 잇는 '레드카펫'의 레이어가 공간 자체에 영화의 의미를 담고 충무로에 장소성을 부여한다.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면적 24,748.2㎡

규모 지상 12층, 지하 6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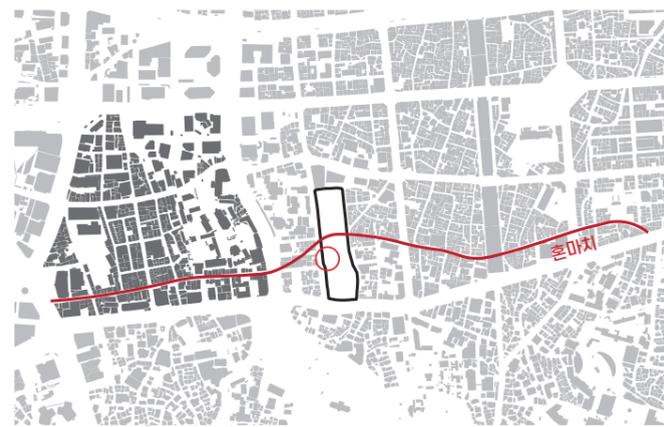




충무로 일대는 서울의 강렬한 도시 요소들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인 이점이 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강렬한 도시 요소들 사이에서 장소성을 잃은 채 침체, 고립되고 있다.



1906 이전 조선 최초의 극장 '수좌' | 1910s '남촌의 변화가 '훈마치' | 1930s 경성 문화의 중심 | 1960s 영화의 메카 충무로 | 1990s 멀티플렉스의 등장과 충무로의 쇠퇴 | 현재 장소성을 잃은 도시공간



일제강점기 때부터 명동과 함께 문화·상업의 중심지로 발달하였으며 사이트 자리에 최초의 극장이 자리잡았다.



현재 충무로에는 몇몇 극장들과 관련 업종이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가로 축의 다섯 도로가 사이트를 관통하고 있다.



사이트는 남산 방면에서 을지로 방면으로 대지 레벨이 점점 낮아지며, 그와는 반대로 건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장소성은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기억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현재의 충무로는 과연 '영화의 메카'라고 불리울 만한 장소성을 가지고 있는가?

" 환상의 부재 "

영화를 위한 공간이라면 공간 자체에도 영화가 녹아들어가야 한다. 영화에는 환상만 존재할 수도, 현실만 존재할 수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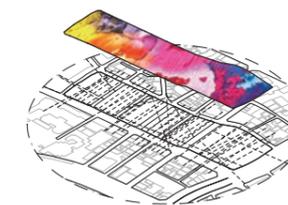
CONCEPT ; **Film = Fantasy + Re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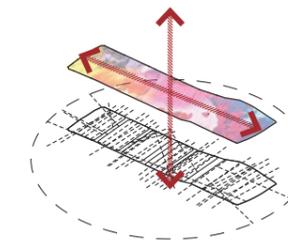
사이트 주변의 '현실'



사이트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현실'의 레이어



땅에 존재하는 실재와 대비되어 허공에 존재하는 '환상'



'현실'과 '환상'을 잇는 RED CARPET

RED CARPET?

: 영화 속 환상의 인물이 실재하는 배우가 되어 현실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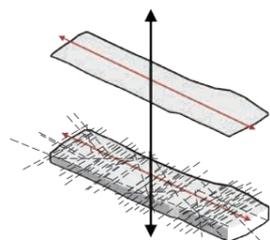
: 환상과 현실이 만나는 공간



: 이용자가 직접 환상을 느낄 수 있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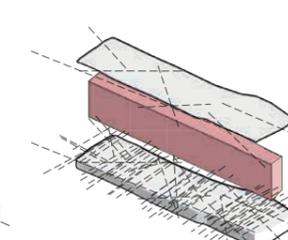


DESIG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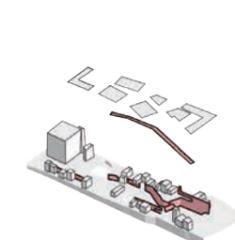
지상 - 현실의 레이어 허공 - 환상의 공간

기존의 가로 축에 대응하여 새롭게 세로 축을 조성 수평적인 현실의 건물에 대응하여 수직 축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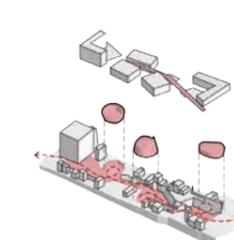
가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현실의 레이어 환상의 레이어는 보다 자유로운 레이어

현실의 공간과 환상의 공간 사이에 수직 축을 따라 두 공간을 이어줄 레드 카펫 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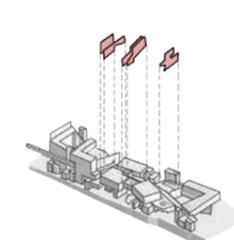
각각의 특성과 레이어에 맞추어 매스 조성

레드 카펫 공간은 브릿지와 지하 공간으로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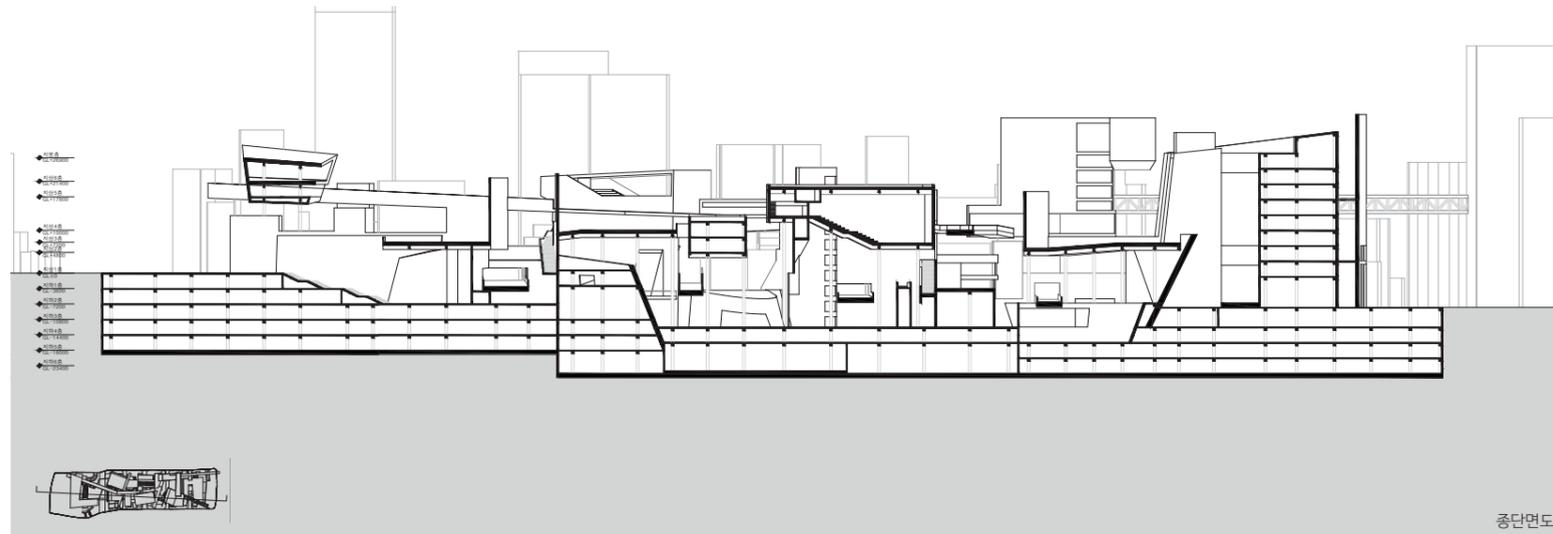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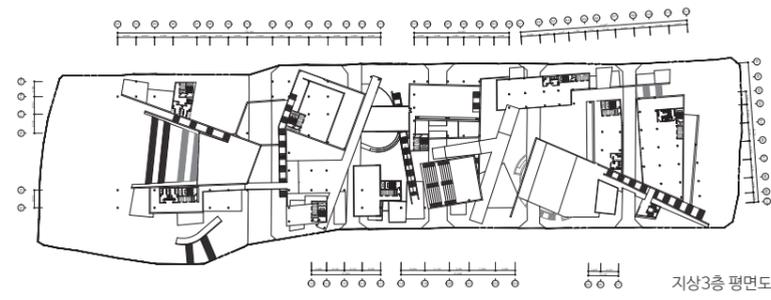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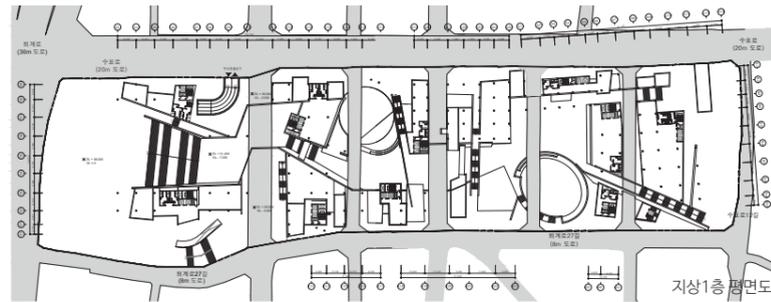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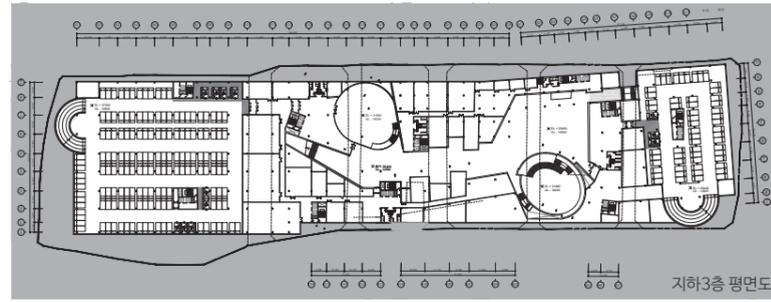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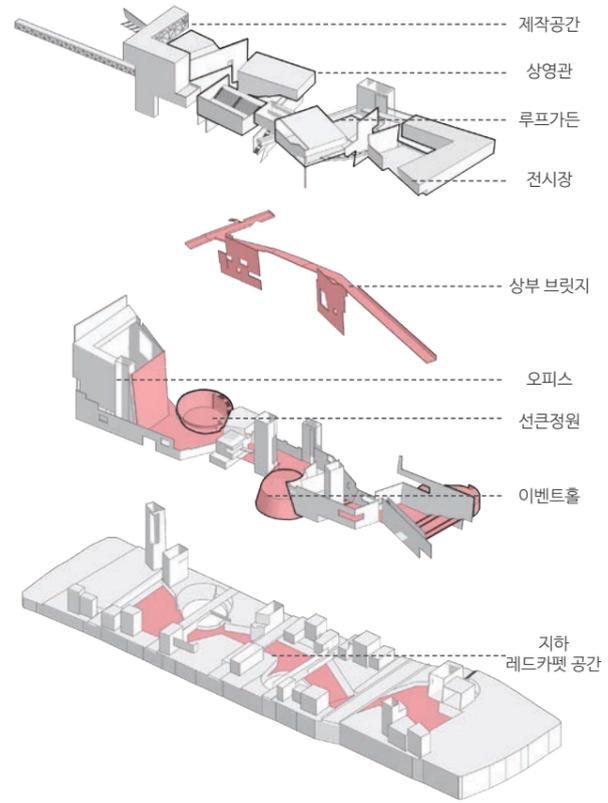
축을 따라 조성하여 머무를 공간 없이 흐름만이 생긴 공간에 원형 공간을 삽입하여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조성

기존의 다섯 도로로 인해 나누어져 있는 블록을 새로이 재구성할 벽 삽입



기존의 다섯 도로로 인해 나누어져 있는 블록을 새로이 재구성할 벽 삽입

PROGRAM



RE : ASSEMBLE

Cultural Project in Yongsan Park



강승우

용산은 과거에는 도성 밖에 위치한 지역이었으나 서울이 확장되면서 지금은 도심의 중심부를 차지 하게 되었다. 용산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 것은 외국세력에게 점령당했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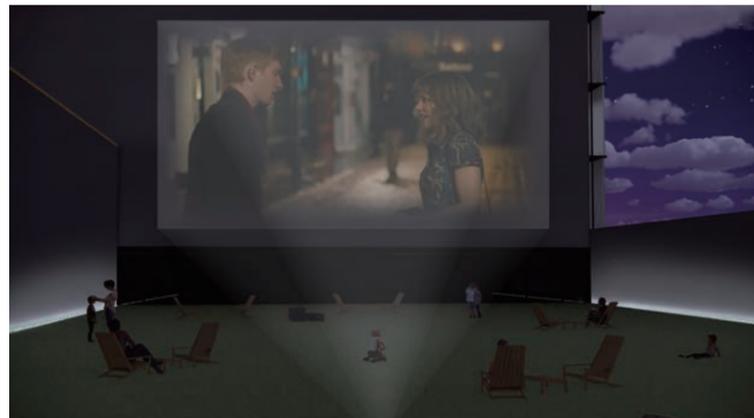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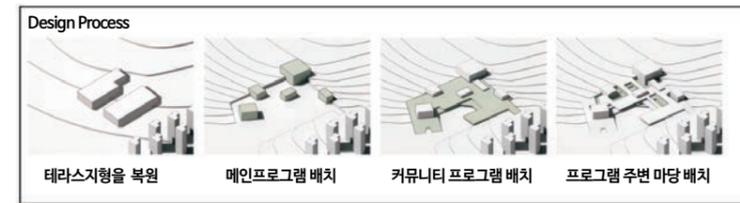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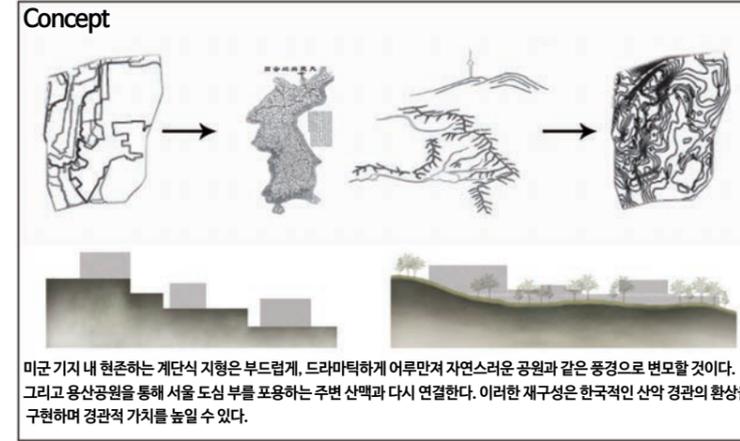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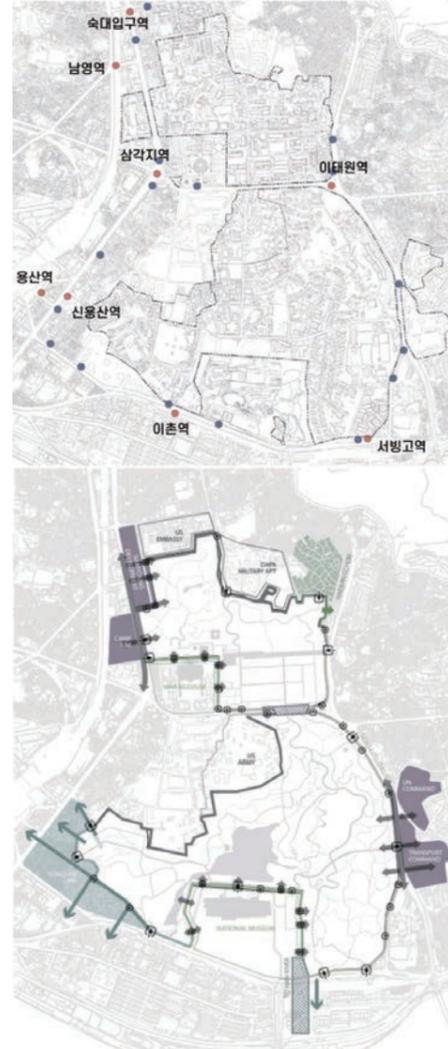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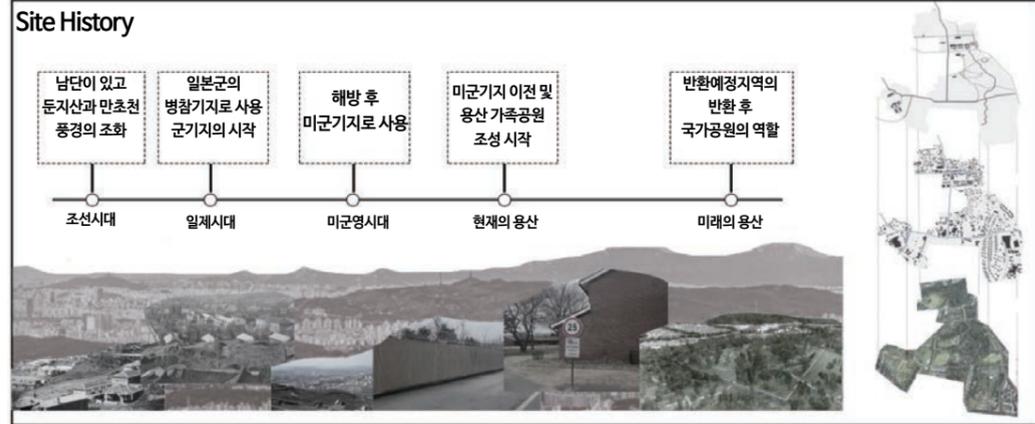
고려시대에는 몽골군, 조선시대에는 청나라군이 잠시 주둔했었고, 이후 일제시대에는 일본군, 해방 후에는 미군이 사용했던 긴 시간동안 담장 밖의 서울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왔다.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4가 13

면적 36,000㎡

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





Gray to Green

열병합 발전소의 시설복합화를 통한 사회적인프라 제안



김도성

4차 산업혁명 시대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 되고, 그 결과 공동체 의식과 지역 커뮤니티 의식을 약화시키는 “사회 원자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있다.

이와 더불어 인프라를 조성하는데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높은 토지비용, 인프라 유지에 수반되는 높은 비용 문제로 인해 기존의 고전적 인프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 의식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 복합화를 이루어낸 “사회적 인프라”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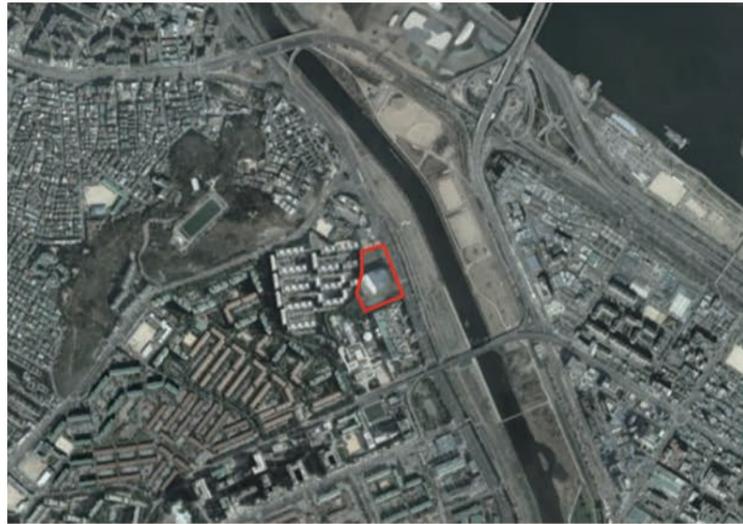
덴마크의 코펜하겐의 성공을 시발점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인 “사회적 인프라”의 개념을 대한민국의 발전소 중 주거단지와 제일 밀접하게 위치해있는 목동열병합발전소의 신축프로젝트에 적용한다. “사회적 인프라”가 적용된 새로운 목동 열병합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주민커뮤니티, 그리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생겨날 신도시의 인프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0, 900-11, 900-21

면적 56,174.54㎡

규모 지상 11층, 지하 2층





Integration in Infrastructure



과거 신도시 계획과 함께 만들어진 각종 인프라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도시내 흉물이 되었고 실제 이익을 보고있는 주민들에게 있어서도 각종 시위의 대상이 되는 등 부정적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목동 열병합 발전소는 과거 1990년대 쓰레기 소각을 통해 열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로 지금까지 20년가량 가동되고 있다. 열과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특징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거지에 매우 밀접하게 위치하게 되는데, 목동 열병합발전소는 이러한 열병합발전소 중에서도 주거지와 가장 밀접하게 지어진 특징이 있다. 인프라와 문화, 커뮤니티의 통합을 통해 도시의 흉물이 아닌 새롭게 지어지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제시하며 모두가 원하는 인프라가 되기를 기대한다.

Site Analysis



- 주거지역
- 체육시설
- 의료시설
- 교육시설
- 근린생활시설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평지 지형과 안양천이 한 곳에 위치해 있어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아파트와 안양천 사이에 울타리로 폐쇄된 현재 열병합발전소로 인해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둘을 연결해주고 완충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

Site Issues



목동 주거단지과 안양천 수공간의 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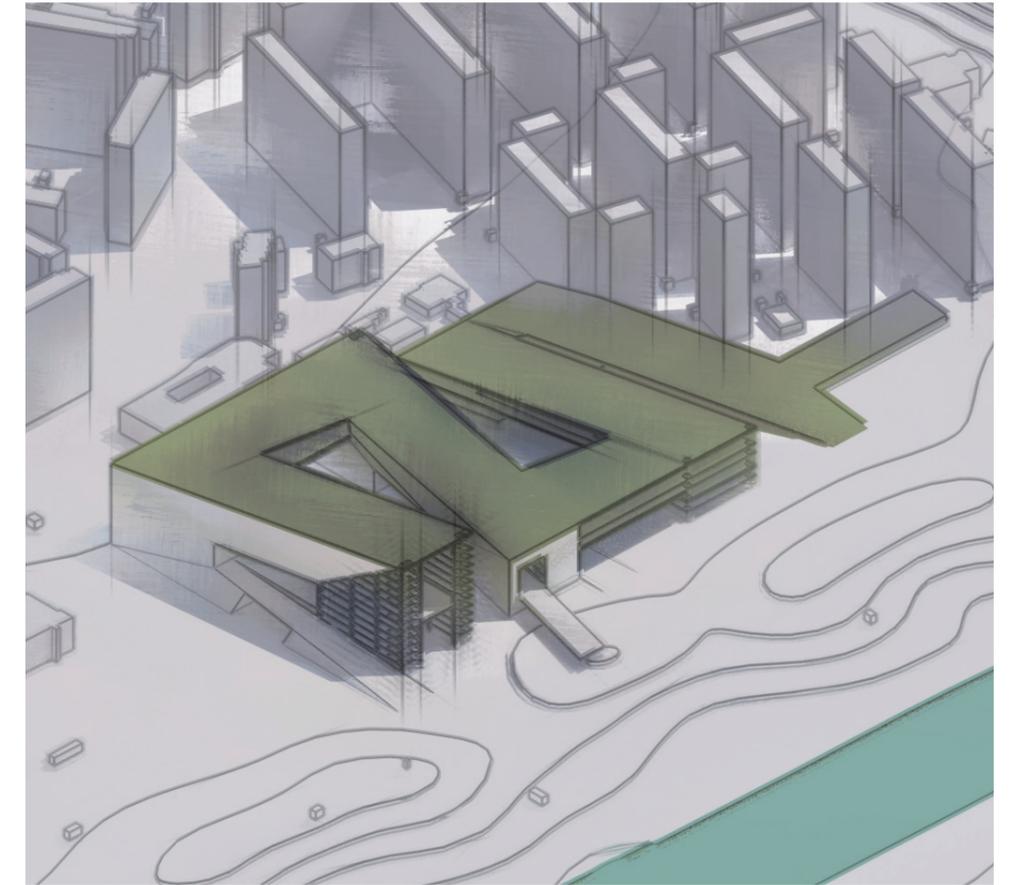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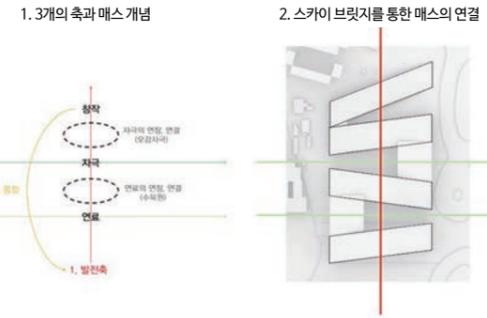
아파트 부지에서의 평지 지형

인접 버스 및 지하철로 인한 좋은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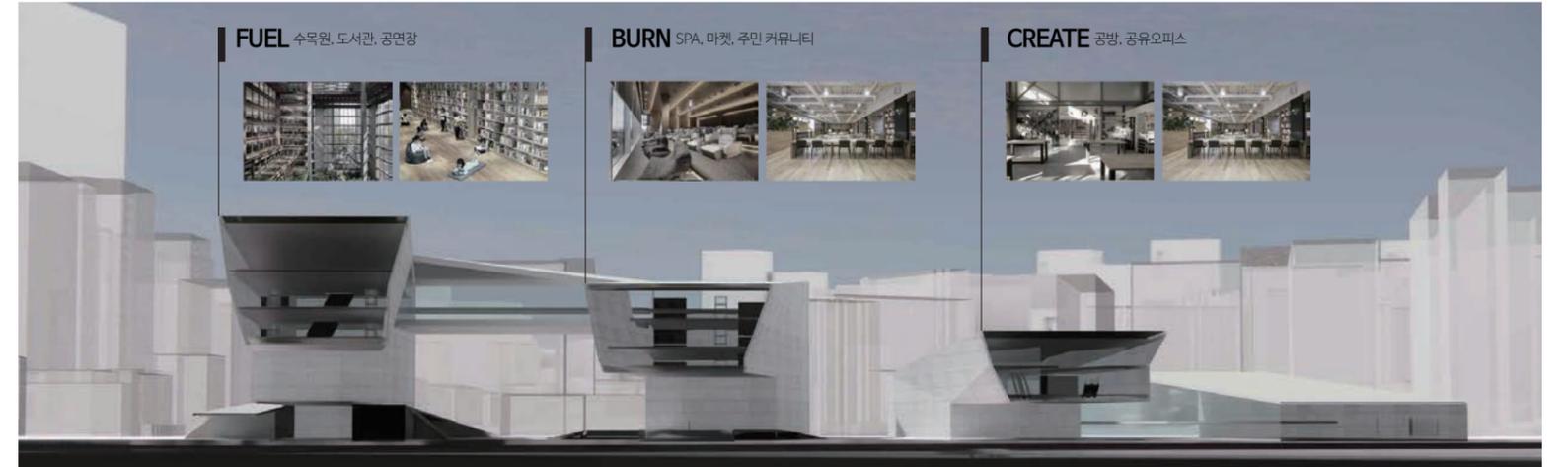
Design Concept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진 목동 대지에 거대한 매스 3개를 연결하여 배치하여 새로운 언덕을 형성해준다. 기존 수직적 매스가 아닌 선형적 언덕을 오르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기존 열병합 발전소의 거대한 매스, 울타리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아파트 단지와 안양천 수공간은 스카이 브릿지로 개방감 있게 연결하여 단절된 공간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연결한다.



Program Strategy

기존 열병합 발전소를 지화화하여 생긴 새로운 상부지역을 문화 생산, 소비 시설로 사용한다.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의 과정인 재료, 연소, 생산의 과정을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는 개념에 도입하여 새로운 스토리를 만든다. 각 동은 스카이 브릿지로 연결되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며 문화의 처음과 끝 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다.



Urban Market Village

영등포청과시장 문화복합공간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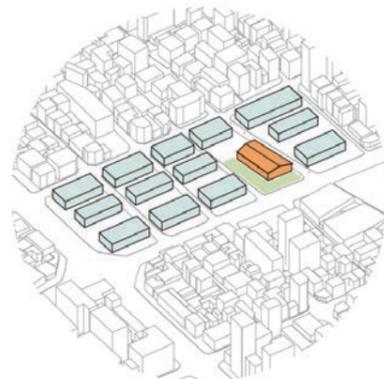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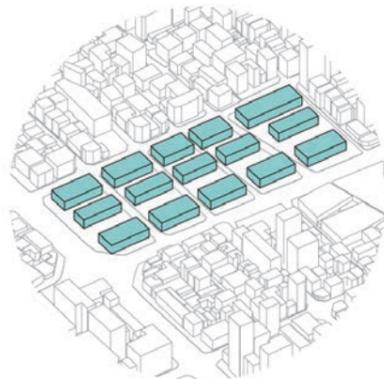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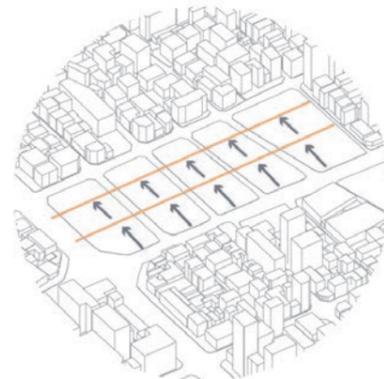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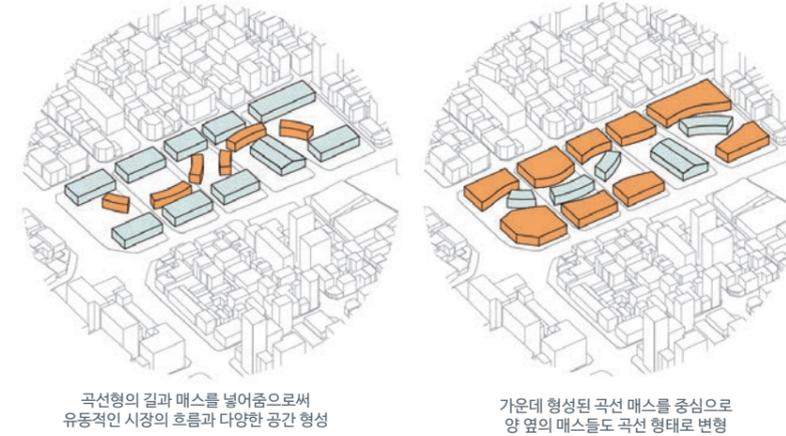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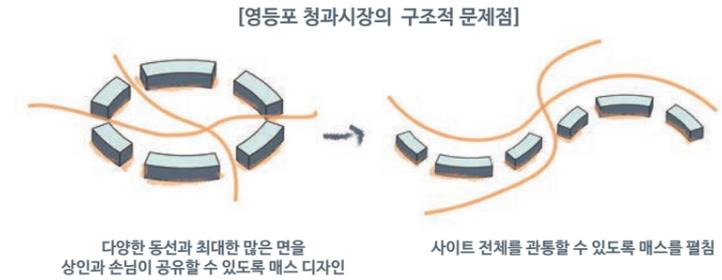


김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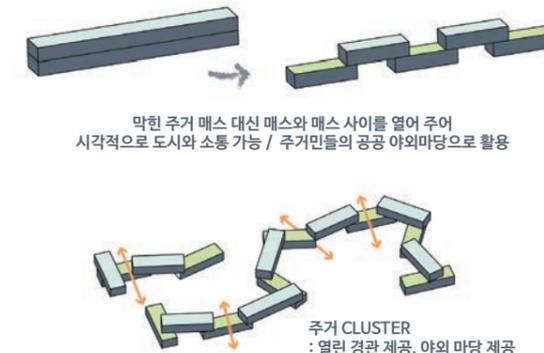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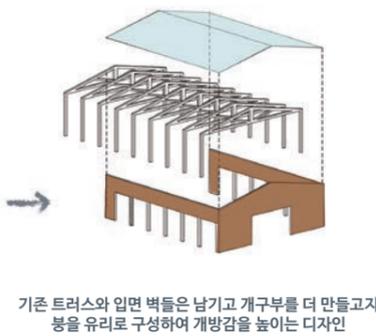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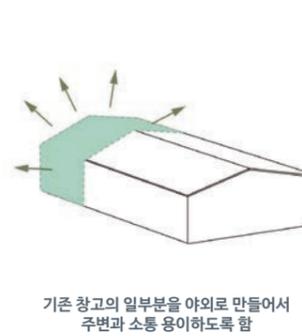
영등포 청과시장은 1984년부터 시작된 청과도매시장이다. 이곳은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시장이었던 자리와 건물이 원룸형 주거지 또는 상업시설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기능인 주거시설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해 온 청과시장을 결합하여 새로운 구조의 '시장 문화복합주거'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원룸의 공공공간 부족의 문제를 개선하는 계획을 통해, 청과시장의 활성화와 주거민들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기대한다. 더불어서, 획일화된 시장의 구조와 동선 체계를 공간 구조의 변화를 통해 유동적이고 다양한 동선의 시장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41길 5-4
 면적 17,000㎡
 규모 지상 7층, 지하 2층





[새로 개발된 주거의 문제점]



Slanted Green

신도림역 남부 광장 활성화 계획



김선중

이 프로젝트는 철도를 경계로 불균형한 역세권 개발이 이뤄진 북쪽의 신도림동과 남쪽의 구로동의 경계선에 있는 신도림역 남부 광장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거시적으로 사이트를 보게 되면 1호선 철도를 경계로 북쪽으로는 역세권 개발이 시작되면서 세워진 고층 주거단지와 그와 연계된 인프라 시설들이 존재하지만 남쪽으로는 고밀도의 노후 주거단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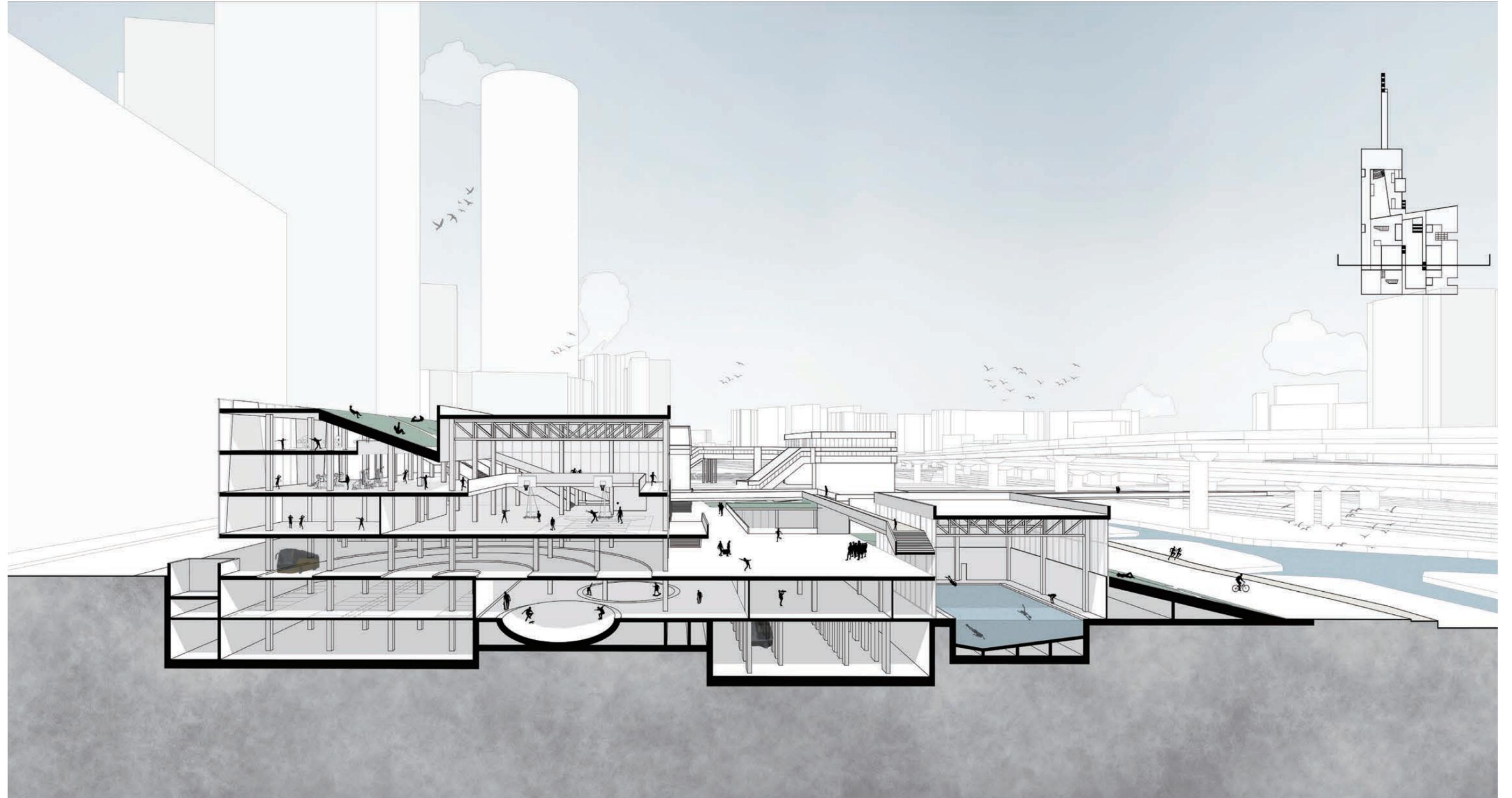
이러한 모습은 신도림역의 북부 광장과 남부 광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역 북부 광장은 문화광장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머금고 있지만, 남부 광장은 혼잡한 역사공간에 의해 이용도가 떨어져 그저 지나쳐가는 공간이며, 도림천과 같은 주변 콘텍스트와 연계되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판을 기울여 역사 이용객들과 충돌하지 않는 녹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그 판의 시작점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림천의 산책로에서 시작한다. 이 경 사진 녹지에 시간의 경계가 없는 프로그램인 체육시설을 삽입하여 그 판의 하부도 함께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게 한다.

위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남부 광장

면적 34,842㎡

규모 지상 4층, 지하 2층



Stitch the City

인프라스트럭처로 단절된 도심 속 공간 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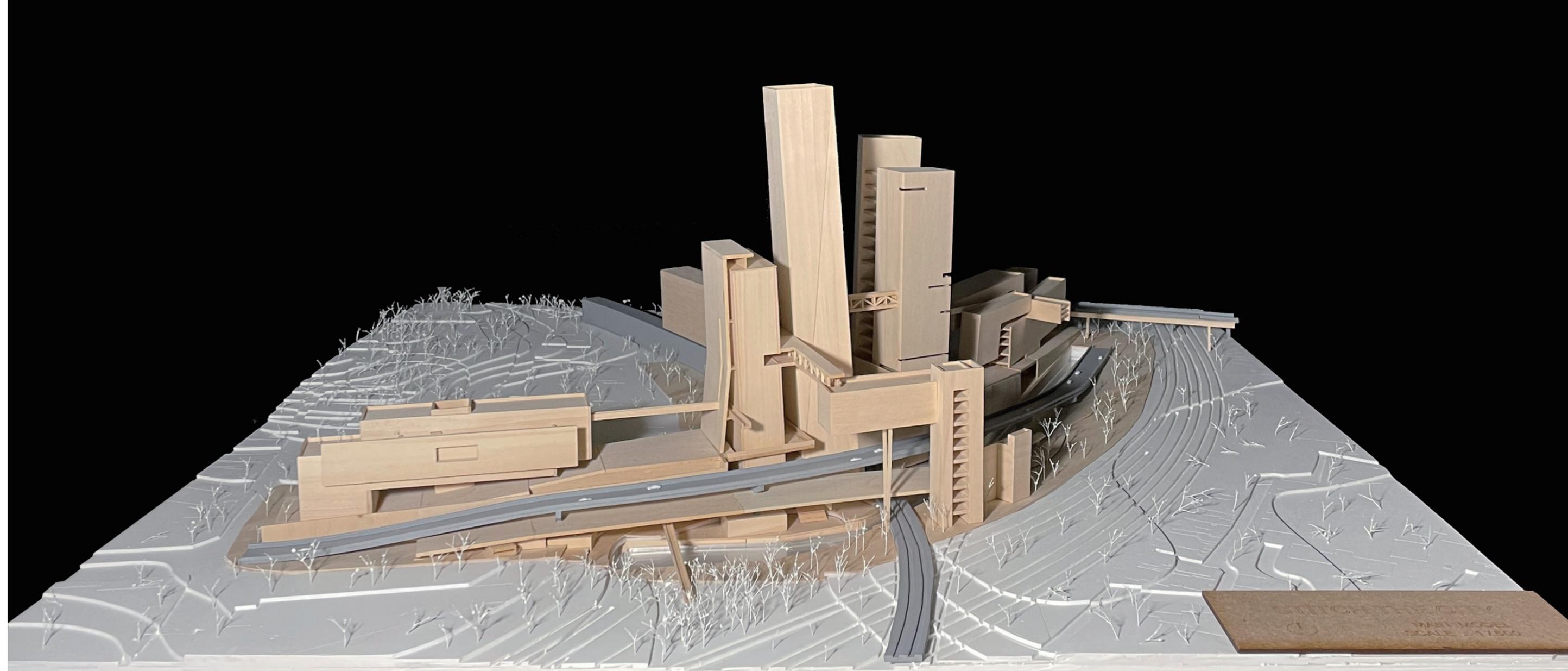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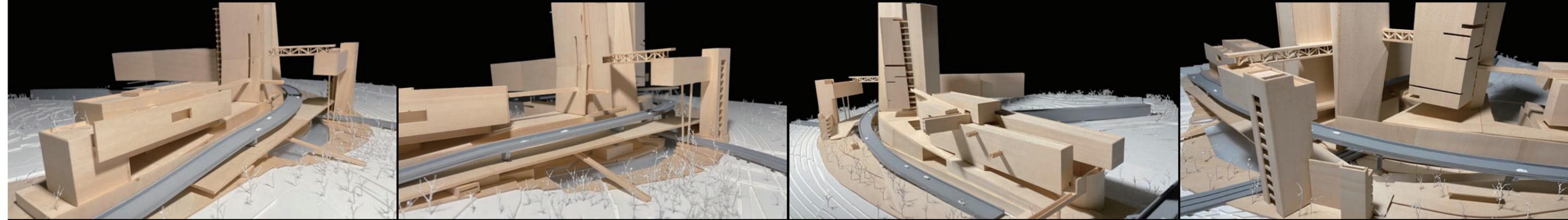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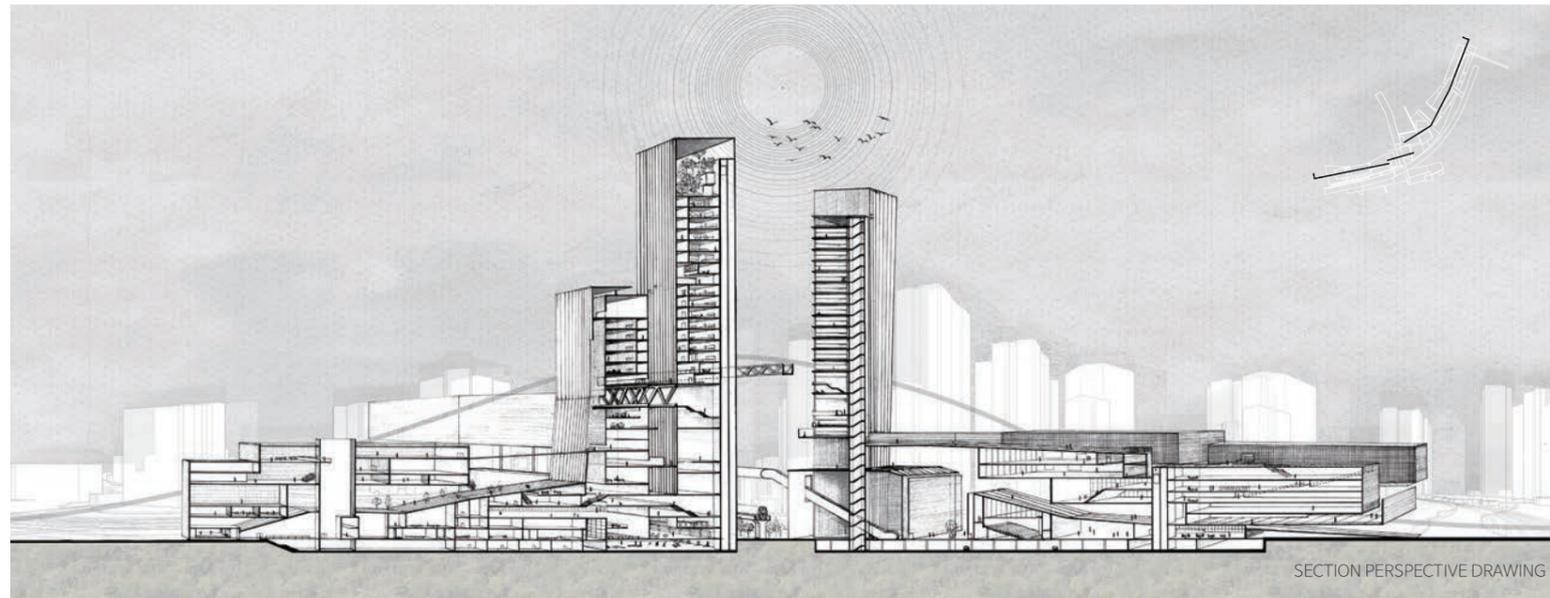
김수민

경부선, 1호선 철도와 고가차도, 경의중앙선의 교차점으로 수많은 인프라스트럭처들이 난무하는 공간이다. 인프라스트럭처는 주변 지역들을 분리, 파편화시켰고, 그 주변에 있는 오리는 사육 부지도 도시와 단절된 채 섬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의선 철도의 지하화 및 공원화, 복개 하천과 배수펌프장, 고가철로 및 도로 등이 만드는 혼돈의 풍경을 어떻게 도시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STITCH THE CITY’라는 제목처럼 도시에 연결되지 못하고 파편화된 도시조직을 연결하여 하나의 구심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가차도, 철도, 하천 등의 도시기반시설로 인하여 단절된 용산의 해당 대지를 연결하는 창업 및 문화 산업 콤플렉스를 계획하여 복합적 기능의 도시 인프라스트럭처이자 새로운 유형의 도시공원을 제안하는 것이다. 대상지 내에 인프라스트럭처로 인해 사분오열된 지역 간의 보행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교통의 역할 이외에 부족한 프로그램들을 수용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0다길 13 일원
면적 49,450㎡
규모 지하 3층, 지상 32층





SECTION PERSPECTIVE DRAWING



Site Issue

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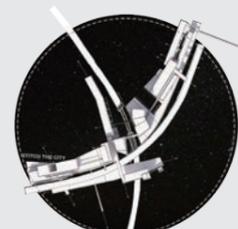
철도로 인한 동서지역 도시공간의 단절
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가도로로 인해 물리적 단절이 심하며 버려진 공간이 다수 존재함.

RIVER

복개되어 방치된 만초천의 일부
만초천이 지하에 흐르며, 미 복개된 구간이 사이트 내에 일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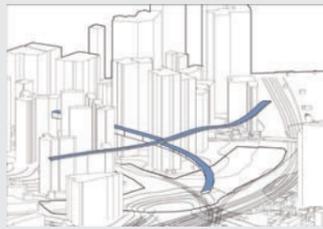
IDENTITY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통인프라의 혼재
사이트 주변으로 교통, 녹지, 역사문화, 주거 등 다양한 축이 혼재되어 파편화된 도시공간이 생겨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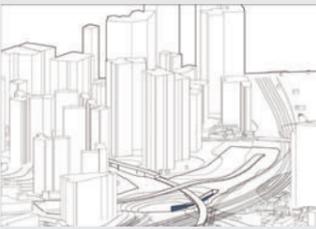
Design Process

파편화된 대지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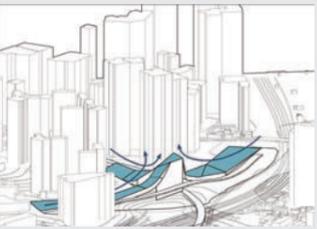
철도, 고가도로 등으로 인해 나누어진 땅을 묶어 연결한다.

버려진 공간, 만초천 복원



복개되어 버려진 공간이었던 만초천을 재활용한다.

도시의 흐름을 끌어들이ム



도시의 흐름을 끌어들이어 새로운 중심을 만든다.

Design Process



step 01.

사이트의 중심으로 모아 중심점을 형성한다. 지상에서 만초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뻗어나가게 한다.



step 02.

철도로 인해 단절된 반대편과 연결을 한다. 사이트 중심으로 점차 모여 하나로 묶이는 컨셉을 강조한다.



step 03.

매스들이 분절되지 않도록 브릿지로 연결한다. 주거단지 쪽에서 중앙부까지 길게 뻗어 주변과 연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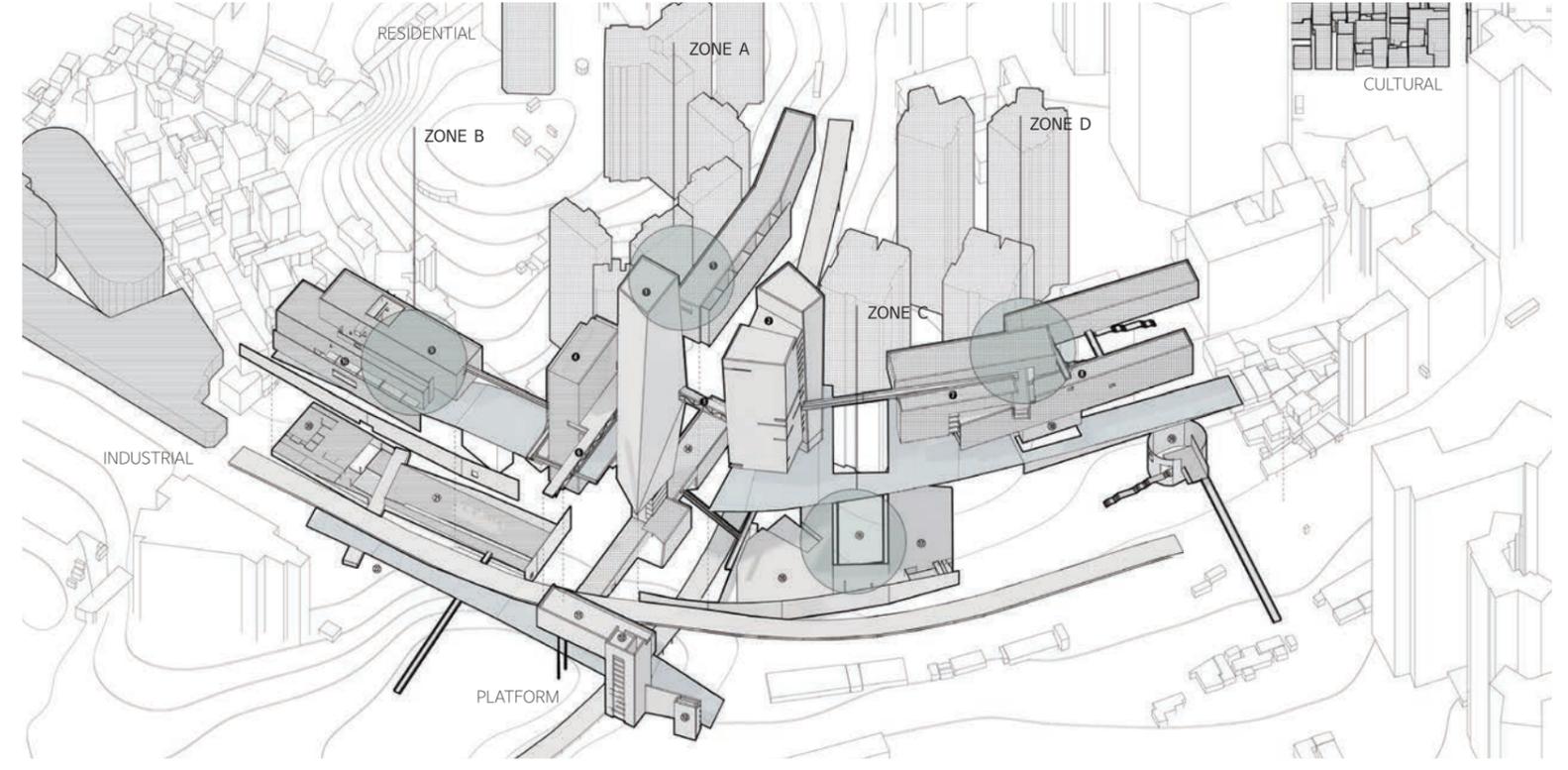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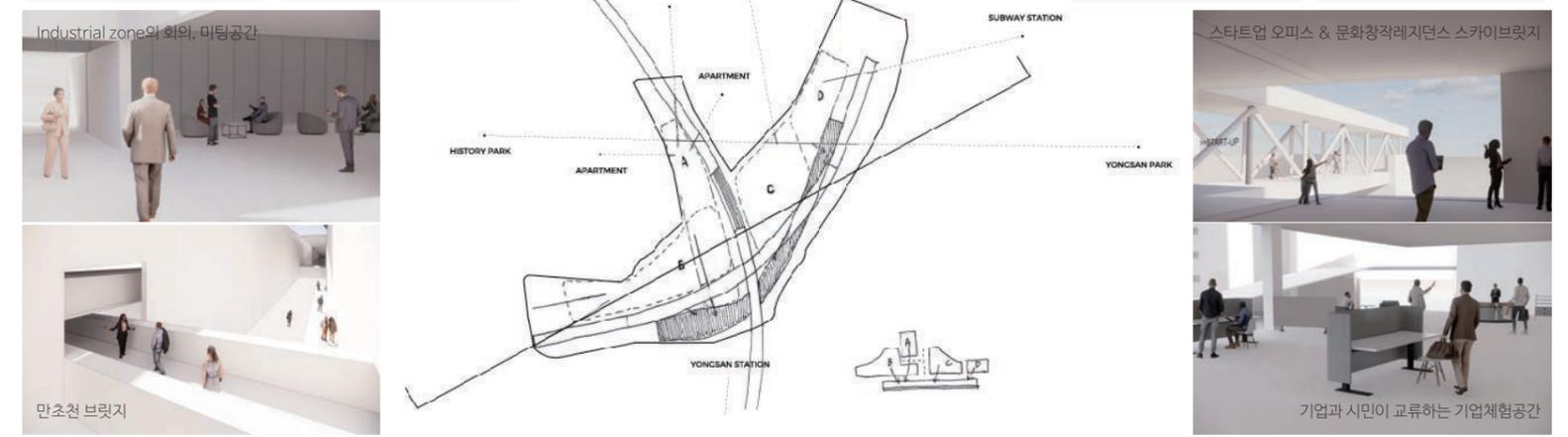
step 04.

삼각지역 쪽의 인쇄소 골목 특성을 담고자 매스의 외부공간을 활용한다.

Program Strategy

주변에 있는 프로그램, 도시적 맥락을 연계하여 인프라스트럭처의 교차점에 새로운 융합점으로 작용시킨다. 또한, 교통의 역할 이외에 결합되었던 기능을 채워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정체성을 부여한다. 건축 주변의 도시적 맥락의 연속성을 건축물에 접목시켜 표현함으로써 도시의 컨텍스트로서의 자연스러운 기능과 도시민의 건축에 대한 거부감 없는 접근을 유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주변 컨텍스트를 반영하여 주거 편의 / 산업 / 문화 / 전시 프로그램을 배치하였다.

<p>ZONE A SOCIAL ZONE</p> <p>대규모 주거단지와 접한 구역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p> <p>어린이집 도서관 피트니스센터</p>	<p>ZONE B INDUSTRIAL ZONE</p> <p>용산전자상가와 연계하여 열린 스타트업 교육공간을 중심으로 컨설팅과 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팅을 돕는다.</p> <p>코워킹스페이스 스타트업 교육공간</p>	<p>ZONE C CULTURAL ZONE</p> <p>기업과 시민의 소통 공간으로 플래그십스토어와 기업체험공간에서 기업과 시민의 자족문화를 형성한다.</p> <p>플래그십스토어 / 플래마켓 광장 레스토랑 / 카페</p>	<p>ZONE D SHOW ZONE</p> <p>기업홍보 및 전시공간을 통해 시민과 교류하며 기업을 홍보한다.</p> <p>쇼룸 전시공간 기업홍보공간</p>
--	--	--	--



Fragmented Garden

정원의 속성 재구성 및 공간화 디자인 제안



김은솔

Reassemble the Garden

정원은 복합적 문화의 구성체이며, 현대의 도시정원은 '경험'의 대상에서 '경험의 환경을 제공하는 주체적인 공간'으로 재발견된다. 정원은 참여의 미적 장이자 도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배경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도시정원의 주체는 어떤 형태의 공간으로 존재할까? 본 프로젝트는 정원의 여러 속성이 각각의 공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숲의 주체가 되는 공간을 제안하면서, 서울숲이라는 도시 속 오픈스페이스에 전원(田園)의 역할을 주입하여 서울숲 일대의 시공간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장소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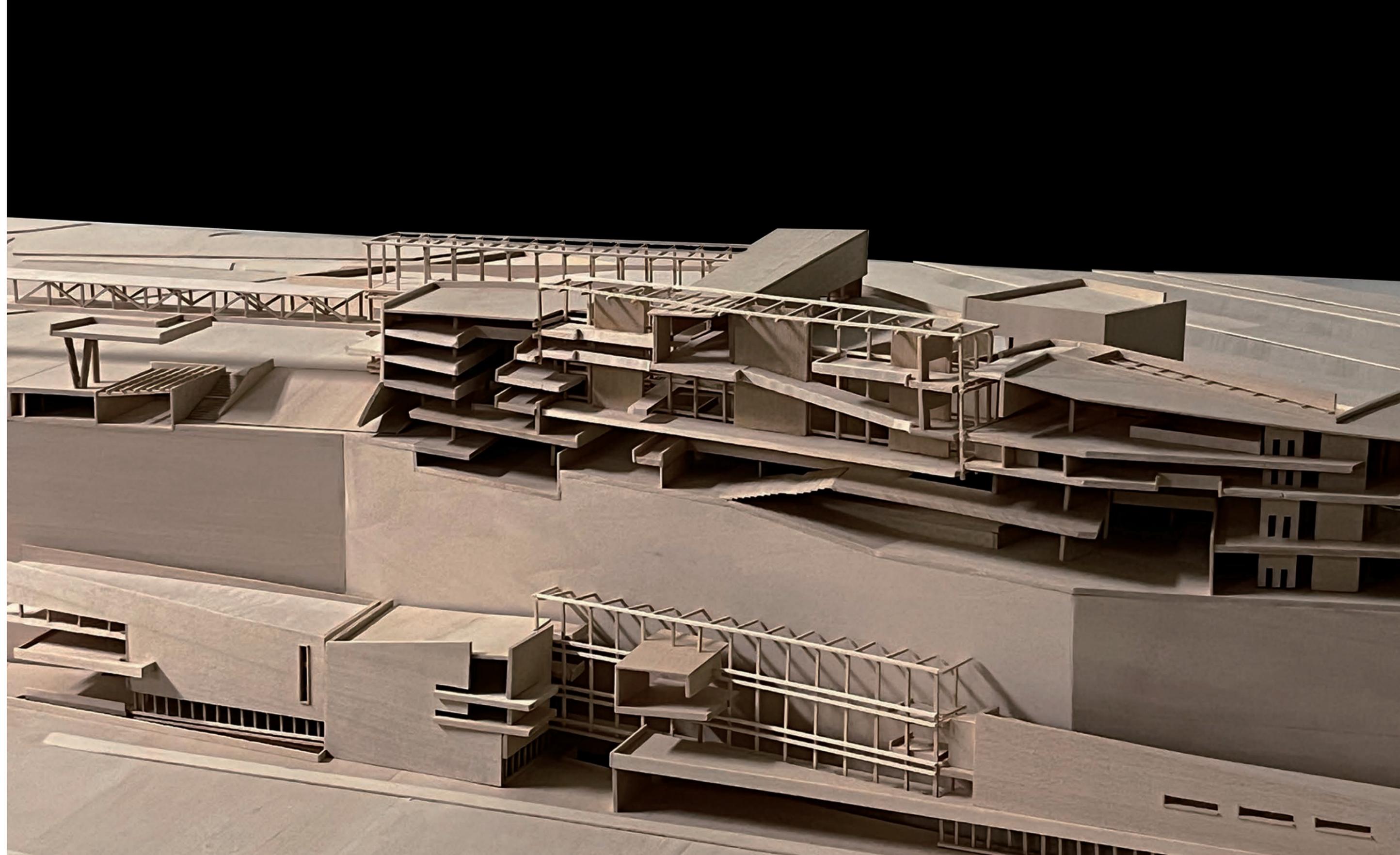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Fragmented Garden'은 숲을 걷는 사람들의 목적지이자, 기존의 도시정원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경관과 행위를 입체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으로, 일상적 경험으로서의 자연 및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Thanks to. 김다영 이나연 이소영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71

면적 27,828㎡

규모 지상 4층, 지하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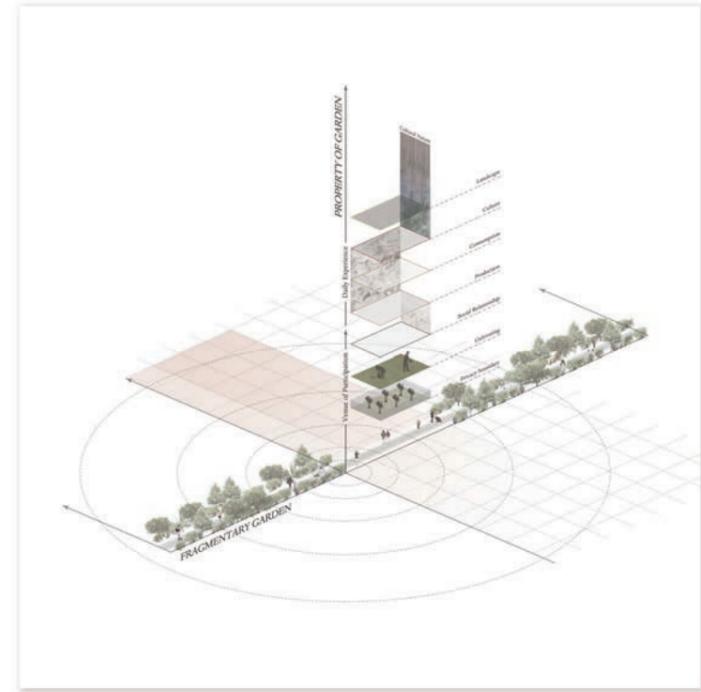




Frag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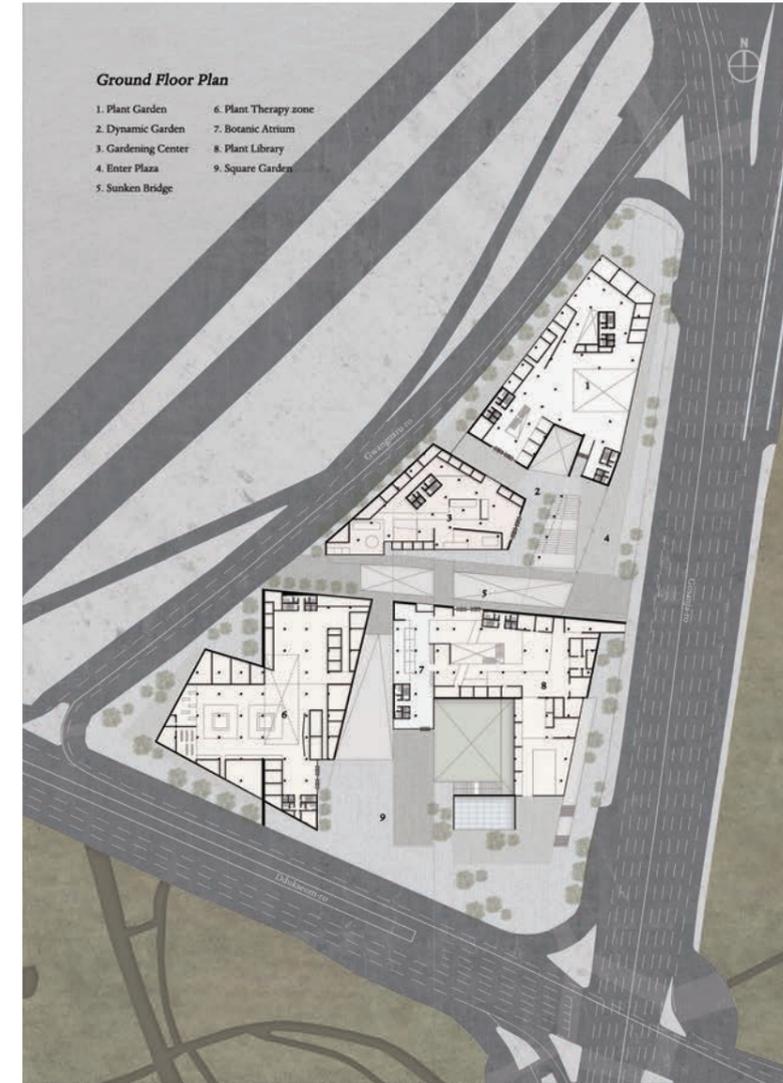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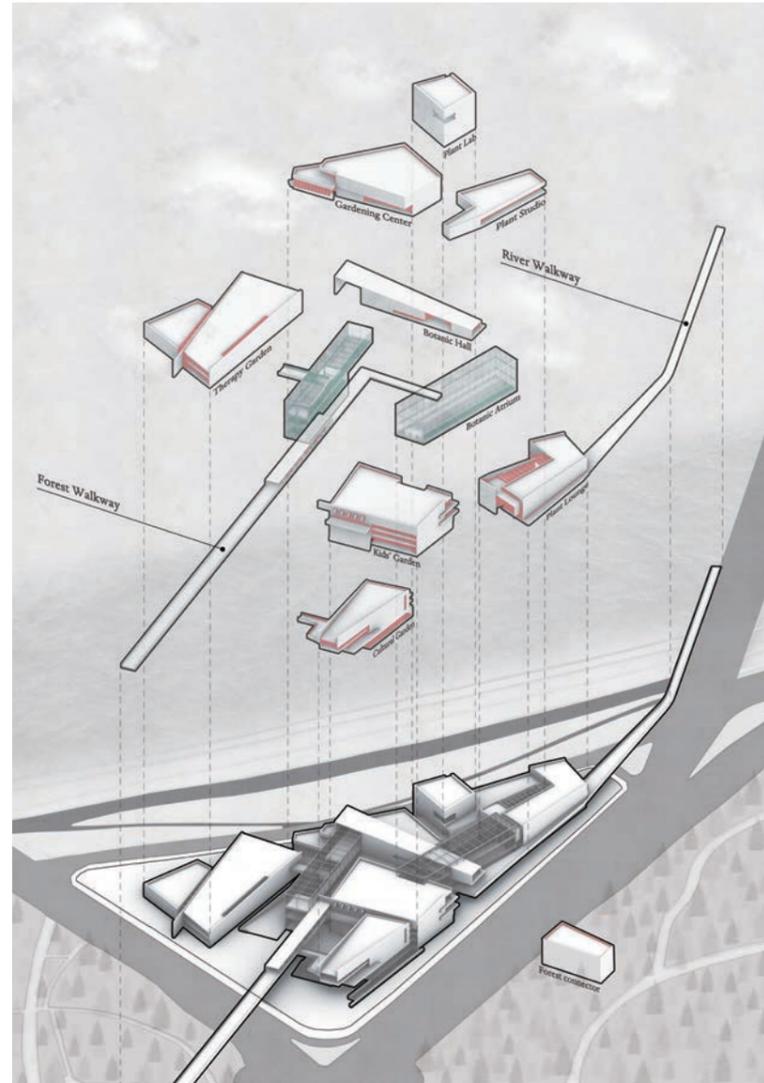
- 1. 조각, 파편 2. 산산이 부수다

현대적 의미의 도시정원이 도시내에서 기능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속성으로 나열한다. 정원의 속성을 크게 경계, 경작, 관계, 생산과 소비, 문화, 자연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공간을 재구성한다. 단편적인(Fragmentary) 형태의 선형공원은 입체화되어 다양한 레벨과 공간에서의 자연체험을 가능하게 하며, 결론적으로 도시 거주민들의 앞뜰과 같은 역할을 한다.



'Cultural Nature'

정원은 개인적 공간을 한정하는 선인 '경계'와 가꾸는 행위인 '경작'에서부터 시작해 현대의 정원은 자연과 문화, 환경, 예술이 합작된 '문화적 자연'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경험'의 대상에서 '경험의 환경'을 제공하는 주체적인 공간으로,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일상적인 삶의 배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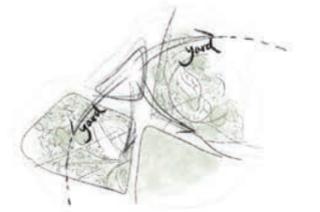


Ground Floor Plan

- 1. Plant Garden
- 2. Dynamic Garden
- 3. Gardening Center
- 4. Enter Plaza
- 5. Sunken Bridge
- 6. Plant Therapy zone
- 7. Botanic Atrium
- 8. Plant Library
- 9. Square Garden

'Cultural Nature' + 'Yard'

서울숲이라는 도시 속 거대 오픈스페이스에 전원(田園, Yard)의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면 'Fragmented Garden'은 서울숲을 마당으로 하는, 문화적 자연의 향유가 가능한 공간이 된다. 또한 사이트의 물리적 단절을 극복하는 행위로서의 서울숲과 음봉교로의 연결은, 자연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인공과 자연을 연결해 컨텍스트를 만드는 기능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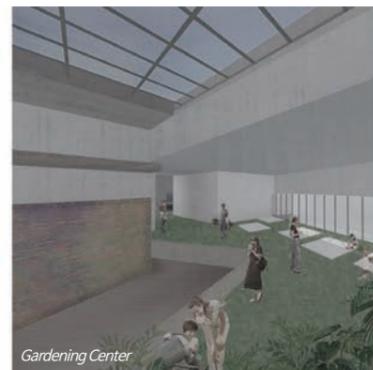


2nd Floor Plan

- 1. River Walkway
- 2. Plant Studio
- 3. Object Showroom
- 4. Botanic Atrium
- 5. Gardening Shop
- 6. Culture Exhibition
- 7. Botanic Atrium
- 8. Kids' Garden center
- 9. Culture Alley

3rd Floor Plan

- 1. Plant Hall
- 2. Gardening Lab
- 3. Botanic Atrium
- 4. Botanic Hall
- 5. Botanic Atrium
- 6. Education Zone
- 7. Assembly Room
- 8. Forest Terrace
- 9. Forest Walkway



X-X' Section Perspective

- 1. Forest Walkway
- 2. Atrium
- 3. Exhibition
- 4. Garden Center zone
- 5. Kids' Garden
- 6. Library Garden
- 7. Middle Space
- 8. Botanic Atrium Plant Wall
- 9. Main atrium
- 10. Dynamic Garden
- 11. Gardening Center
- 12. Gardening Center
- 13. Plant Gallery
- 14. Plant Studio
- 15. Opening Garden
- 16. Culture Library
- 17. Middle Garden Gallery

KNOTS, 이질적인 것들의 얽힘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과 근대벽돌공장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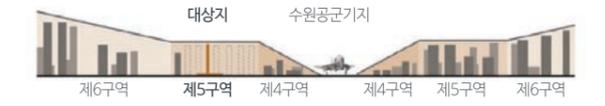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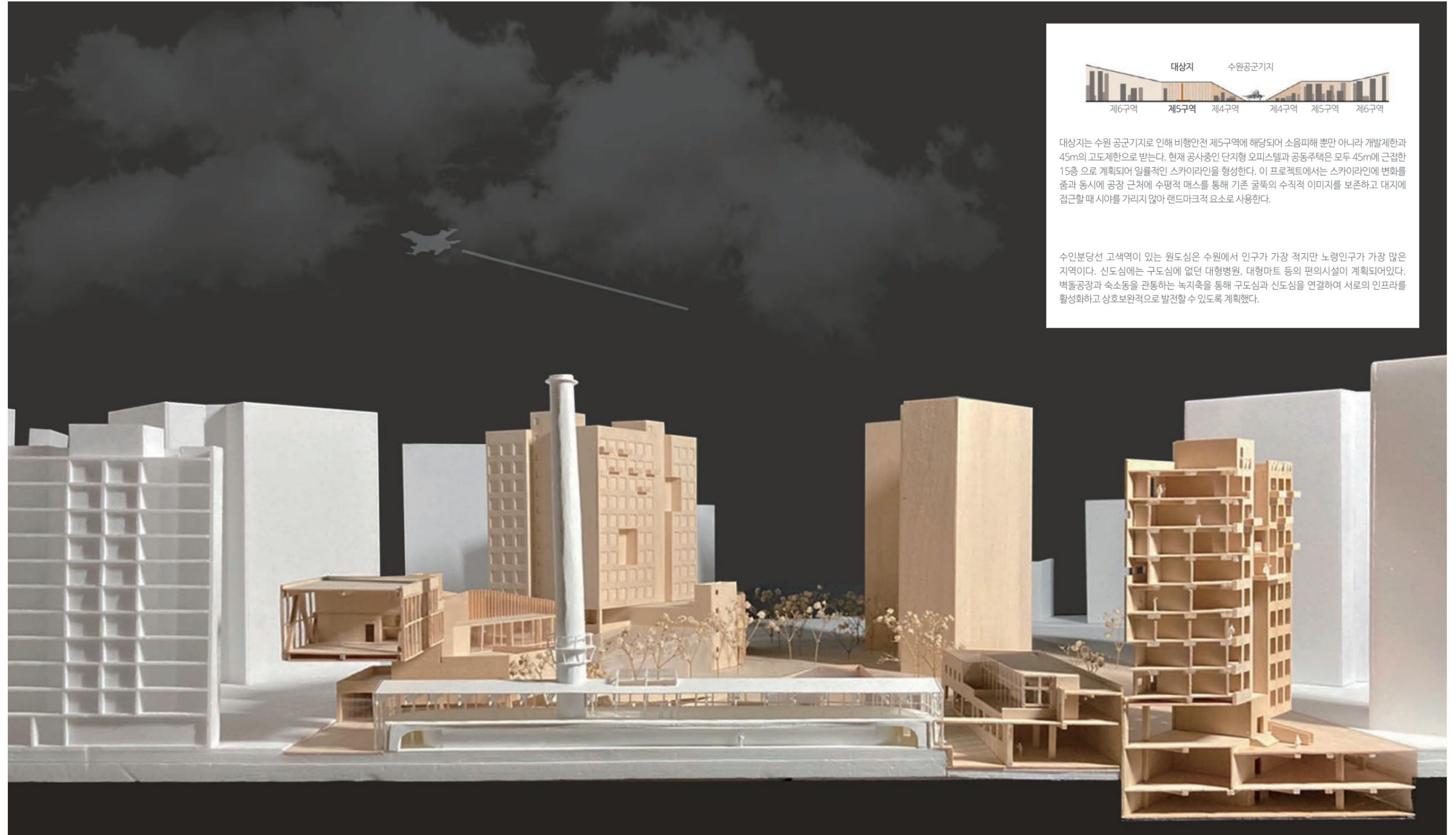
김준우

이 프로젝트는 수원 공군기지 이전에 따른 급격한 도시의 변화에 근대 벽돌공장이 철거 위기에 놓인 현재 건축물의 단순 보존이 아닌 하나의 대지에서 서로 다른 가치가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했다.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공군기지와 수원역은 도시확장과정에서 동쪽과 서쪽의 극심한 도시밀도 차이를 유발하였다. 2015년 국방부에서 공군기지가전을 승인하면서 대상지가 포함된 서수원은 많은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 현재 경작지와 야외 중고차 매매단지로 사용되던 대상지에는 4000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지정되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근대식 벽돌공장과 노동자 숙소는 철거 위기에 놓여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단계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근대벽돌공장을 보존함으로써 다른 장소에서는 없는 장소성으로 서로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치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711번길 100 일대
면적 29,434.1㎡
규모 지상 13층, 지하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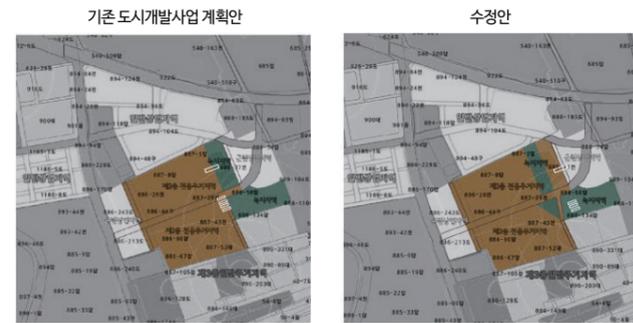
대상지는 수원 공군기지로 인해 비행안전 제5구역에 해당되어 소음피해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과 45m의 고도제한으로 받는다. 현재 공사중인 단지형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은 모두 45m에 근접한 15층으로 계획되어 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스카이라인에 변화를 줌과 동시에 공장 근처에 수평적 매스를 통해 기존 골목의 수직적 이미지를 보존하고 대지에 접근할 때 시야를 가리지 않아 랜드마크적 요소로 사용한다.

수인분당선 고색역이 있는 원도심은 수원에서 인구가 가장 적지만 노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신도심에는 구도심에 없던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의 편의시설이 계획되어있다. 벽돌공장과 숙소동을 관통하는 녹지축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여 서로의 인프라를 활성화하고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Site Iss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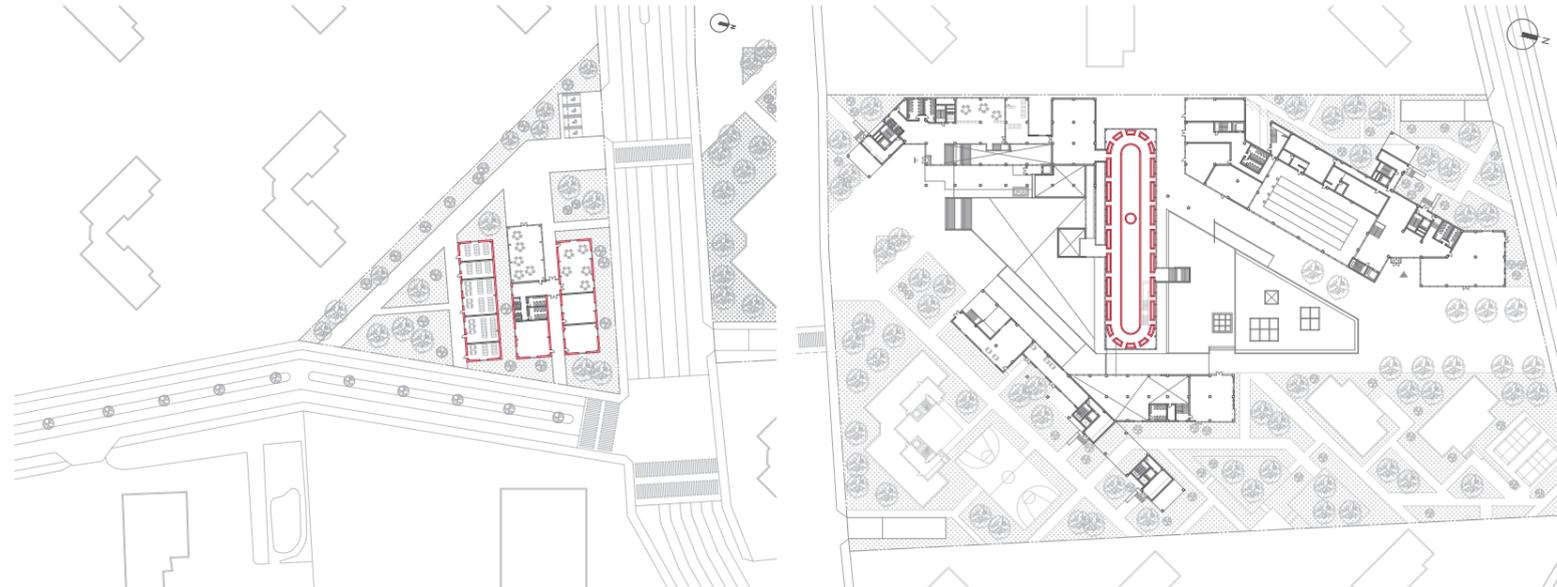


1937년 함계철도 수인선 배치간이역으로 고색역이 개통되면서 수원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물길을 양옆에 두고 주거지와 농경지가 형성되었다. 산업화과정에서 전투기 소음 피해와 개발제한으로 인해 주거지 확장보다는 선경작물, 영신연와, 동보연와 같은 근대산업시설들이 들어섰다. 1990년대 콘크리트 사용과 현대식 벽돌공장의 국내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고색역에 가까운 동보연와는 철거 후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영신연와는 방치되었다. 현재 수인분당선 재개통과 국방부 수원 공군기지 이전 승인으로 주변 개발과 영신연와의 철거가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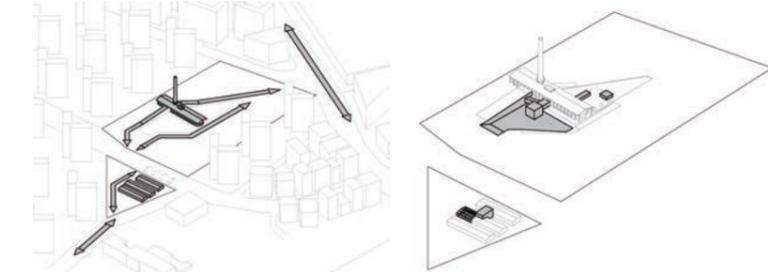


기존의 공장과 숙소 3개동을 보존하기 위해 길을 일부 조정하고, 공원을 재배치 하여 신도심 편의 시설과 구도심 인프라를 연결하는 중심축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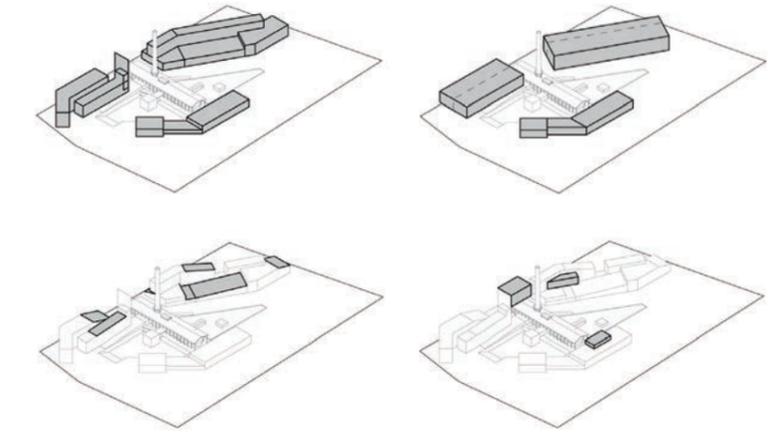
지상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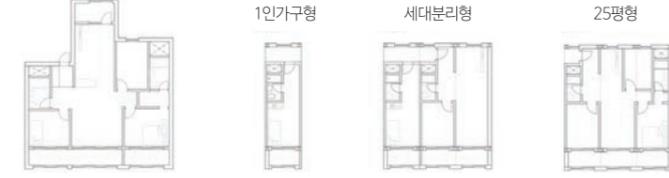
Desig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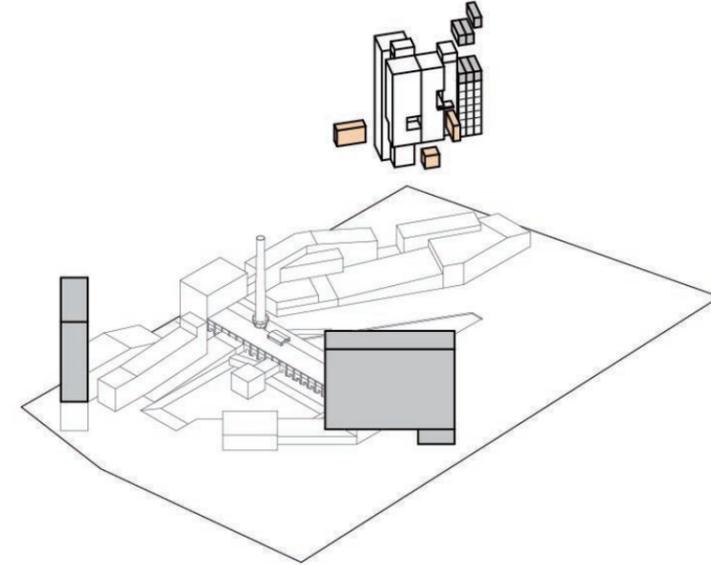
기존 숙소동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다목적공간과 학생들을 위한 열람실로 변형하였다. 또한 가마를 활용한 전시공간은 외부인 출입이 많아 거주자들과 분리를 위해 선관광장에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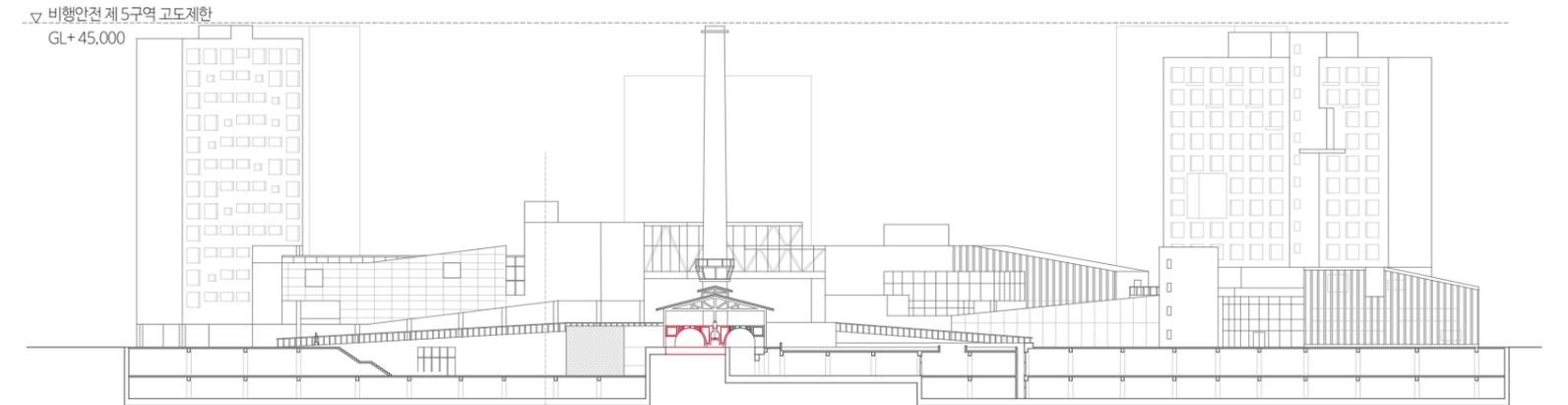
Unit Design



서수원에 최근에 지어진 공동주택 중 25평형 아파트를 선정하여 주변에 배치하였다. 대상지의 주택은 모듈러 유닛을 사용하여 다양한 평수의 주택을 제공하고 공간기지 이전 후 고도제한이 사라지면 세대를 추가할 수 있다.



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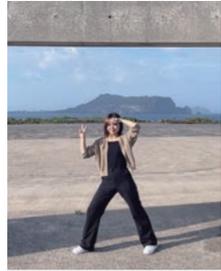


공원 축을 따라 약 200m 길이의 긴 형태의 하부 건물은 분절과 경사지붕, 재료변화를 통해 프로그램에 따라 구분

IN 2050

: NEXT GENERATION OF INDUSTRIAL COMPLEX

경계의 충돌과 확장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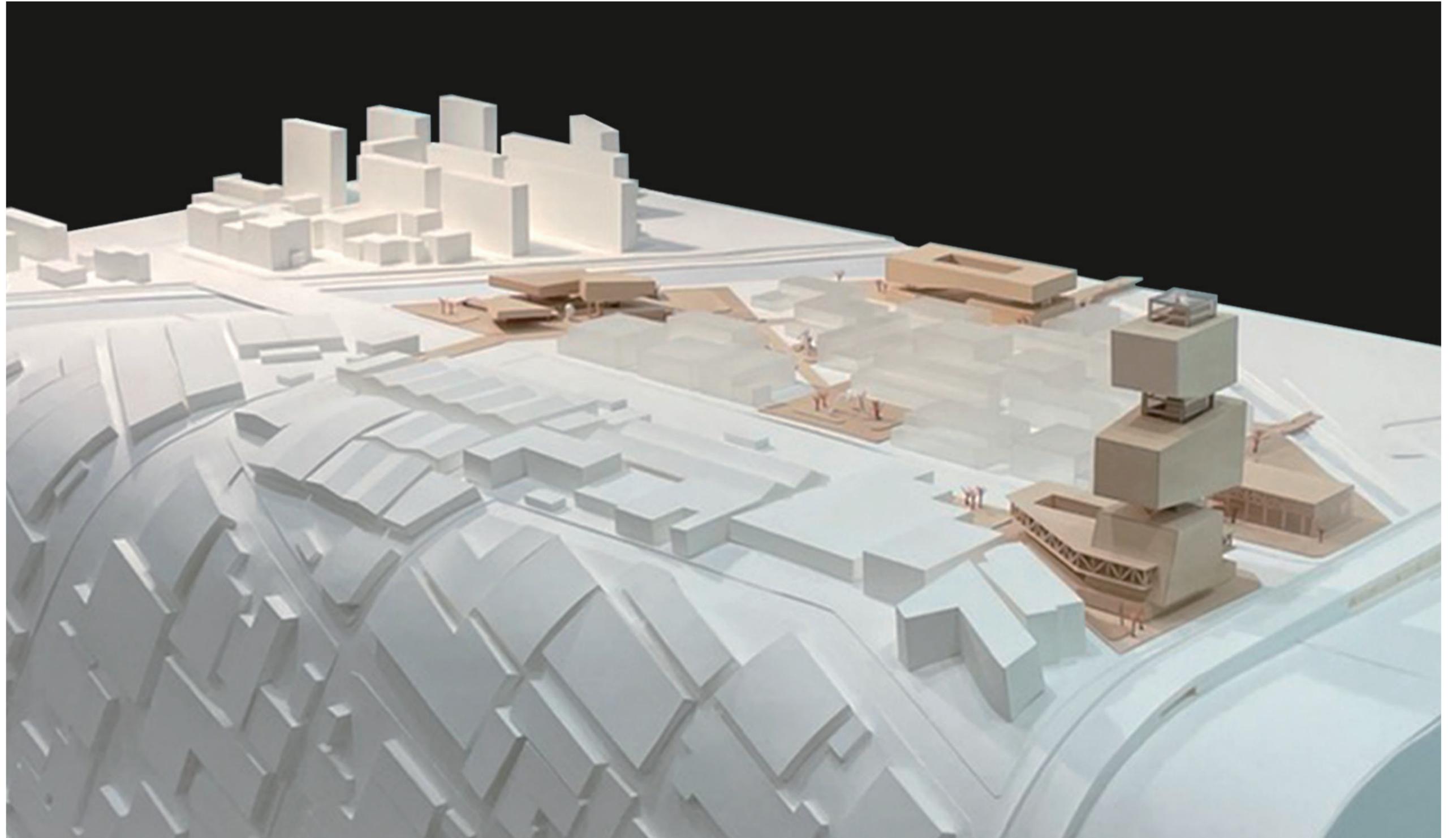
부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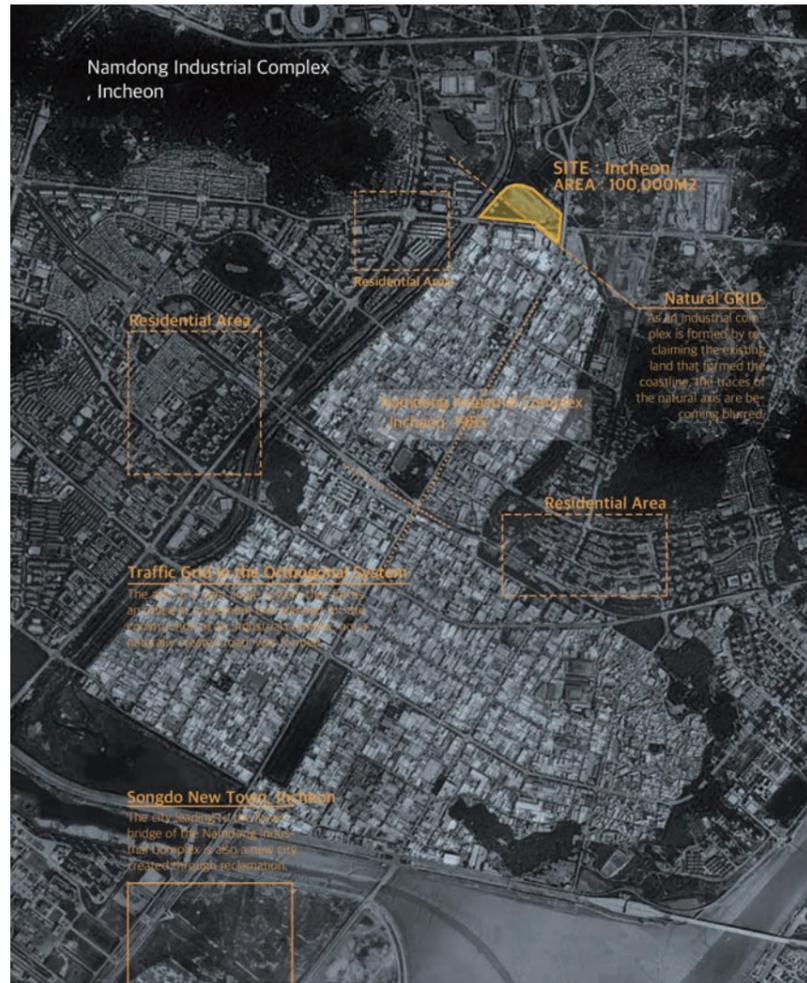
1980년대까지 인천의 성장을 주도해온 산업단지는 현재,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여 '섬'으로 고립된 채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단지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인천시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산업단지가 도시와 자연의 경계안에서 새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새로운 도심 산업단지를 형성하는데 있어 인천남동산업단지가 가지는 '경계'의 3가지 경우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산업단지와 주거단지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계, 기존 산업단지과 확장되어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단지의 경계, 확장된 산업단지에서 앞으로 더 확장되는 산업단지로의 중심부가 가지는 경계에 대해 형태적, 프로그램적, 재료적인 요소들의 접근으로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주변과 상호작용을 이루는 설계안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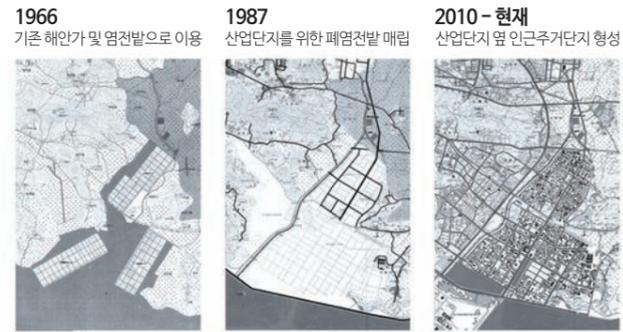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시가 가지는 경계를 단절과 고립으로 방지하지 않고 도시민들의 휴식, 문화, 생산활동으로 이어주며 다음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기대한다.

위치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 629 일대
면적 100,000㎡
규모 지하2층,지상3층 / 지하2층,지상5층 / 지하4층,지상 25층





Industry Fac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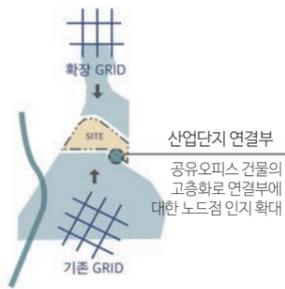


Site Con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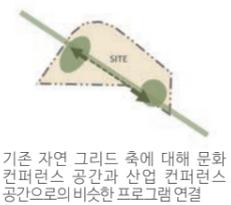
1980년대까지 인천의 성장을 주도해온 산업단지는 현재,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여 '섬'으로 고립된 채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단지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인천시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산업단지가 도시와 자연의 경계안에서 새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산업단지 확장그리드



기존 자연그리드



Design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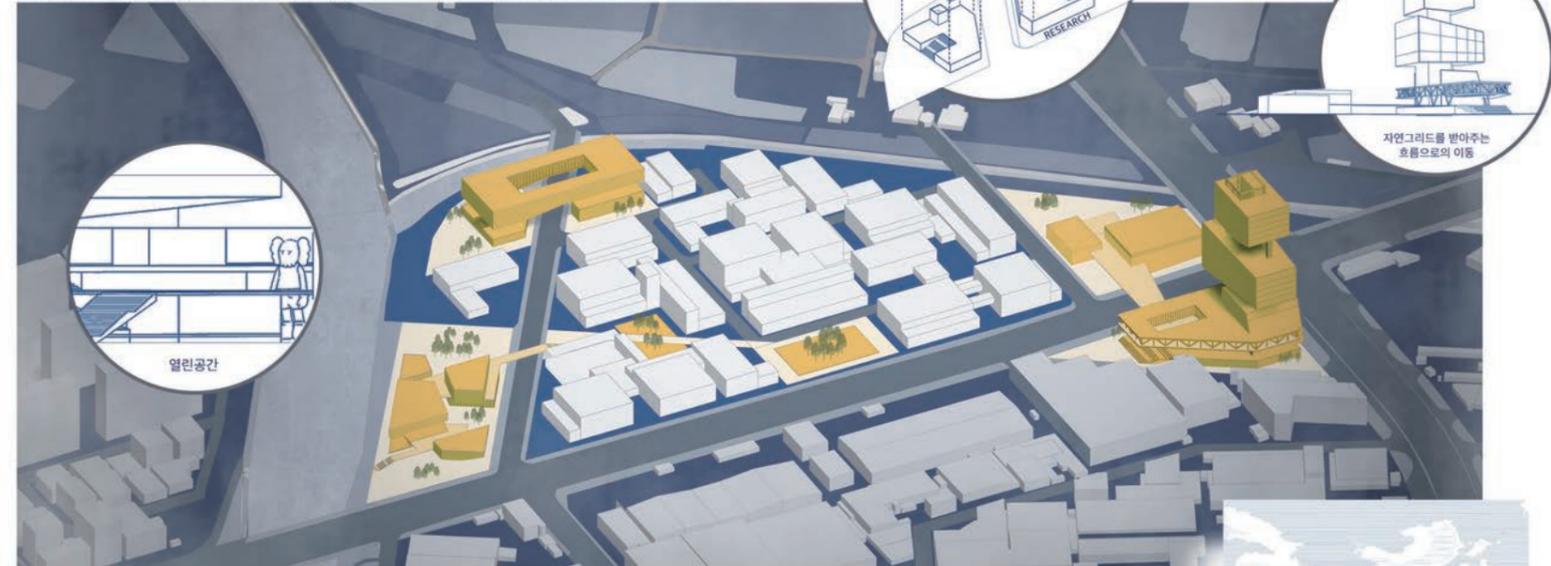
인천남동산업단지를 형성하면서 세운 질서의 체계 속 직교체계의 그리드, 직각형태의 공장들에 대해 새롭게 계획하는 산업단지에서는 새로운 그리드의 중첩과 확장, 변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의 새로운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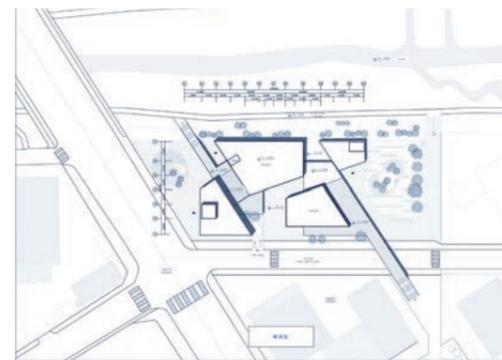
주변적 요소와 충돌이 일어나는 경계부에 대해 기존 질서를 깨며 주변과 상호작용을 유도함에 따라 새로운 성격의 프로그램이 형성된다. 형태와 프로그램의 변형으로의 접근방법으로 또다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주며 이용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산업단지에 대한 색다른 경험을 느끼게 해준다.

What should industrial complexes in the city look li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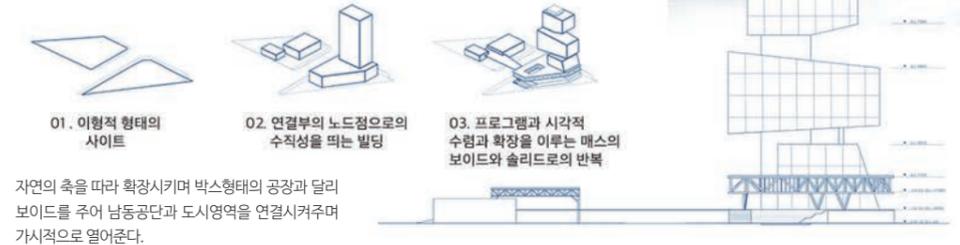
With many proposals for a new industrial complex to cope with the 4th industry, we would like to propose a prototype that can be used as a sustainable industrial complex considering the program and surrounding context, not just the smart industrial complex.



Cultural Space Plan



Building Mass Process



MODEL



프로토타입 디자인 계획을 진행한 사이트는 새로운 산업단지가 확장되는 부분이며 새롭게 확장된 산업단지로 인해 기존 산업단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이다. 따라서 사이트로의 새로운 산업단지의 수렴과 긍정적 기대효과로의 확장을 사이트 모형으로 표현하였다.



WALK DOWN A WAY

Recovery as Commun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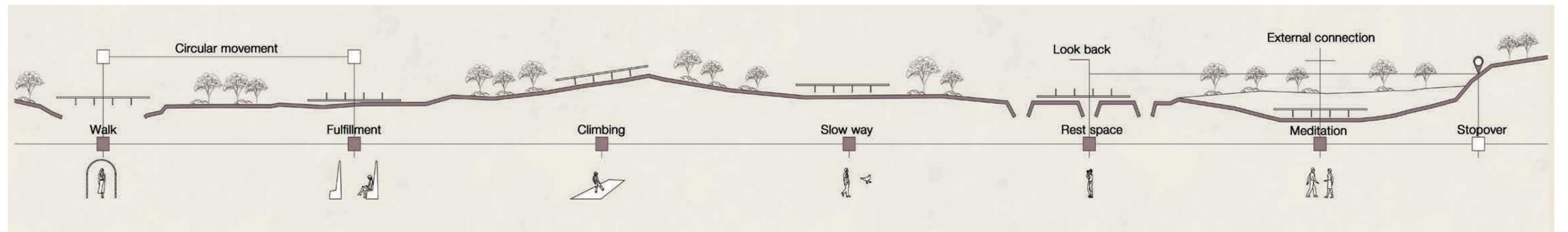


배제윤

1953년 7월 27일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고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군사 분계선이 설정되며 남북으로 각각 2km 범위가 비무장지대로 결정되었다. DMZ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지도상에 그려진 가장 비극적인 경계 중 하나이다. 경계의 공간은 아직 서로의 시점에서 역사를 나열하고 관람하는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서로의 경계에서 관망하는 것이 아닌 틈을 만들어 남과 북, 인간과 자연 등 나오는 다른 존재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해보고자 한다. 상실과 소멸, 망각과 안정을 위한 수행과 같은 체험은 이념의 충돌이 빚어낸 분단의 장소를 평화를 향한 산책로로써 작용시킬 것이다.

위치 한반도 DMZ 일대(파주 - 개성 보행로)
길이 12.24km





Scene1 '유동성'
Bridge 1.15km

한강, 임진강, 사천강이 조강으로 합쳐지는 합지점이자 감소하천으로써 물의 위치와 나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 물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느낀다.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경험을 위해 이벤트를 미리 보기 힘든 아치형으로 계획



물의 수위변화



간조기, 만조기 다리의 변화



Scene2 '잃어버린 것'
Exhibition Memorial

70여년 전 많은 것을 잃었고 아팠으며 지금까지도 상실의 땅 DMZ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제안 개인의 상실감을 치유하는 곳이자 현 시대를 살아가는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의 장소가 될것이다.



구릉지의 등고에 맞춘 순환동선



분단의 기억과 추모



DMZ내부를 돌아다니며 기억활동



Scene3 '한걸음 떨어져서'
The air way 3.1km

남북 분단의 상황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보이드가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않은 공간이 되었다. 지리 위험지역이었던 공간을 DMZ내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 보행로를 통해서 이동한다. 기존 초소를 이용하여 보행자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수림과 발산의 공간경험



평지인 지형에서 자연으로부터 이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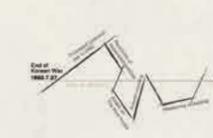


GP의 초소를 편의시설로 이용



Scene4 '자연 보호소'
Display, Animal Lab 17,184㎡

기존의 38선을 따라 위아래로 걸어가는 보행동선에서 북쪽 GP의 철책선을 이용해 좌우로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하게 한다. 멸종 위기 동물의 보호와 이에 관한 전시 전망등을 통해 이해한다.



남북 관계의 변화



돌아가는 보행 동선 계획



지형에 맞게 높낮이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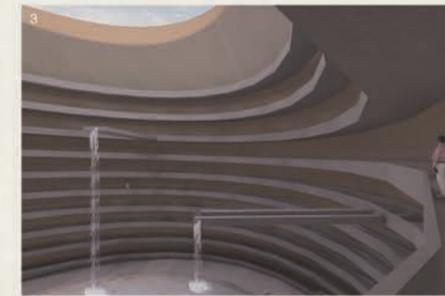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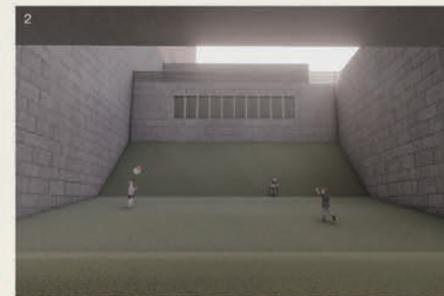


Scene5 '치유의 공간'
Meditation Media R.
Conference Display 103,400㎡

Site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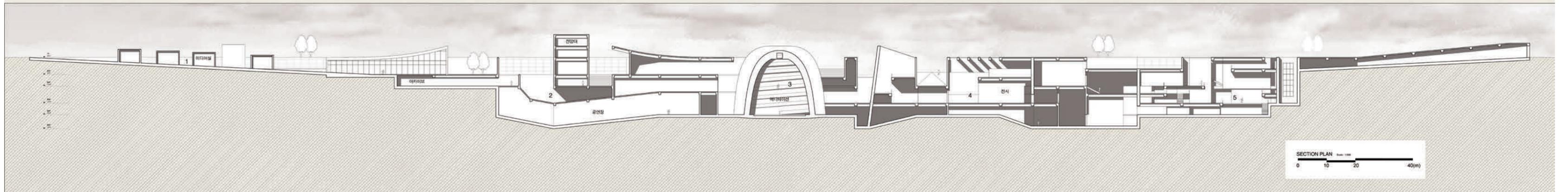


DMZ내부의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과 기정동 두 공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연결을 계획



휴전선은 얇은 피상선이 아니라 두꺼운 상황이다. 남북 간 긴장과 휴식이라는 양가적 감정의 축적으로 굳어졌다.

나선형 경사로를 걸으며 이러한 응고 과정을 재현, 병합 및 발산의 경험, 고요한 공간 속 물이 떨어지는 청각 경험을 교차하며 이러한 모든 경험이 수공간으로 인해 액화되어 치유되도록 한다.



SECTION PLAN Scale 1:1000
0 10 20 40(m)

SPREAD GATE

문래동, 도림천과 지하철을 이용한 재생 방안



서홍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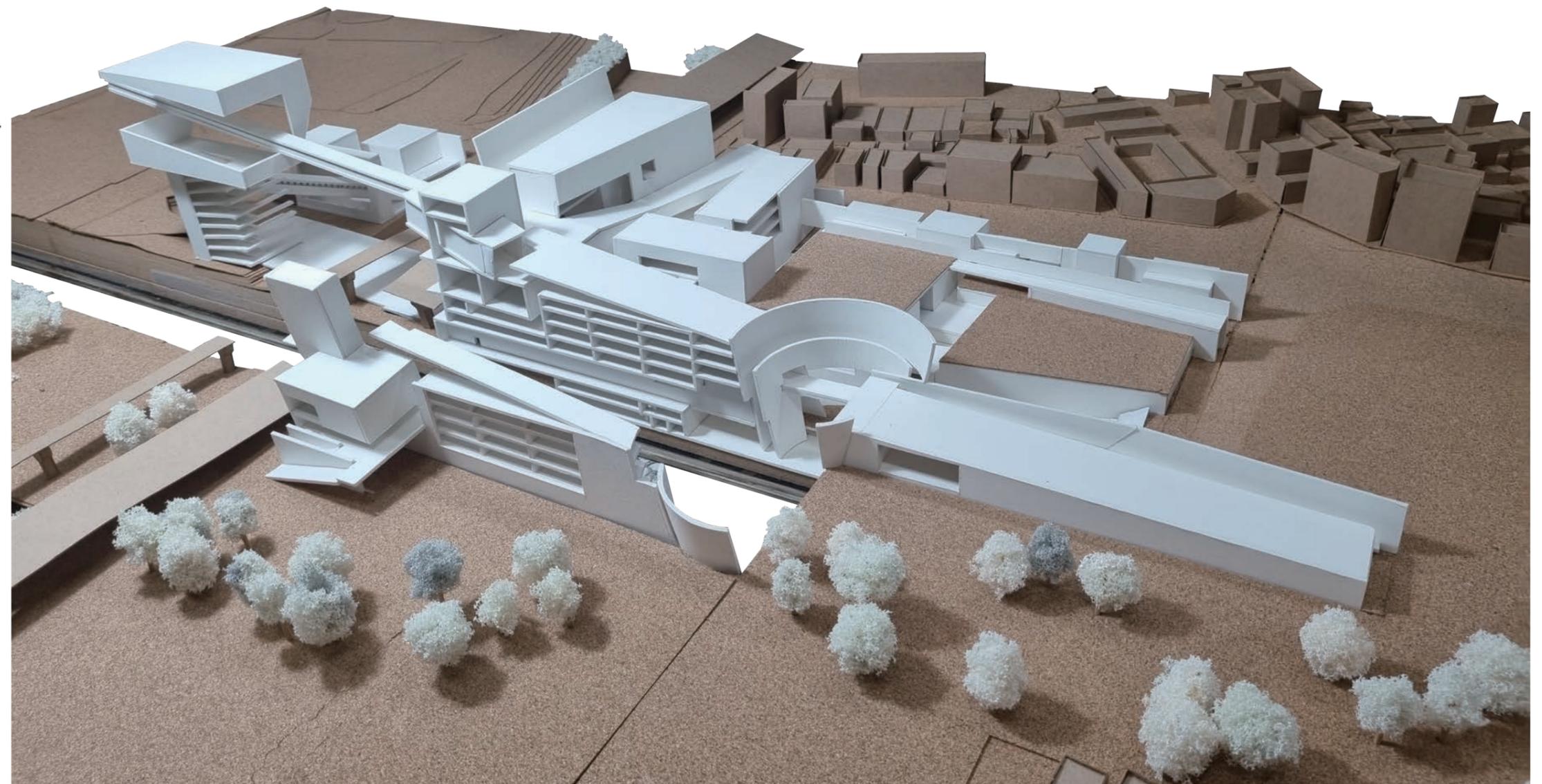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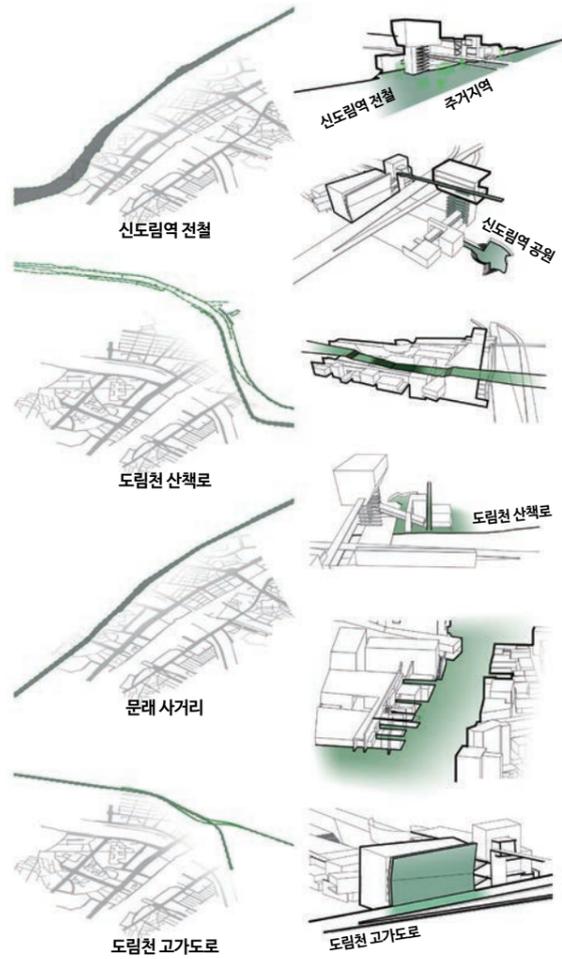
전철의 철로는 도시와 도시를 잇는 땅 위의 하나의 선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여기에 도시와 도시를 가르는 하나의 선으로 작용하는 철로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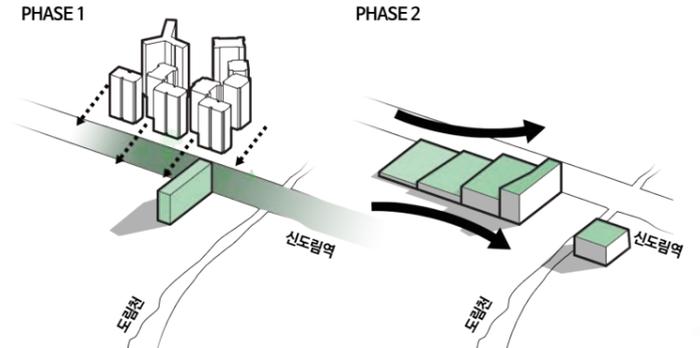
신도림역을 끼고 흐르는 도림천과 신도림역에서 뿔어 나오는 지상철은 도시 사이에서 단절을 만들어 냈고 도시 사이에 죽은 공간을 만들어 냈다. 신도림은 철로와 강을 낀 하나의 섬이 되었다.

SPREAD GATE는 이 높은 밀도를 받아 주위로 퍼뜨려 줌과 동시에 주위 도시들과의 연결을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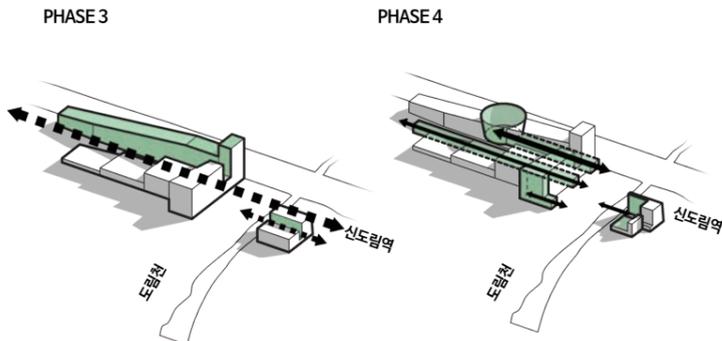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1,2,3가 일대
면적 72801.6㎡
규모 지상 10층, 지하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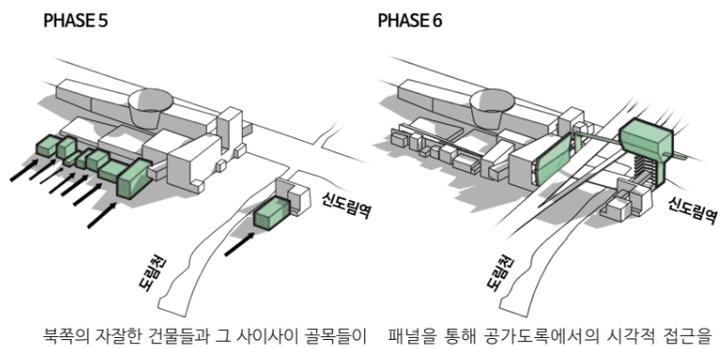
지상철인 경부선을 지하로 내려준다. 기존의 신도림역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을 리니어하게 확장시키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게이트 개념의 메스를 계획한다.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층의 레이어를 받아들 수 있고 새로운 공원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층의 커다란 데크를 계획한다.



신도림역과 도림천 산책로 그리고 문래동 1,2가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리니어한 동선을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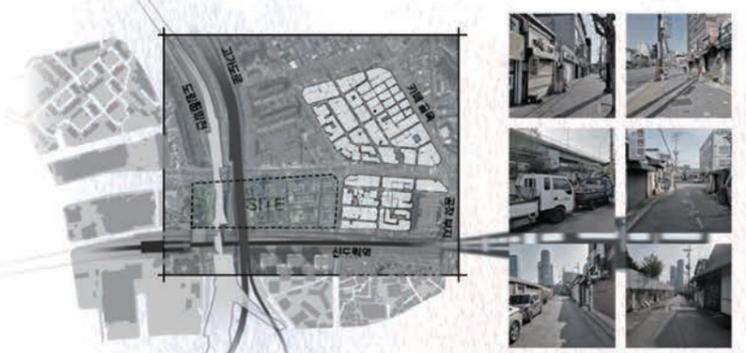
신도림 산책로에서 문래 1,2가까지 완전히 관통하거나 건물 내부로 관입되는 동선을 계획한다.



북쪽의 자갈한 건물들과 그 사이사이 골목들이 있는 카페골목의 컨텍스트를 그대로 받아드리기 위해서 건물들을 분할하고 그 사이사이 진출입을 계획한다.

패널을 통해 공가도록에서의 시각적 접근을 최대화 시키고 모든 레이어를 수직 관통하는 전망대를 계획한다.

사이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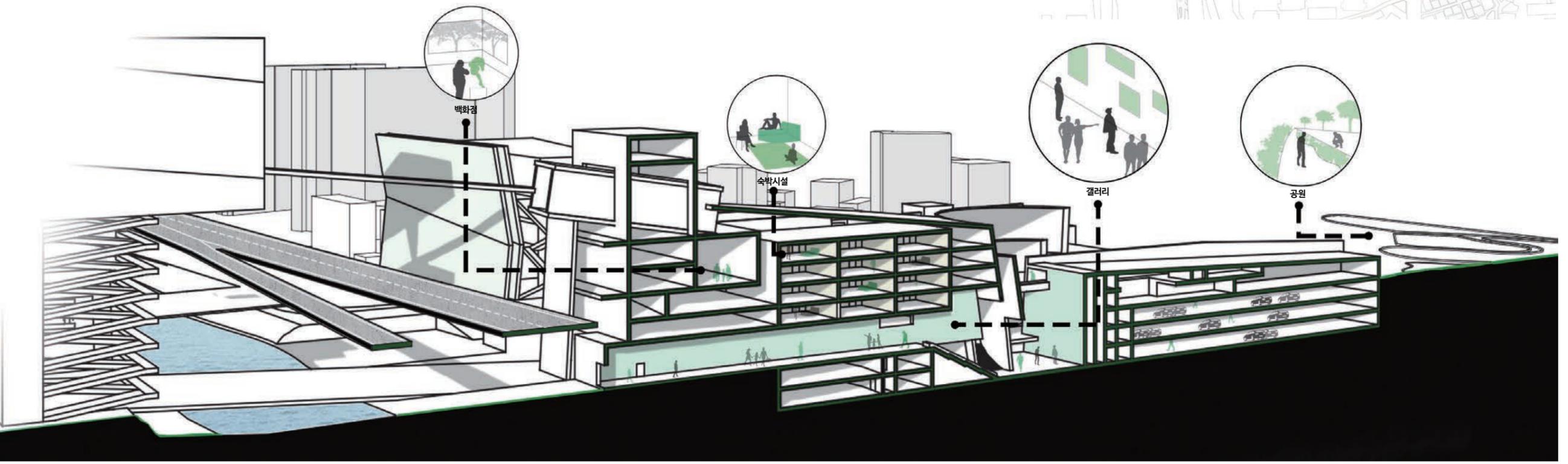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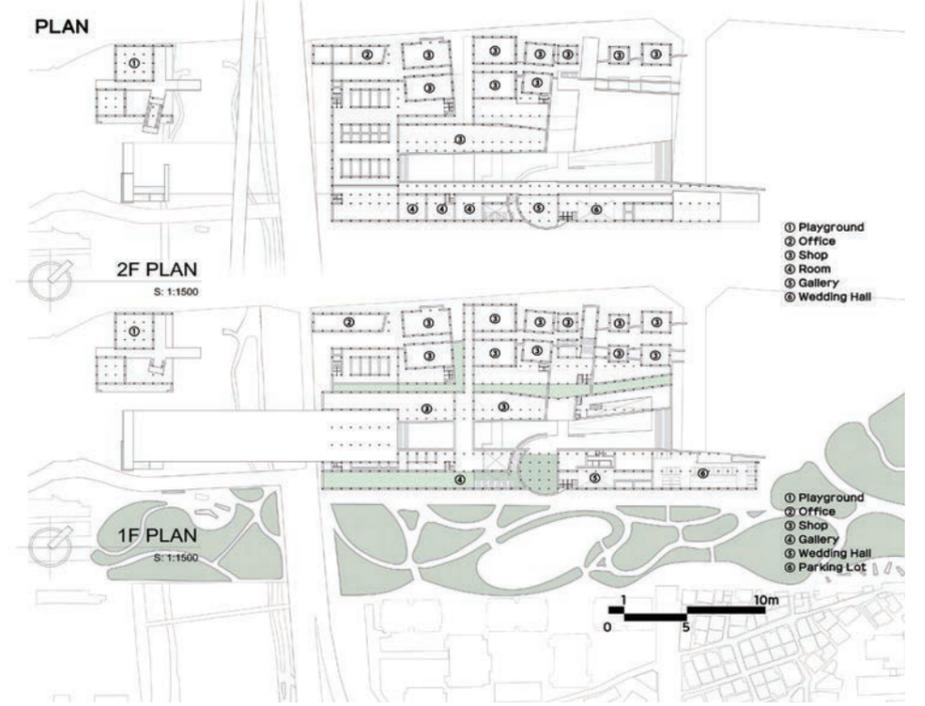


문래동은 과거 철재공장으로 명성을 얻었던 곳이다. 하지만 그 성격을 잃으면서 복잡하고 지저분한 느낌이 나는 으스스한 골목이 많은 곳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후 후 이런 철재공장 부지에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문래 창작촌과 같은 예술의 성격을 띤 영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근처로 많은 카페와 식당들 그리고 갤러리 등이 생겨나면서 절강회사들과 카페, 집, 음식점이 섞여있는 이색적인 느낌의 카페 골목이 자리잡고 있다.



주변과의 단절
문래동 1,2가는 여전히 폐공장이 즐비해 있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사이트이다. 그 이유는 지상철이라는 경부선의 특성과 서쪽에 흐르는 도림천이 신도림역과 문래동 1,2가의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다양한 레이어
문래동 1,2가는 신도림 복합 상권을 지나는 문래 사거리와 환승의 메타인 신도림역, 보라매 고가도로 중간까지 이어지는 도림천 고가도로와 도림천을 따라 있는 도림천 산책로까지 주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이다.



A Market Garden for New Tribalism

왕십리 경성궐도 부지의 기억을 통한 신(新)교환공동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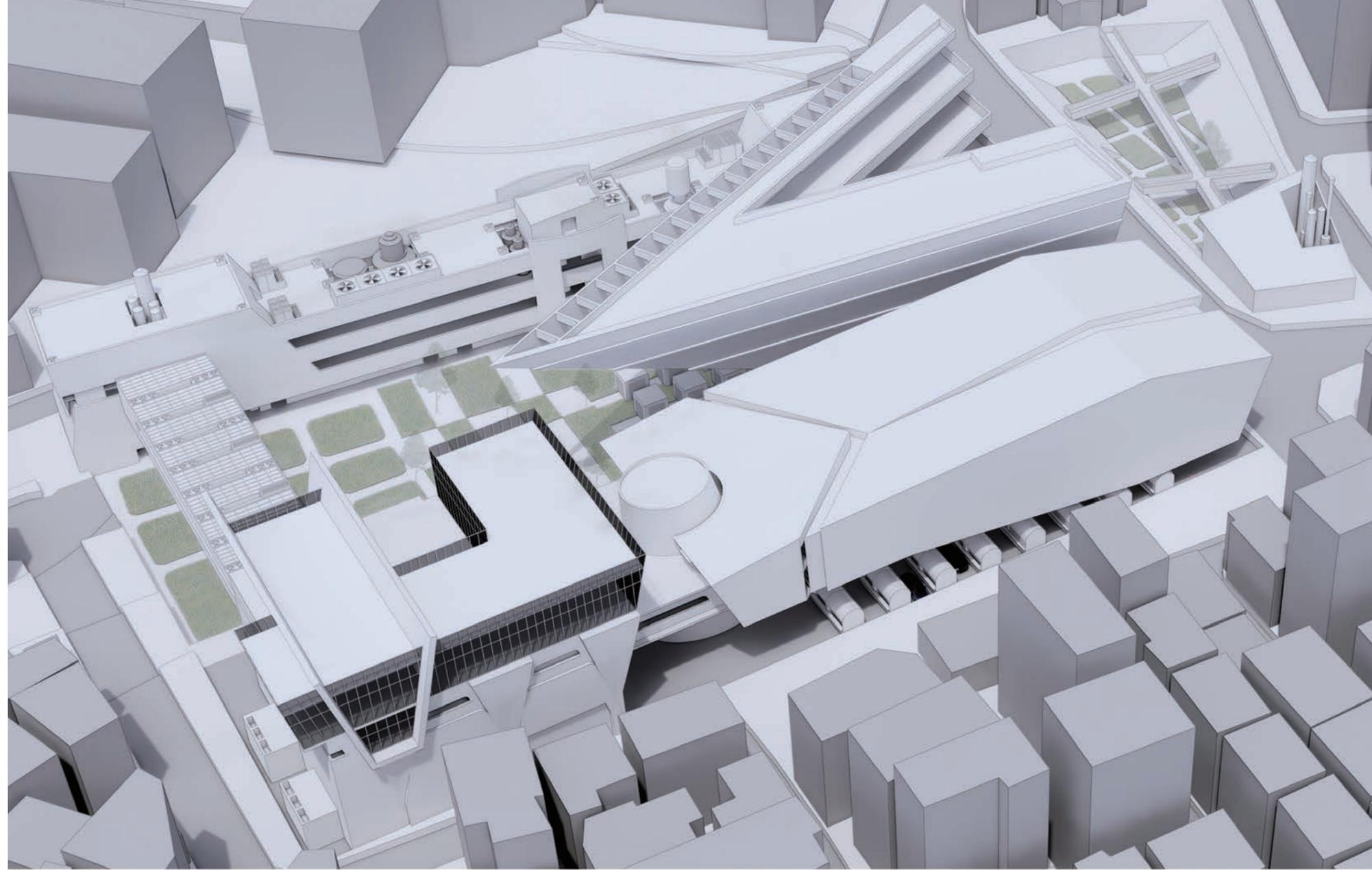


유동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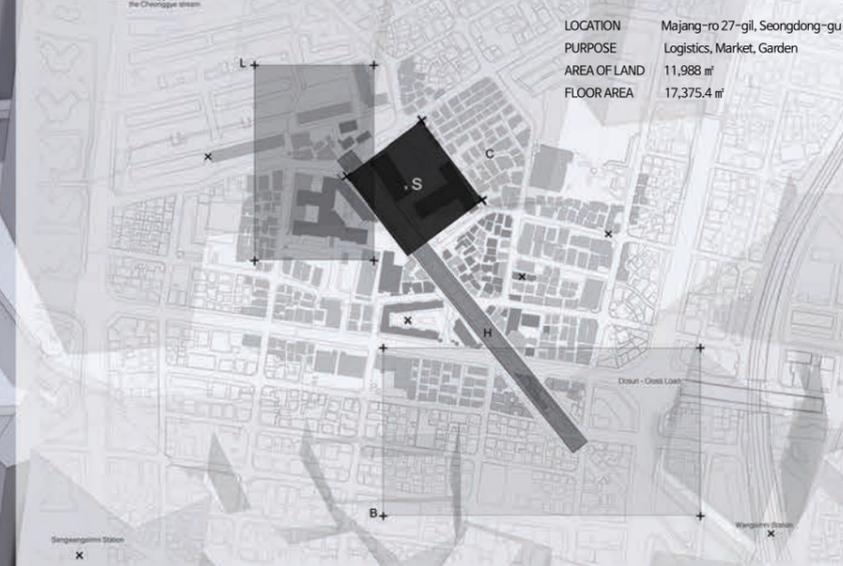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팬데믹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 시스템에 주목한다. 특히 도시 형성의 코어였던 시장 공간이 보이지 않는 매매행위(주문-배송)로 대체되는 현상을 뉴노멀 사회로의 전환점으로 보고, 스마트폰과 물류 시스템의 발전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문화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대상지인 왕십리 한국전력공사 광진성동지사 일대에는 과거 경성궐도차(=기동차)가 지나간 흔적이 도시 그리드에 나타난다. 과거 기동차는 서울 중심지와 왕십리간의 물물교환을 위한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사람들의 이동수단이었다. 이러한 물물교환의 역사와 의미가 담긴 경성궐도길을 현대적 물류시스템에 대응한 공간으로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27길 13 일대
면적 11,988 m²
규모 지상 6층, 지하 1층



SITE



LOCATION Majang-ro 27-gil, Seongdong-gu
PURPOSE Logistics, Market, Garden
AREA OF LAND 11,988 m²
FLOOR AREA 17,375.4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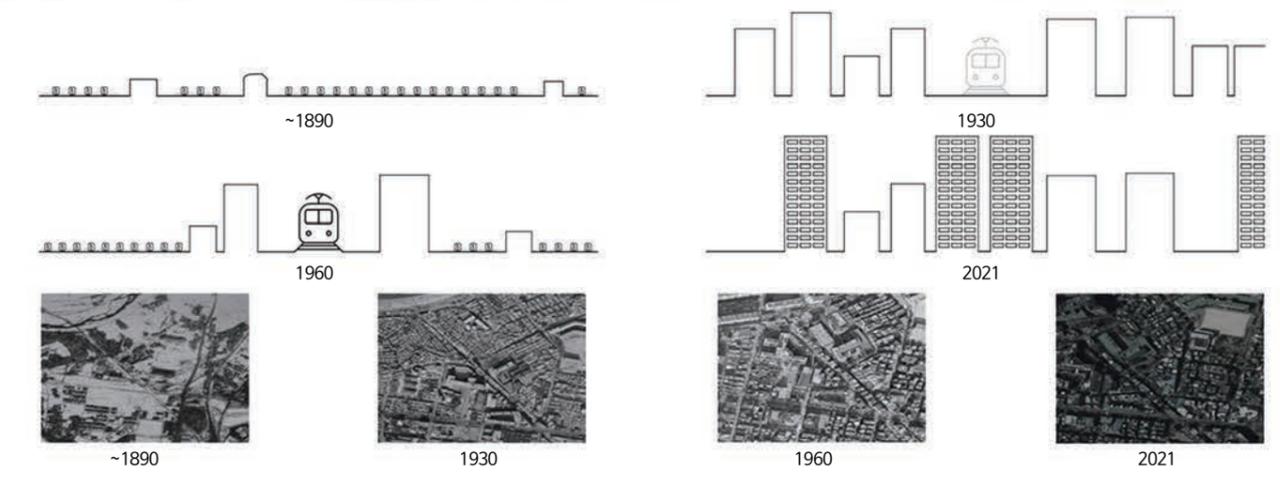


PRO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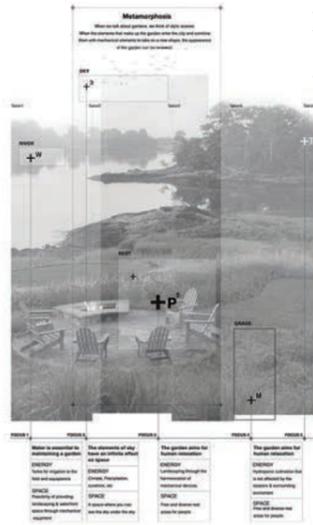
- 1)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순한 시간 프레임으로부터 '새로운 과거'를 재구축하는 문화적 과정으로서의 상상력을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가
- 2) 지역의 콘텍스트를 중심으로 '포스트'와 현재의 충돌을 완충시키며, 신부족주의의 개념을 뉴노멀의 패러다임으로 엮을 수 있는 문화 장소를 만들 수 있는가
- 3) 급격한 도시 개발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웃과의 소통과 교환을 성취하는 상상력이 결합되는 문화플랫폼으로서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가
- 4)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진입한 도시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시장을 초월하며, 상호 의존하는 협력적 공유의 사회적 공간을 재현할 수 있는가



AD	1930	→	2022	
ROUTE				
FUEL	Disel Engien	Electricity	Electricity	-
PURPOSE	Leisure / Traffic	Electricity	Electricity	-
ISSUE	-	Electricity	Electricity	-
Role in the City	Farm	Farm	A Cottage Industry	Traffic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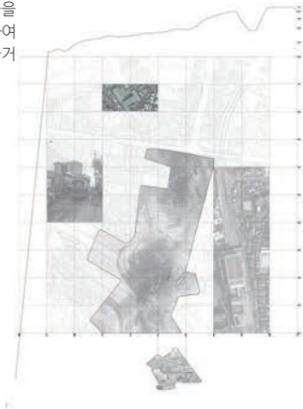


Design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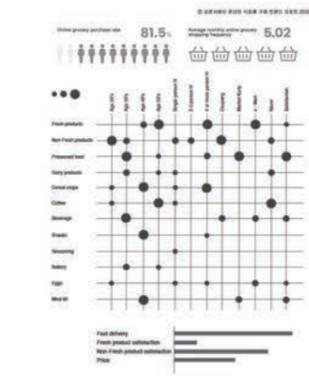


과거 왕십리가 보여주는 논밭의 정원적 요소들을 물류 및 수경재배 시설을 위한 기계장치로 변환하여 기계-자연의 결합을 통한 이색적인 조망과 과거 왕십리의 풍경을 재현하고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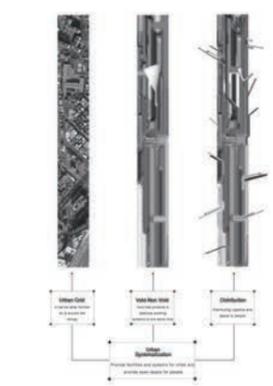
Derived Concept



현재 왕십리역은 Gtx-c선의 개통으로 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이 진행중이며 좁은 대지면적에 오피스텔이 들어서며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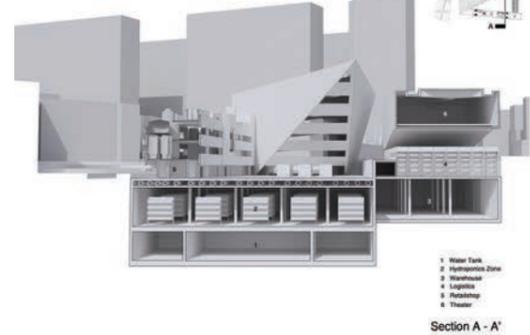


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팬데믹 이후 활발해진 물류의 이용량도 증가할 것이다. 현재의 물류시스템은 빠른 배송과 간편한 주문이라는 장점을 지니지만 여전히 신선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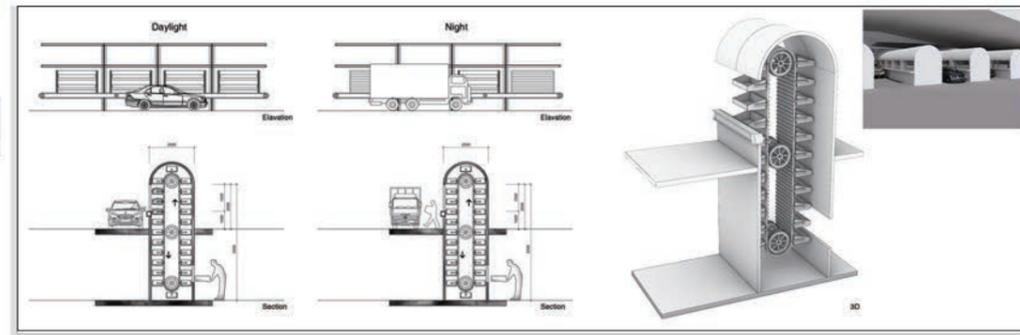


최근 물류창고들은 도시 내로 들어오며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배송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대지 내에서 제품을 생산-가공-배송을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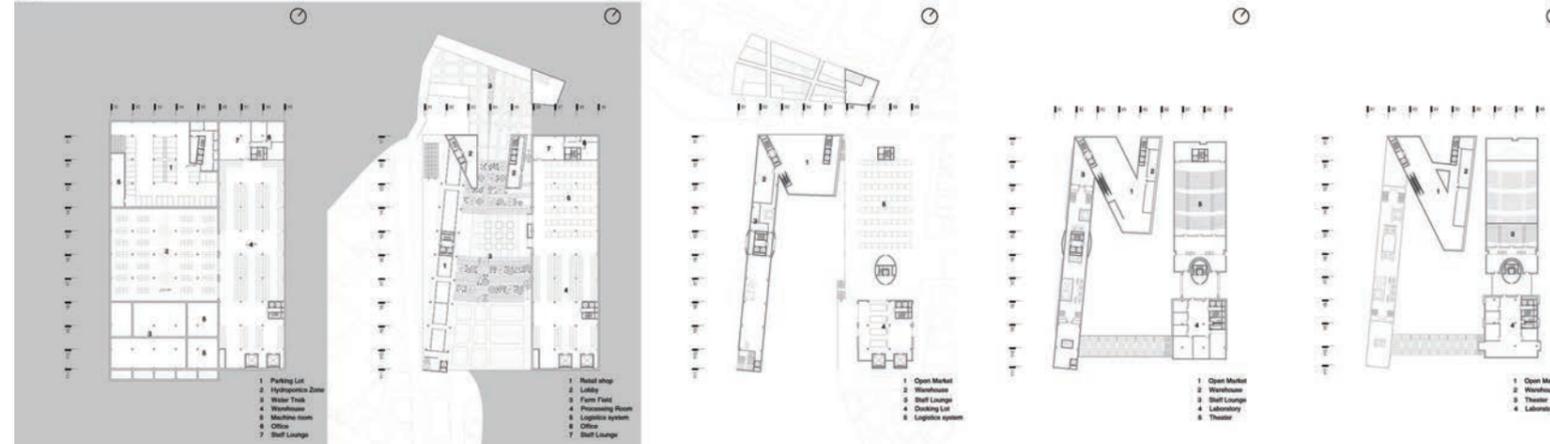
Section



Proposed New Logistics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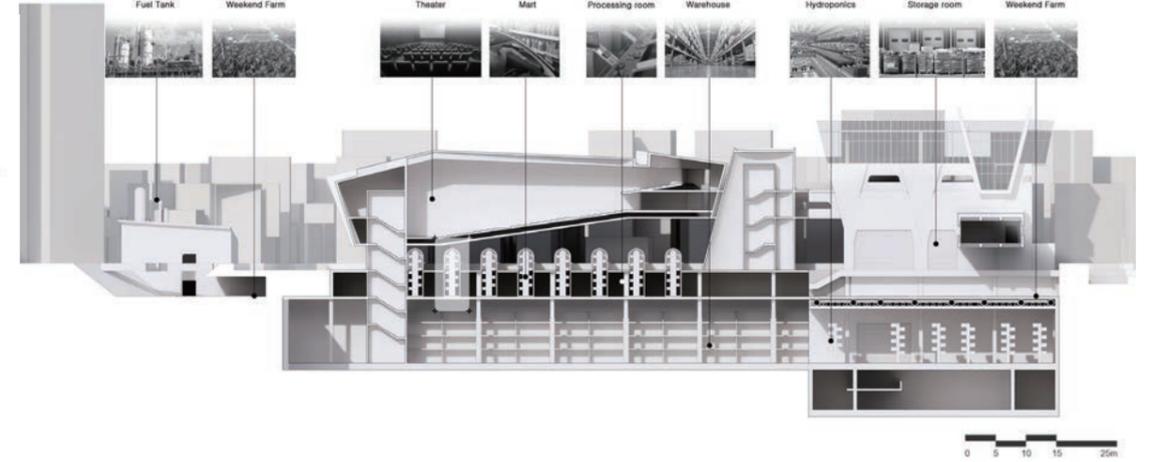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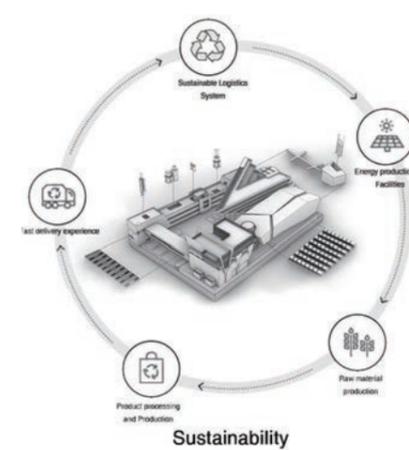


Plans



Program Strategy

과거 왕십리 기동차를 통한 물물교환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건물 내의 물류 및 수경재배를 위한 에너지 생산부터 작물의 생산부터 배송까지 교환되게끔 하였으며, 도시 내 혐오시설이었던 물류창고가 사람들에게 열린공간으로 되게끔 주말농장과 극장 등을 넣어주었다.



Figured Ground

도시 경계의 장소성 형성을 위한 디자인 제안



유백림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 인근의 대상지는 성벽에 의해 형성된 과거의 도시 경계부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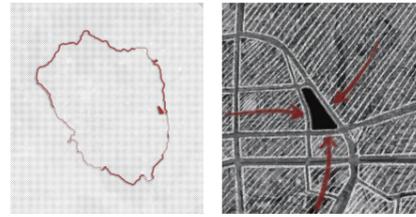
그러나 근대 이후 산업화에 의한 급격한 발전과 도시인구의 증가, 그에 따른 도시 영역의 확장은 성벽에 의해 단편적으로 형성되던 경계를 흐리고 개발을 가속시켰다. 이러한 도시 개발은 여러 종류의 도시적 요소들을 만들어냈고, 다양한 맥락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새로운 도시적 경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들은 난개발에 의해 연속적으로 구성되지 못한 채 연결이 끊겼고, 대상지는 좋은 입지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장소성을 잃은 채 그저 동대문 앞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장소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요소와 자연의 흐름, 시민들의 일상적 공간의 충돌에 주목한다. 대지를 연장한 판은 벽과 바닥, 지붕으로 변형되어 여러 도시적 요소 간의 충돌을 중재하는 건축적 공간으로 재구성된다. 형성된 볼륨 사이로 도시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공공 공간을 유입해 도시 경계를 사람들의 행위와 기억으로 채워 대상지에 새로운 장소성을 형성하고자 한다.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571일대
면적 27,359.4㎡
규모 지상 10층, 지하 1층



PROLOGUE



과거 도시의 경계였던 이곳은 시간이 지나며 다양한 맥락이 충돌하며 새로운 도시의 경계가 형성되었지만, 강력한 도시적 요소들 사이에서 연속적 구성을 이루지 못하고, 명확한 정체성 없이 동태론 앞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형상과 자연의 흐름, 시민들의 일상적 공간의 충돌에 주목한다. 대지의 흐름은 벽과 바닥, 지붕이 되면서 크고 작은 공공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공간화된 대지를 통해 자연의 흐름과 역사 유적, 도시 속 삶의 공간들을 연결하며 새로운 장소성을 형성하고자 한다.

DESIGN CONCEPT



1. 부유하는 장소성

다양한 맥락들이 충돌하는 도시 경계에 위치한 사이트는 주변의 맥락을 수용하지 못한 채 장소성 없이 부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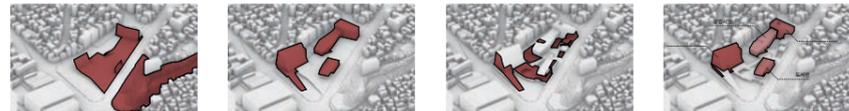
2. Figured Ground

자연 지형의 흐름이 사이트 내부로 들어와 건축적 공간을 형성한다. 볼륨은 주변과 연계되면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3. 공공 공간의 유입

도시 경계에 형성된 공적 장소는 충돌하는 맥락들을 중화시키고, 행위와 이벤트로 채워지며 장소성을 형성하게 된다.

DESIGN STRATEGY



1. 대지의 흐름 연장

자연 지형의 흐름에서 유추된 판이 대상지 내부로 삽입된다.

2. 판의 변형

판의 변형을 통해 벽, 바닥, 지붕 등의 건축적 형태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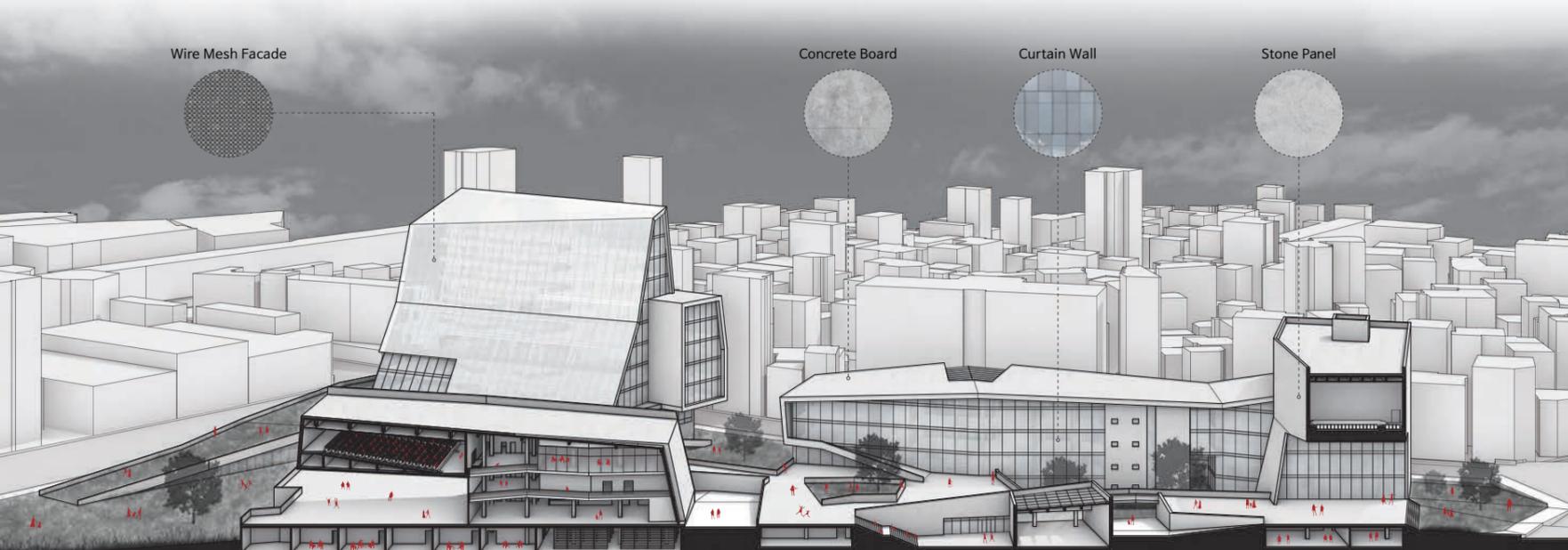
3. 도시의 흐름 유입

도시의 흐름을 수용하는 다양한 공공공간이 유입된다.

4. 프로그램 설정

주변 맥락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정한다.

SECTION PERSPECTIVE



SITE POTENT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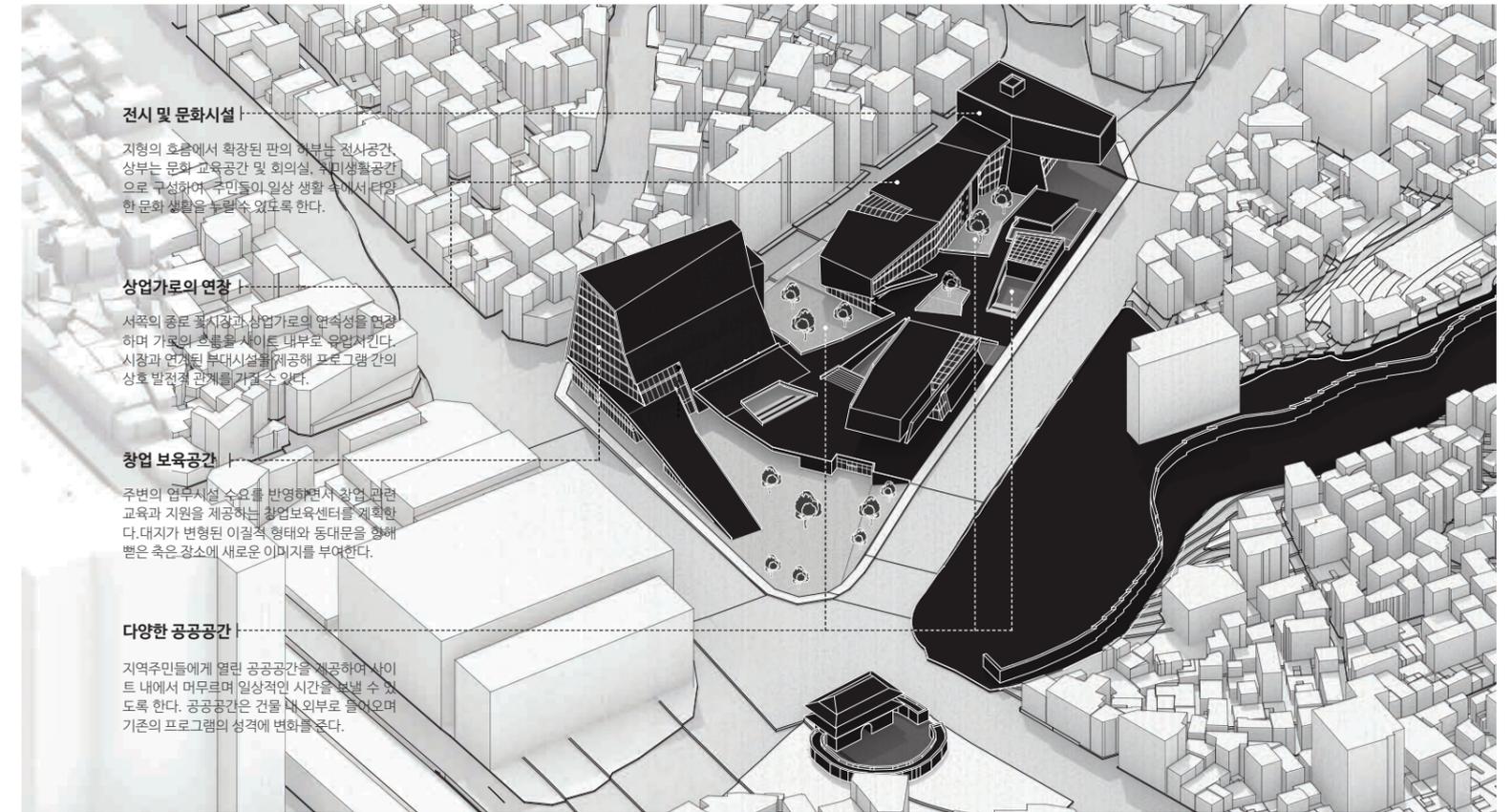
F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종로 꽃시장과 상업시설이 하나의 상업가로 형성하고 있다.



P 지형적 흐름이 도시조직과 충돌하고, 조성된 공원은 머무르기 보다는 보행의 성격이 강하다.



D 도로 사이에 섬처럼 남아있는 동대문은 역사적 형상의 모습을 띄고 있다.



전시 및 문화시설

지형의 흐름에서 확장된 판의 일부는 전시공간, 상부는 문화 교육공간 및 회의실, 커뮤니티공간으로 구성되어 주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상업가로의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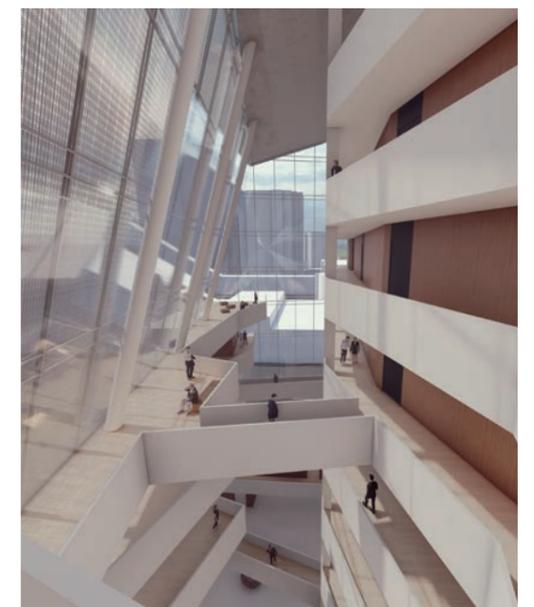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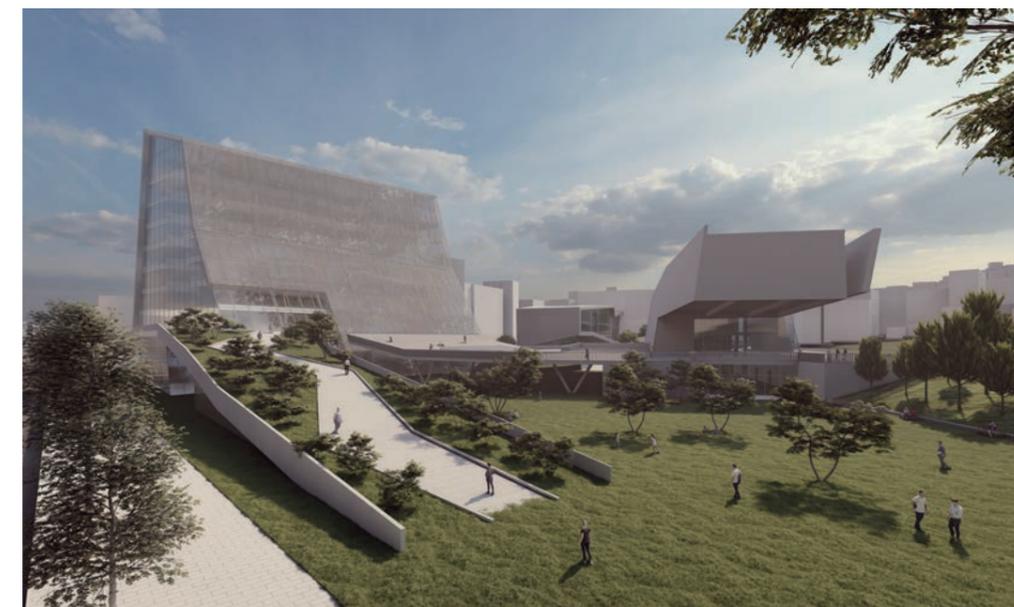
서쪽의 종로 꽃시장과 상업가로의 연속성을 연결하며 가로의 흐름을 사이트 내부로 유입시킨다. 시장과 연계된 부대시설을 제공해 프로그램 간의 상호발전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창업 보육공간

주변의 업무시설 수요를 반영하면서 창업, 관련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를 계획한다. 대지가 변형된 이질적 형태와 동대문을 향해 뻗은 축은 장소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한다.

다양한 공공공간

지역주민들에게 열린 공공공간을 제공하여 사이트 내에서 머무르며 일상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공공공간은 건물 외부로 돌출되어 기존 프로그램의 성격에 변화를 준다.



Gathering Ground

독심역 복합문화 공동주택



유재형

본 프로젝트는 '지하철 2호선 지상고가구간 지화화 사업'에 대하여, 경제적·사회적 비용의 합리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적 정치공약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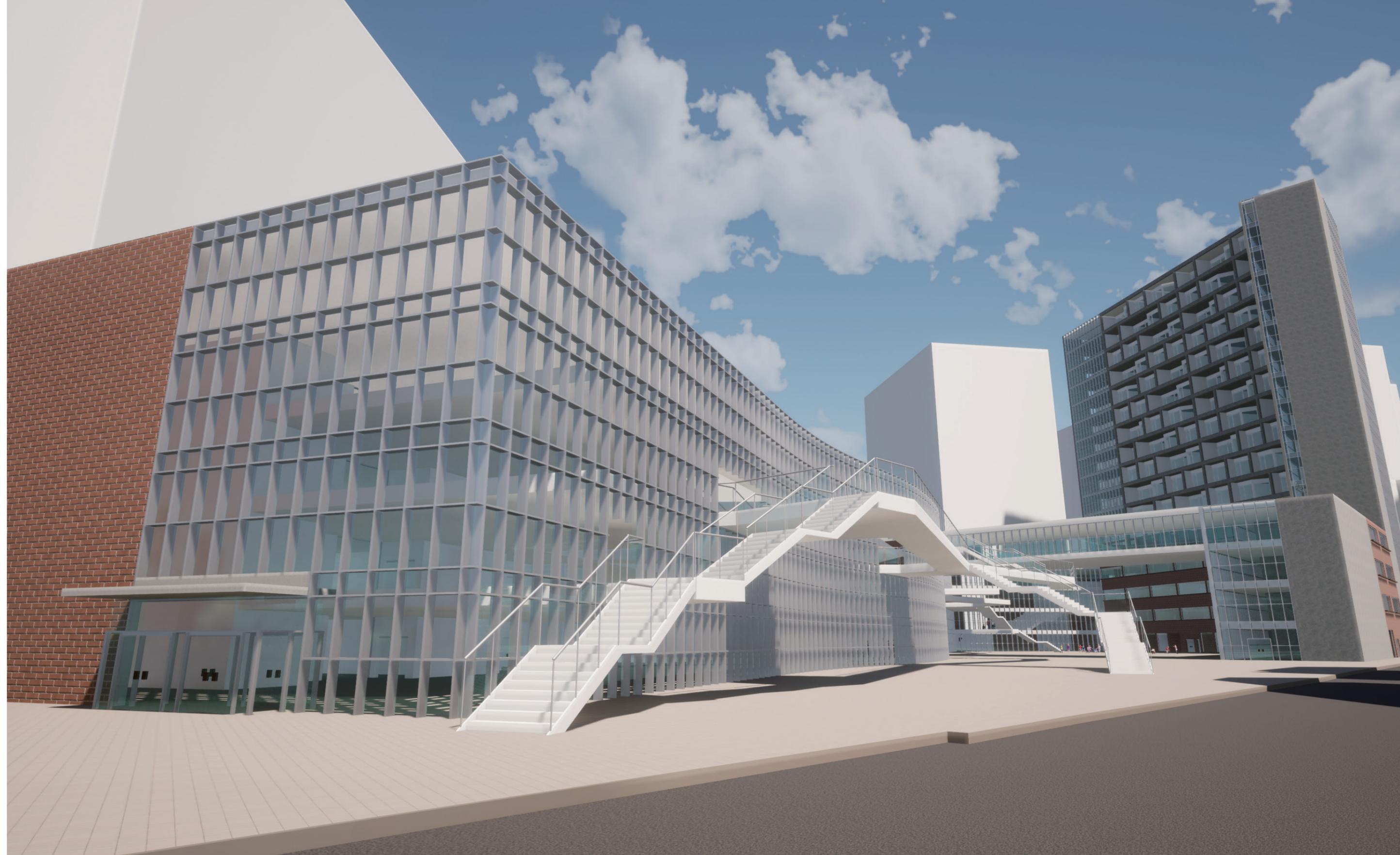
지난 몇 년간 성수동은 오래된 기존 건물에 새로운 것을 더하여, 칙칙한 공업지대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예술적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는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자칫 그동안 만들어온 성수동만의 특색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무조건적인 인프라 개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고가 교량과 같은 인프라의 입체구조물이 주변 지역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어 지역사회의 기반 시설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건축적 방법을 모색하고, 기존의 지하철 역사(驛舍)에 담긴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지양하며, 주변 장소성을 반영하는 디자인을 제안함으로써 도시의 올바른 개발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 일대

면적 11,297㎡

규모 지상 17층, 지하 3층





New Normal of Infrastructure

도시 내 홍물로 전락하고 있는 2호선 지상고가구간은 무계획적인 개발로 인해 주변의 컨텍스트로부터 심리적, 물리적으로 소외된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시대착오적 개발방식에 대한 비판에서 '뉴 노멀'의 사유를 시작한다.

그 중에서도 독섬역은 현재 성수동의 상반된 성격을 보이는 두 구역 사이에서 중간적 성격으로 인구유입과 만남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장소로서의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과의 교류나 보행 동선의 연결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독섬역을 비롯한 2호선 지상고가구간이 도시와 분리된 별도의 레이어로 인식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을 선정하였다.



Site Analysis

성수동은 과거 서울의 대표적인 공업 지역이었으나, 경제적인 배경으로 인해 공장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면서, 강남과의 연결이 용이하다는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빈 공장이나 창고건물의 대공간을 중심으로 기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분을 유지하는 방향의 증가축이 이루어짐에 따라 예술적 색채를 덧입힌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하여 공업, 상업, 문화, 예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혼합된 도시의 모습이 형성되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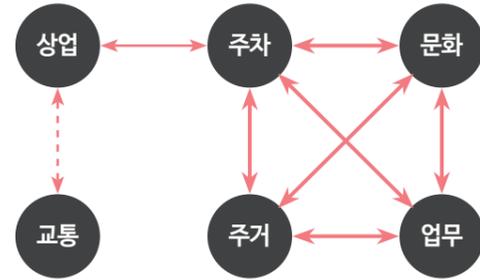
이러한 컨텍스트는 현재 서울숲과 카페 '블루보틀', 아크로서울 프레스트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비교적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한 상업시설의 분포가 주를 이루고 비교적 조용하고 정적인 '서울숲 구역'과 성수역과 연무장길, 성수이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옛 공장을 활용한 공간과 소상공인과 예술공간의 분포가 많고 성수동 카페거리, 성수동 수제화거리 등과 같은 활발한 분위기가 강한 '연무장로 구역'으로 분화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프로젝트의 대상지는 서울숲 구역과 연무장로 구역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곳으로, 독섬역 5, 6번 출구와 맞닿아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2호선 고가 아래를 지나 아차산로와 성수일로에서의 진입이 편리해 자동차를 통한 접근성도 좋다. 또한 서울숲구역과 연무장로구역에서 연결되는 골목길을 통해 형성되는 보행자동선이 모이는 지점에 있어 성격이 다른 두 구역을 아울러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Program Strategy

본 프로젝트는 건축공간과 지역사회가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주거, 상업, 문화, 업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약시킬 수 있는 복합용도건축물로 기획되었다. 이 디자인에서 각각의 용도공간은 서로 관계를 맺음에 있어, 외부 공간에서부터 진입하여 이용자의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의 연결과 다양한 동선발생을 통해 입체적이면서 산책할 수 있는 공간조직의 계획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대상지 남단에 길이 모이는 지점과 독섬역을 연결하기 위해 건물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된 입체보행동선을 조성하고 그 중간에는 각각의 별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길림길과 같은 동선을 조성한다. 또한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는 마치 성수동의 골목길을 걷는 것과 같이 줄지어진 작은 상업공간을 따라 걷는 경험을 하는 한 편, 주보행동선과 여기서 비롯된 부보행동선으로 둘러싸인 곳은 오픈스페이스를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이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는 이 공간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Design Concept

골목길의 수직적 확장과 공간의 입체적 경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성수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보행동선과 용도공간의 배치의 이미지를 3차원적으로 재해석하여 지역의 커뮤니티와 컨텍스트에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디자인하고, 이를 다양한 레벨과 관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입체적 골목길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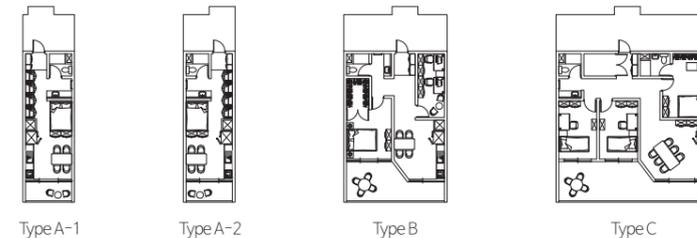
- 1. 인프라와 연결되는 주 흐름동선
- 2. 공간의 입체적 체험을 위한 동선
- 3. 도시흐름과 연결되는 오픈스페이스
- 4. 경계의 모호화와 동선의 연결



Unit Module Design

주거시설은 프라이버시의 확보가 중요시되므로 외부인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주 보행동선 및 오픈스페이스와 수직적으로 분리하여 배치한다. 코어를 지나 각각의 주거유닛으로 접근하는 복도는 2호선 지상고가구간이 지나는 북쪽으로 배치해 일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과 동시에 소음으로부터의 보호효과를 꾀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저층부에 조성된 일련의 시설들의 이용자 성향 상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구성보다는 1~2인 구성의 청년 1인 가구 혹은 신혼부부가구가 주를 이룰 것임에 따라, 유닛의 크기를 다양하게 고려하되 이는 수직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섞일 수 있도록 배치한다. 각각의 유닛은 외부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베란다를 포함하는데, 특히 비교적 넓은 면적의 타입B, C의 경우 그 폭을 넓게 확보해 보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각 층에 다양하게 배치된 각각의 유닛의 현관문의 정면에는 알파를 배치해 수납력을 확보하고, 창호 대신 벽면을 배치해 유닛에서의 출입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입면상에 랜덤한 패턴을 형성한다.



NOMAD'S CITY

다문화 공간, 기존사회와 교류하는 문화플랫폼으로의 변모



이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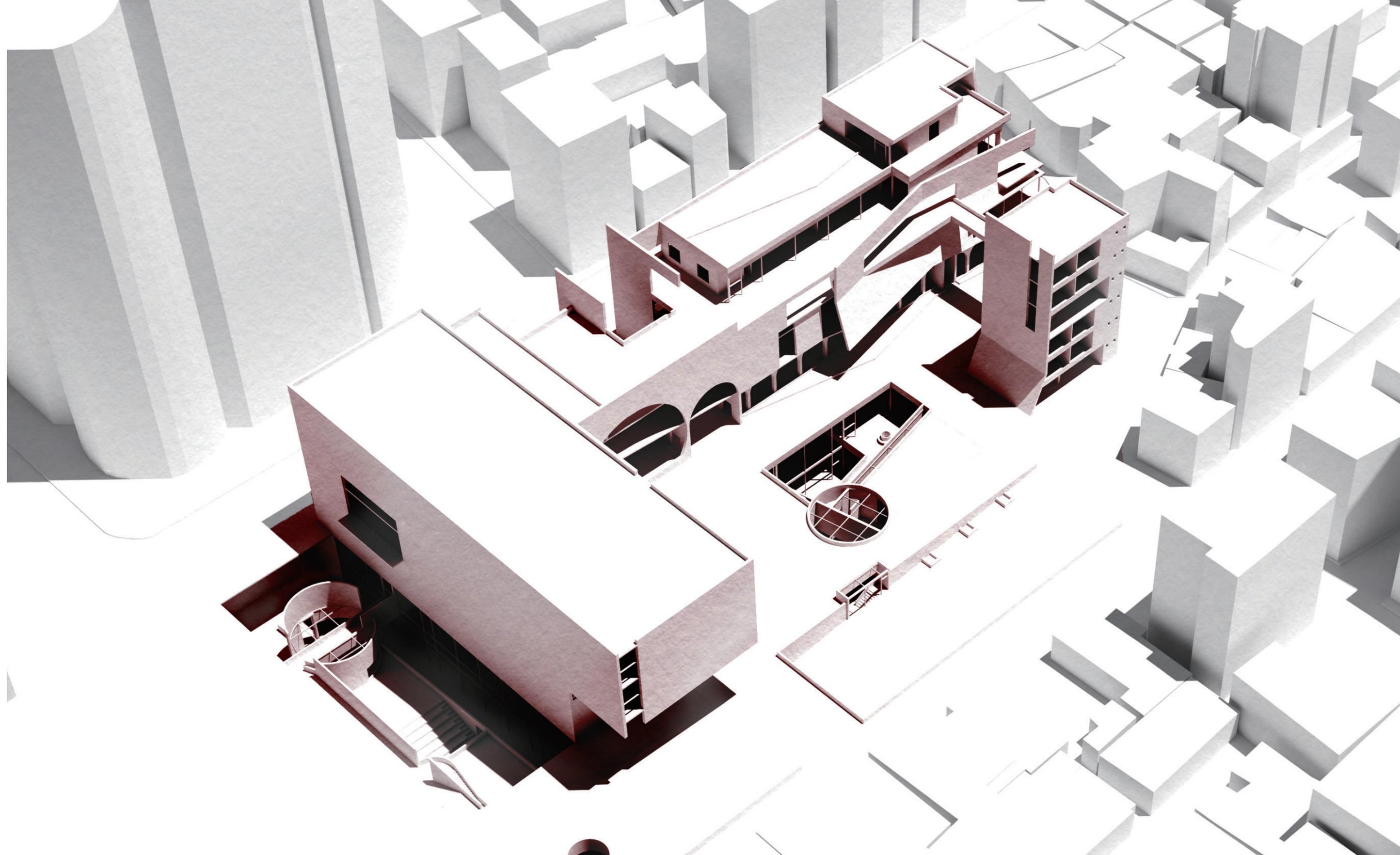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주변에 조성된 '중앙아시아 길'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골에서 온 유목민구가 집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다문화적 성격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로 인해 국가 경계가 폐쇄되고 여행이라는 문화적 행위가 금지되어온 시점에서 300만에 육박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도시 각처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다문화의 접경지대에 주목하고, 여행이라는 문화적 행위가 금지시돼 온 코로나 시절에 대해 다문화적 교류를 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문화공간을 재창출하고자 한 프로젝트이다.

중앙아시아거리는 '사마르칸트'의 이름을 가진 음식점 간판으로도 배회다시피 한 작은길이지만, 사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문화가 집결된 곳이다. 새로운 교환의 현장으로 부각한 이 지역을 현대 서울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부족' 문화가 싹트는 곳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문화를 서울의 정체성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플랫폼, 즉 '육망의 출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1가 120일대

면적 21,472.1㎡

규모 지상 4층, 지하 3층





Site Analysis

대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와 도시 각처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다문화 공간들 중 '중앙아시아 길'로 명명되는 유목문화와 정주문화가 혼합된 중앙아시아권의 문화적 특성을 갖는다. '중앙아시아 길'은 사이트 주변의 러시아 상인들을 위한 호텔, 중앙아시아권 사람들이 운영하는 상점들과 여행객 대상 영업점들이 즐비한 대지 주변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유목민과 현대 서울 도시인의 경계를 형성하며 문화변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Multi - Culture Platform



코로나 이전에는 국가간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와 도시 각처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다문화공간에 주목하여 국내에서 다문화적 교류를 대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재창출 한다. 사이트는 유목문화와 정주문화가 혼합된 중앙아시아권의 문화적 특성을 갖는다. 이를 통해 정주적인 근대도시문화에 유목적 향수를 융합시킨다. 사이트 주변의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유목민'과 현대 도시인의 경계에서 뉴노멀의 문화 패러다임을 삽입한다.

Central Asia Street Formation Process



인쇄와 비닐산업의 지원시설 입지공간 러시아 보부상의 유입과 러시아 거리 중앙아시아권 이주노동자의 유입 중앙아시아거리와 몽골타운 형성

Site Issues



다문화적 교류를 대리할 수 있는 서울의 다문화공간 정주적인 근대도시문화에 유목적 향수를 융합시킨다. '유목민'과 현대 도시인의 경계에서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삽입한다.

Design Strategy



선큰에는 기존 동대문 거리를 흡수하고 상부에는 광장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문화를 반영하는 시설물을 배치한다.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몽골의 병합을 위한 광장 공간을 구별하여 진입과 확장 경계로 제시한다. 호텔, 관광 문화센터, 컨퍼런스 홀을 삽입하여 주변과 연결하고 문화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Design Concept

다문화 지역의 입구로 상정할 수 있는 선큰 가든을 두어 공간적 변환을 시도하고 이를 기점으로 기존 중앙아시아 길의 공간 구조를 변환한 후, 음식점들만 가득한 거리에 중앙아시아와 몽골,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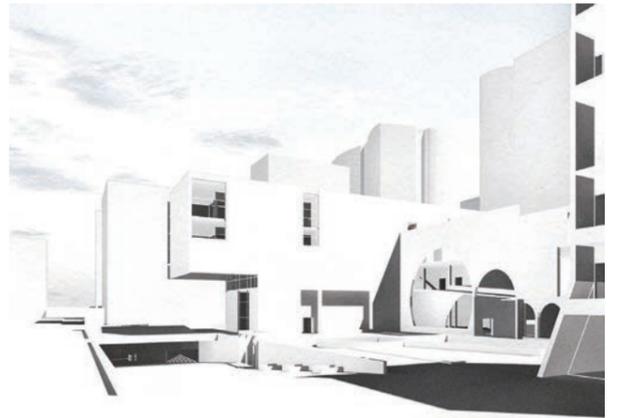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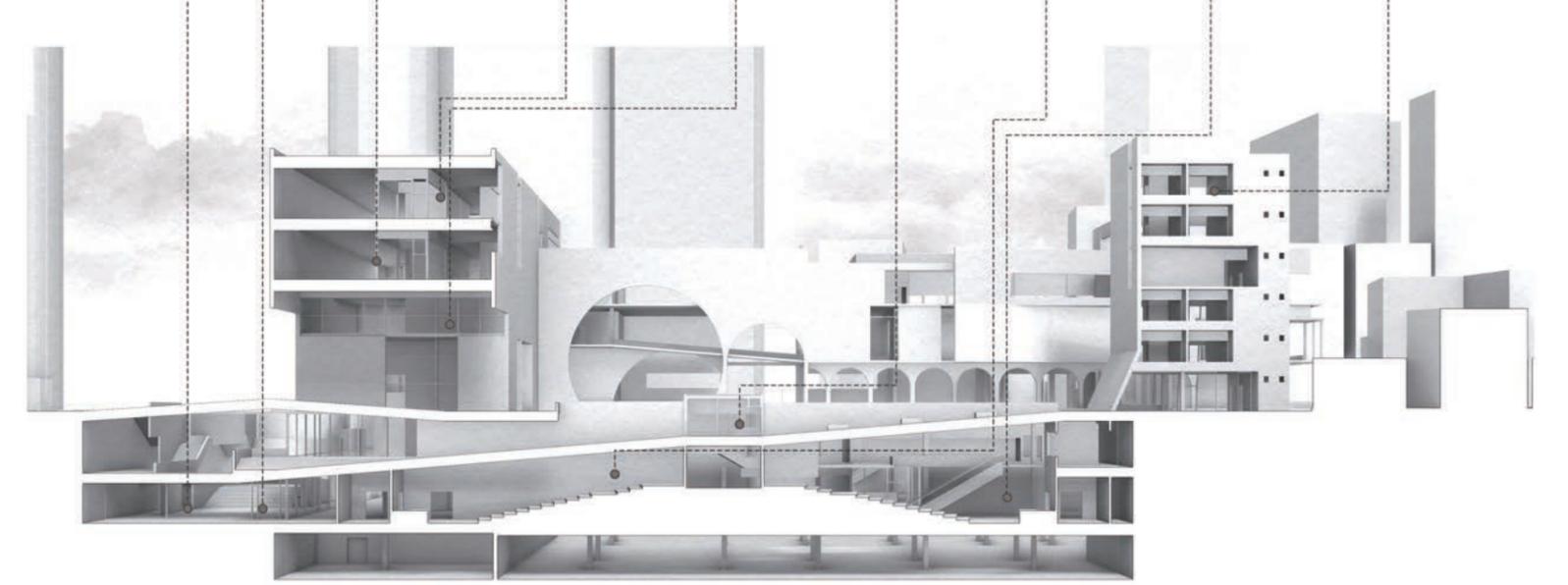
1. 다문화공간의 입구 2. 기존공간의 변형 3. 컨텍스트를 고려한 프로그램 삽입 4. 광장입면컨셉



다문화 지역의 입구로 상정할 수 있는 선큰가든을 배치. 중앙아시아와 몽골, 러시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호텔이 주변컨텍스트를 만나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만든다. 중앙아시아의 종교적, 조형적 시설물을 배치하는 입면컨셉.

Program Strategy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몽골의 병합을 위한 광장 공간을 구별하여 진입과 확장의 경계로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호텔, 관광 문화센터, 컨퍼런스 홀, 공연장을 삽입하여 주변과 연결하고 구역 내에 문화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광장의 레벨 차를 이용하여 선큰에는 기존 동대문 거리를 흡수하고 상부에는 광장을 중심으로 종교시설 등 중앙아시아 문화를 반영하는 시설물을 배치한다.



여행은 공간(장소)과 시간(역사)을 이해하게 해주며 개인의 상상력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행위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저항적 관점에서 국가 간 폐쇄된 경계로 인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됐던 시절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고 동대문시장 지역을 새로운 부족사회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근대 도시문화의 유목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초고층 건물로 탈바꿈한 근대화된 시장 공간에 유목적 향수를 융합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의 단면을 제안한다.

Inter-Rumphere (Underground School)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소통공간



이동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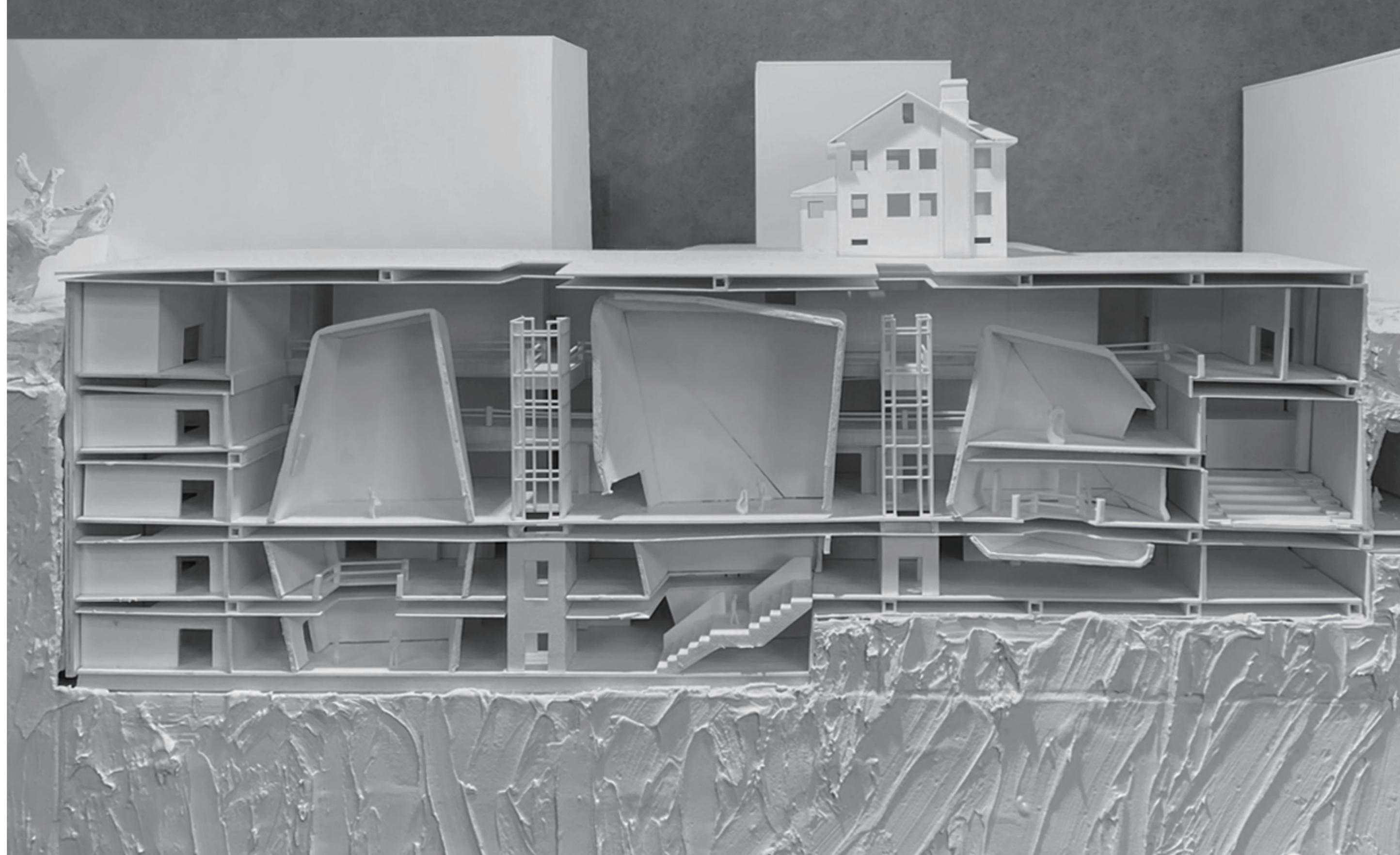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한국에 새 문화를 가져다 주었던 기독교 선교 역사를 재조명하는 프로젝트이다. 과거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던 역동적인 시기에 '뉴노멀'의 출현으로 혼란을 겪던 시민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이 시기 한국을 방문한 선교사들이었다. 연지동 부지 또한 미국 북 장로회의 선교 기지가 자리를 잡고 학교와 선교 기지, 의원 등을 지으며 일반인들에게 복음을 베풀었고,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개신교 선교의 140여년의 역사는 전후 근대화와 도시화에 휩싸여 현대인들의 기억 속에서 보이도록 남겨진 채 있다.

근대 도시 서울의 100주년을 되새김질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만 소화하거나 이데올로기에 빠져 거짓을 진실로 왜곡하려는 그릇된 역사 의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연지동의 구 정신여학교, 선교사 사택 부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근대 도시의 사이에 남겨진 대지를 통해 기억전달자로서의 '도시박물관'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연지동의 장소성을 도시 역사에 참여시켜 과거의 현재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공간을 담은 한편, 근대적인 모습들의 미래로의 연결성을 프로그램으로 제시하여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 1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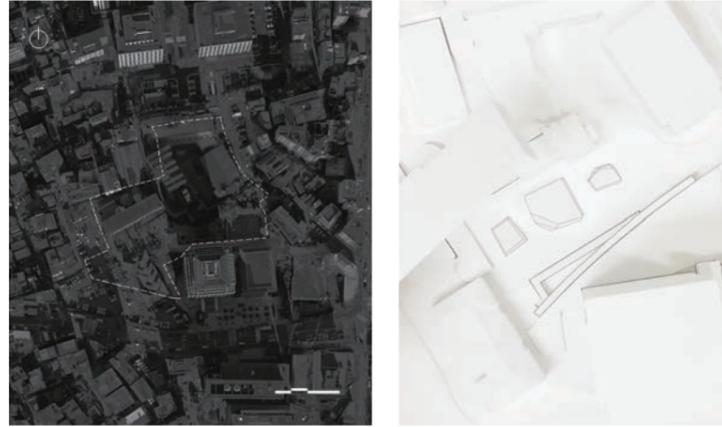
면적 15,380 m²

규모 지상 1층, 지하 4층



Palimpsest(기원이 잊혀진 땅), New Normal 시대의 새로운 기회

과거 새 문화의 꽃을 피웠던 이 땅은 현재 근대화, 도시화의 흔적들에 가려져 현대인들의 기억 속의 보이드로 남아버리게 되었다. 사이트 부지 내 근대화의 흔적들은 과거의 기억을 또한 잊혀져가게끔 만들었고, 지금 정신여학교 부지는 도시화, 근대화 속에 묻혀있는 'Secret Garden'이 되어버렸다. 현대인들 또한 과거 근대화의 합리성에 도취되어 그의 폭력성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따라서 이를 비판하며 과거 새 문화의 언덕이었던 연지동 부지를 현재를 조망하는 거울로 삼아 미래를 재구성하는 개인적인 속고의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을 상상하는 '틈'의 장소를 제공하여 현대인들의 개인적인 역사관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ite Analysis 'Garden in Machine'

1902

2022



북강교회 소유 필지

대학로 연장

김상옥로의 확장

건축 행위로 가려진 대지

연지동의 새 문화의 언덕으로서의 역할은 점점 퇴보하기 시작했다. 도로의 건설, 확장, 옹벽의 건설 등 도시화의 작업들로 인해 대지는 가려지고 기억 속에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Design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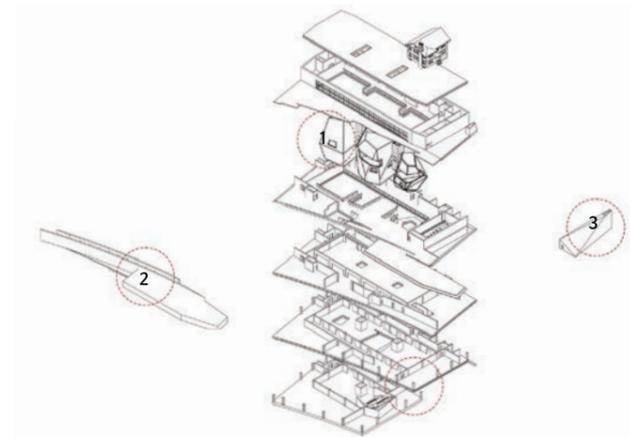
'틈': 근대성의 간극

도시 내의 'No mans lands'는 합리성으로만 사회를 담아내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다. 이 땅도 이와 큰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본다. 부지 내의 대지에는 현재 건물의 형성을 위해 세워진 옹벽들로 둘러싸여 있다. 옹벽 또한 근대 도시화의 산물이다. 이러한 작업들에 간극을 내어 공공적 가치해내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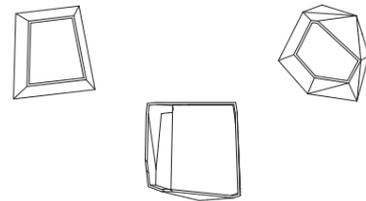
연지동 부지는 New normal을 겪은 대지이다. 이 부지가 서서히 장막 속에 가려지게 된 것을 이러한 '틈'이라는 장치를 통해 현대인들의 'New Normal'을 겪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문화소통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Isometric Diagram

1. Special Exhibition Mass
2. Exit slope (For Jungsin School)
3. Light Exhibition (C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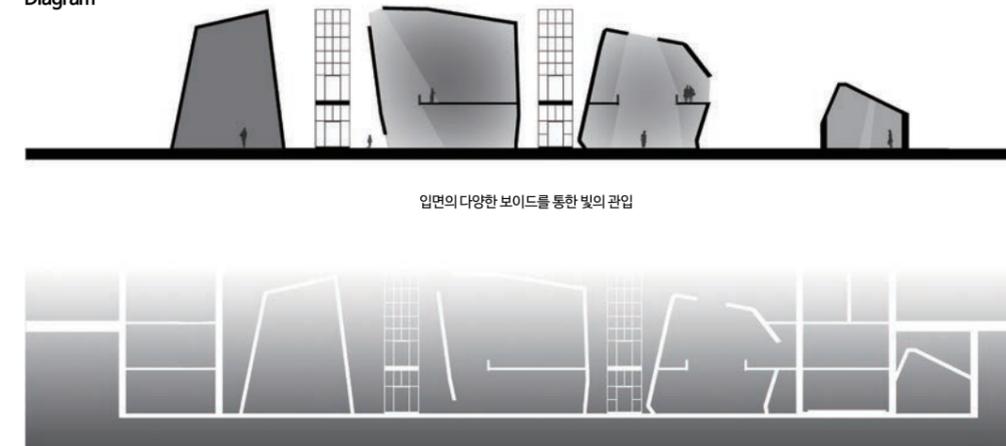
Exhibition Mass



틈, 그 안의 3개의 전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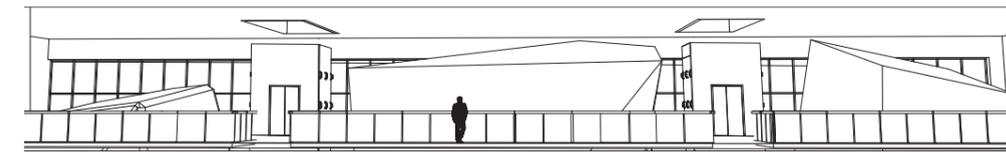
틈의 내부에 위치한 3개의 메스동에서 다양한 전시 활동이 일어난다. 이는 참여하는 참여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바라보아 질 수 있게 다양한 입면들을 통한 빛의 관입을 유도하려 한다.

Diagram



입면의 다양한 보이드를 통한 빛의 관입

R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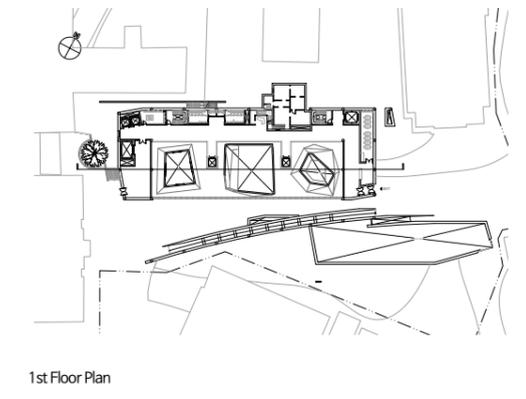
Model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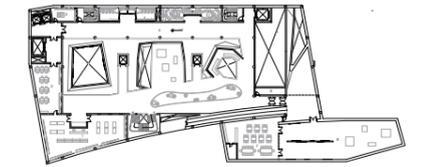
Elevation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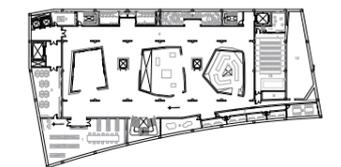
Floor Plan



1st Floor Plan



B1 Floor Plan



B2 Floor Plan

Connecting Context, Connecting Guro

구로기계공구상가의 주변 맥락에 적응을 통한 재생



이민수

과거 구로는 구로공단으로 유명한 국가산업단지로서 많은 중소 제조업 공장들과 기반 시설이 있었으며, 그 중 대상지인 구로기계공구상가는 제조업의 기반이자 구로 산업생태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던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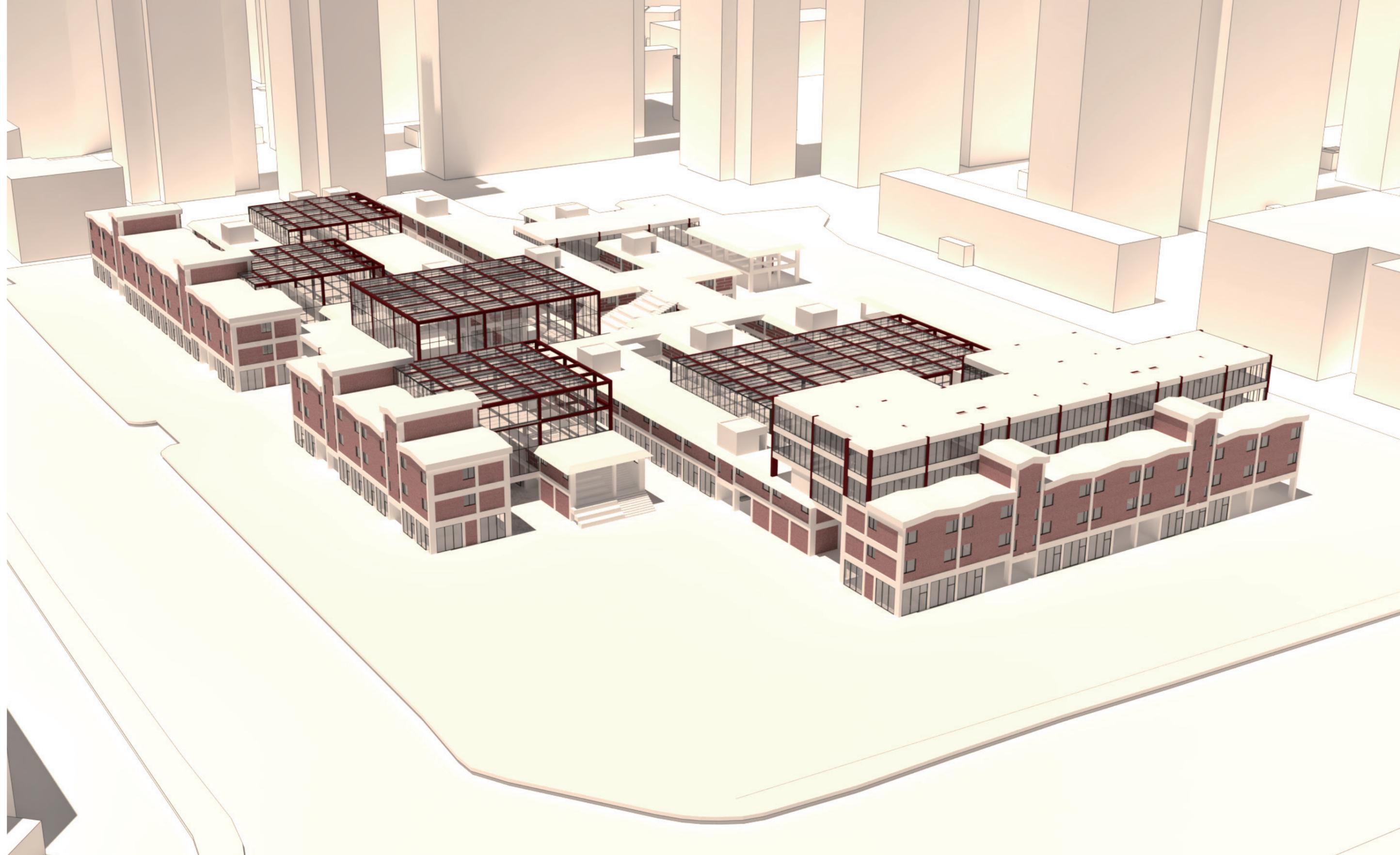
하지만 산업과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구로기계공구상가 주변과 상황의 맥락들이 변화하였다. 상가는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되어, 사용자가 줄어들고, 상가와 사무실의 공실이 늘어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다. 기존의 제조업체 밀집지역, IMF이후 공장들의 폐쇄와 이전으로 인한 아파트와 구로역 주변의 오피스텔과 아파트형 공장,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섞인 주공혼재 지역들 등 사이트 주변의 맥락과 상황을 받아들여 지속가능한 구로기계공구상가로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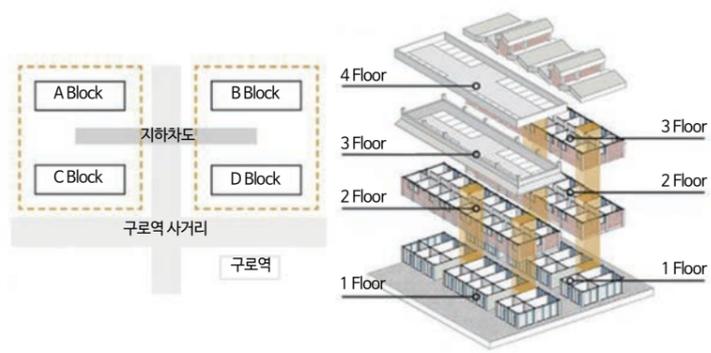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98

면적 9,334.3㎡

규모 지상 5층, 지하 1층



Building Analysis & History



1975 소상공인 주축 '내 점포 갖기 사업'
 1981 준공 서울과 서울 외 지역과 연결성 좋음 최적의 입지
 1990 한국 산업의 발전과 상가의 전성기 그 후 IMF로 인한 불황
 2013 역사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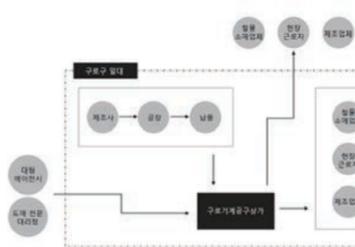
각 블록별로 취급하는 물품들이 나뉘는 구조로 약 50,000여종의 용품을 취급한다. 사이트인 B, D 블록은 고무재료, 비철금속, 수도배관자재, 전기제품, 모터, 환풍기, 용접기, 공구를 취급한다.

각 블록은 2타입의 건물로 나뉘며, 3층 모듈과 2층 모듈 + 주차장으로 된 건물로 나뉜다. 지하에는 지원상가와 주차장, 1층에는 기계공구상가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2층에는 오피스가 자리잡고 있다. 2층 모듈 위에는 옥상 주차장이 2개층 위치하고 있고, 3층 모듈의 3층에는 사무실이 4층은 계단실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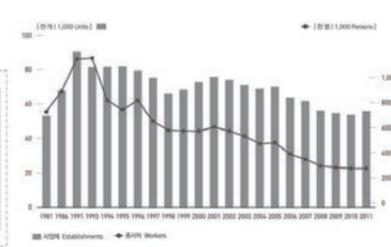
Site Analysis & Issue



구로 기계공구상가 산업 생태계 개념도



제조업체 및 종사자 수의 변화



기존의 구로기계공구상가는 구로구일대의 제조업체와 외부의 대형 에이전시, 도매 전문대리점으로부터 물건을 공급 받아 구로구일대와 서울 외곽 지역의 철물 소매업체, 현장 근로자, 제조업체에게 전달하는 산업생태계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제조업 자체의 부가가치의 하락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줄어들어 대해서 사이트 주변의 제조업체들의 이전과 폐쇄로 산업 생태계와 건축적 맥락의 변화로 구로기계공구상가의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Site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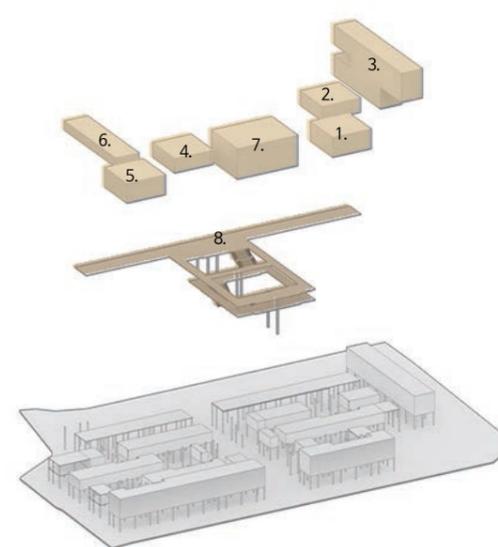


1975. 구로공단
 해바라기 발이었던 지금의 사이트 주변으로는 많은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었다
 서부간선도로로 연결되는 현재 경인로를 통해 서울과 서울외곽 지역의 연결성이 좋은 위치에 준공, 목동의 개발이 진행되기 전이어서 구로중앙로가 연결되기 전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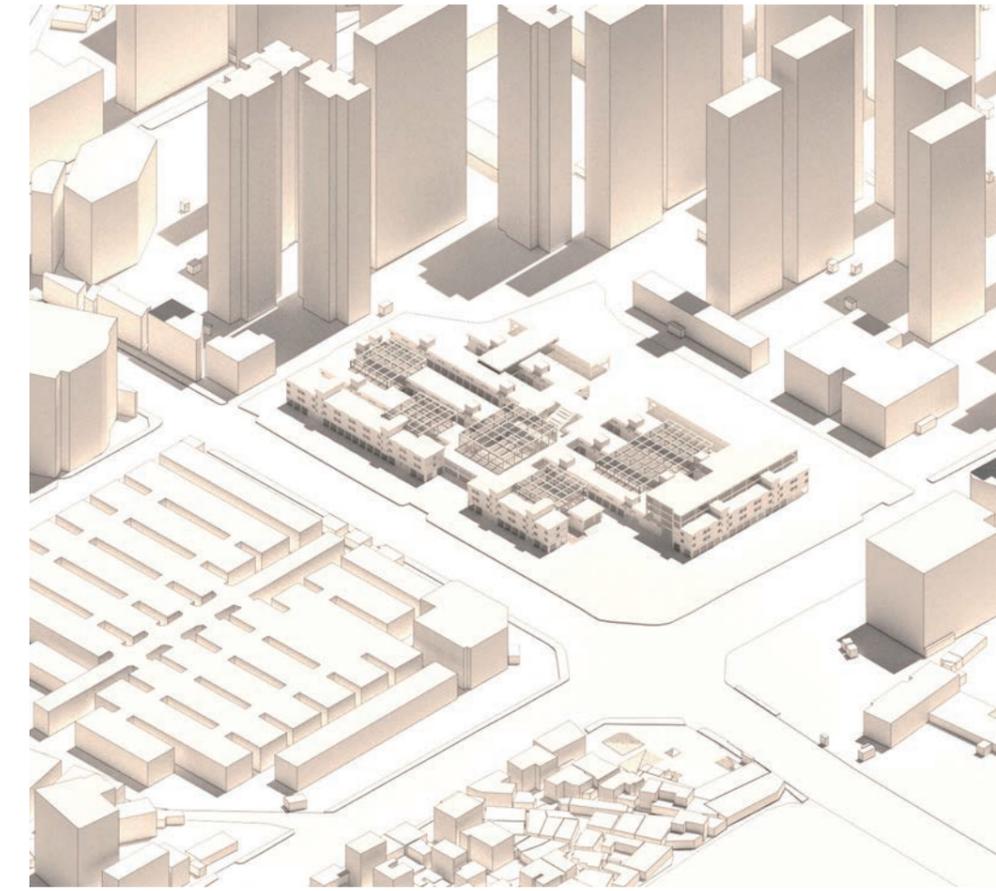
1981. 준공
 IMF로 인한 불황으로 공장들의 이전과 폐쇄가 이루어졌고, 남은 공간들을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채워 사이트는 맥락이 단절된 채 지속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

2005. 아파트와 구로역 주변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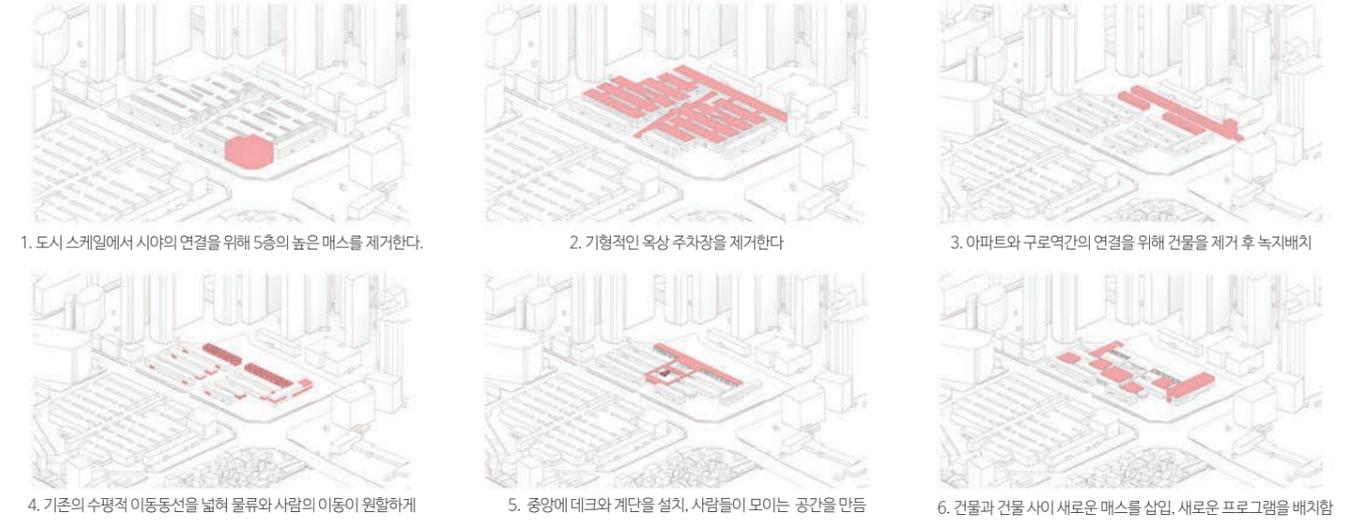
Program Strategy



1. 공구체험공간
 2. 메이킹 룸
 3. R&D
 4. 기존 상인 교육공간
 5. 산업체협력공간
 6. 지역주민 커뮤니티
 7. 건물 연결공간
 8. 메인홀
- 기존의 프로그램인 1층의 기계공구상가와 2,3층의 사무실은 유지를 한채 새로운 프로그램의 매스들을 삽입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맥락과 상황을 연결하여 상가의 지속가능하게 만든다.



Design Process



힐튼, 대지에 녹아들다 : Melting Hilton

남산 힐튼호텔 리노베이션을 통한 공간적 연속성 회복 및 문화시설 조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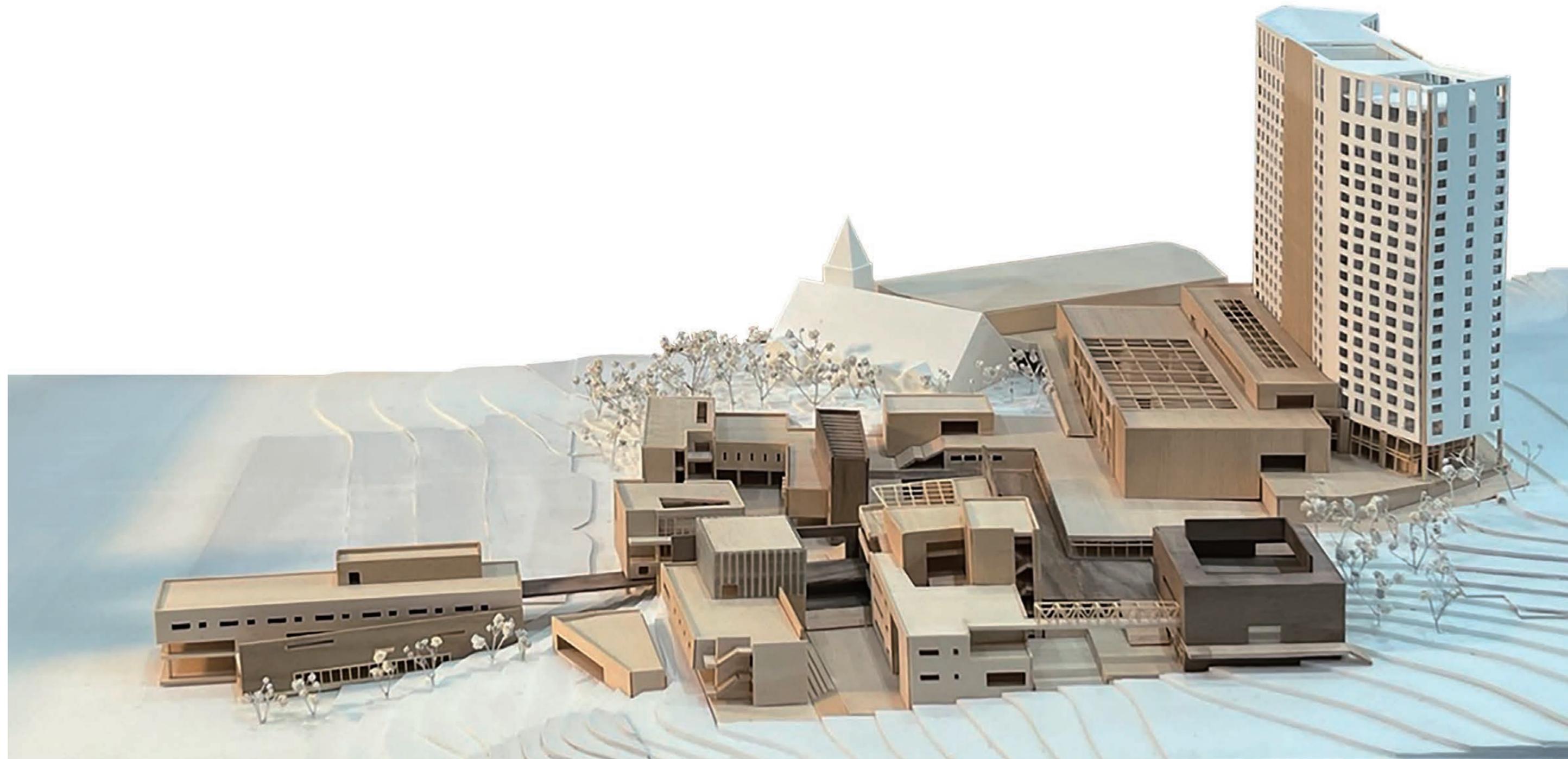


이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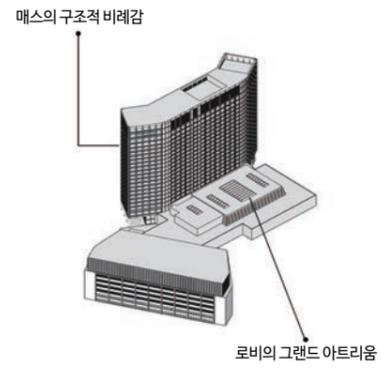
근현대 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최근 건축계에서 끊임없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소재이다. 서울 남산 번 위치에 자리한 힐튼호텔은 서울의 발전상을 대변해왔을 뿐만 아니라 남산의 랜드마크로써 오랜 세월 활발히 구동해오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난으로 인해 자리를 잃고 철거될 상황에 놓여 있다. 앞으로 '제2의 힐튼'이 쏟아질지도 모른다. 개발 연대에 지은 많은 건물이 노후화돼 철거나 리모델링이나 갈림길에 서있다. 힐튼 사태는 우리가 먼 과거의 문화 유산에 비해 비교적 가까운 30~50년 전의 근현대 유산을 도외시켰다는 점을 일깨운다. 가까운 과거도 결국 먼 과거가 된다. 현재의 제한된 쓰임을 넘어서 도시의 삶과 자연과 역사적 맥락이 함께 고려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힐튼호텔은 주변 업무단지 블록이 호텔 주변을 거대한 요새처럼 감싸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물리적/비물리적 경계는 대상지를 주변 지역과 호흡하지 못한 채로 단절시켰다. 이러한 주변과의 단절을 해소함과 동시에 힐튼의 가치를 새로이 발현하기 위해서 저층부를 공공화하여 서울역-남산간의 보행 길을 되찾고 지형조건을 활용해 호텔이라는 한계점을 가진 기존 프로그램에 더해 도시 흐름을 담아낼 수 있는 문화공동체적 프로그램을 재구성한다.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395번지 일대
면적 25,840㎡
규모 지상 23층, 지하 5층



근현대유산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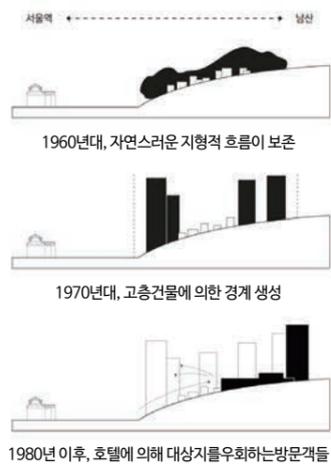
Sit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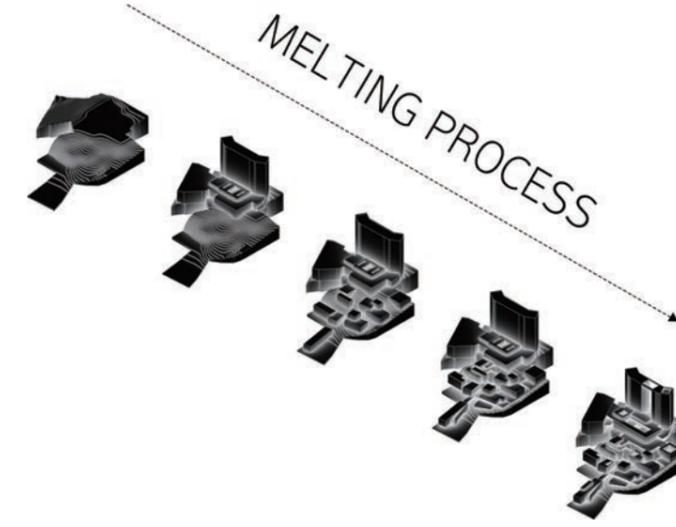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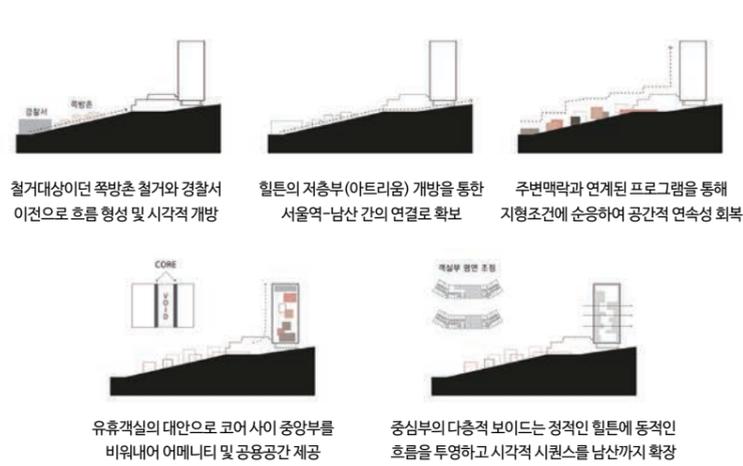
경계를 만드는 주변 요소



양동지구의 단면적 공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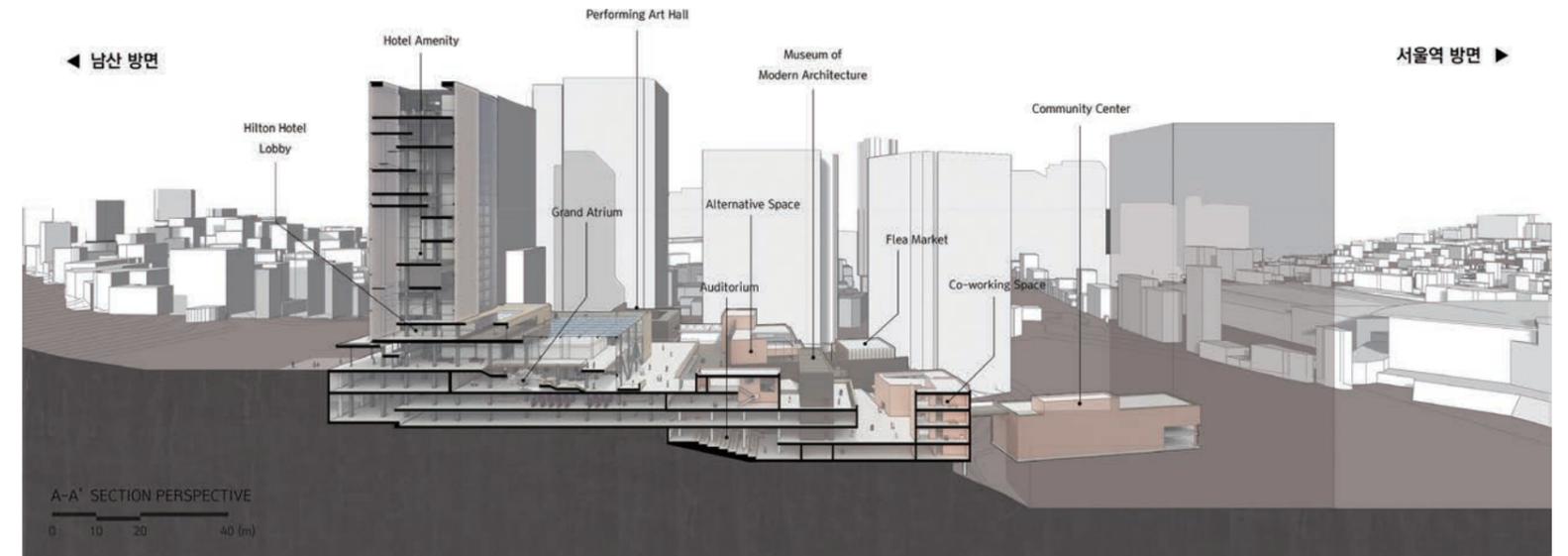


도시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전략



Concept : 녹아들다

가파른 경사를 극복하기 위해 노출된 랜드스케이프의 레벨 차를 토대로 길의 흔적을 파악해 회복하는 과정을 선택한다. 이후 길의 시스템과 도시조직과 연계된 역사와 문화 프로그램들을 교차시키며 다층적인 동선을 도출하고 호텔 저층부의 공간적 연속성을 형성한다. 마치 호텔이 녹아내리는 듯한 제스처는 끊어져 있던 서울역-남산 간의 도시 흐름을 이어준다.



Re:cord_다시 기록하다

메가스포츠 이벤트 이후 대형 유휴부지의 활성화 방안



이정훈

도심의 메가 스포츠 이벤트 경기장은 국제적인 경기 이후 거대한 유휴공간으로 남겨진다. 뿐만 아니라 경기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경제적 부담감도 가중시킨다.

과거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장 내부에 수익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그러나 시설의 상징적 의미와 실내 수익성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벤트 이후 외부 공간의 효율적인 공공 공간 활용에 대한 방안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주변의 맥락을 재정 의하고, 주변 요소들을 끌어들이어 기존의 경기장과 외부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유형의 스포츠 공원과 대형경기장 외부 유휴공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위치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면적 약 440,000㎡

규모 지상 5층, 지하 4층



Re: Boot Camp

Camp Market 철거부지 B구역 공원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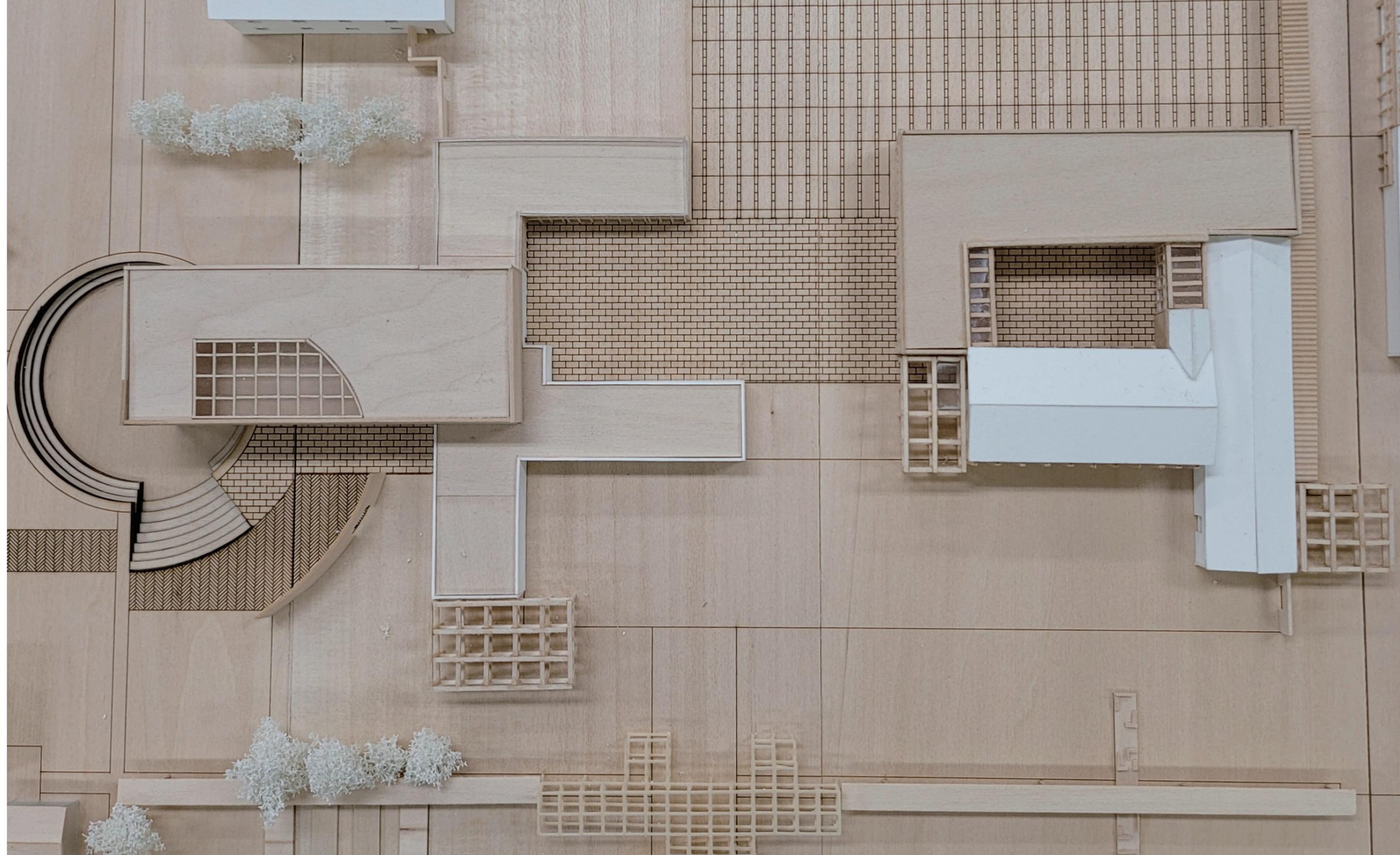
임성현

CAMP MARKET은 부평 발전의 중심지였고 지역적인 역할이 퇴색되자 도시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다. 담장으로 가려지고 차단되었던 CAMP MARKET 부지가 다시 주민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 곳은 부평의 멈추어 있던 과거와 현재가 만나며 소통하는 시발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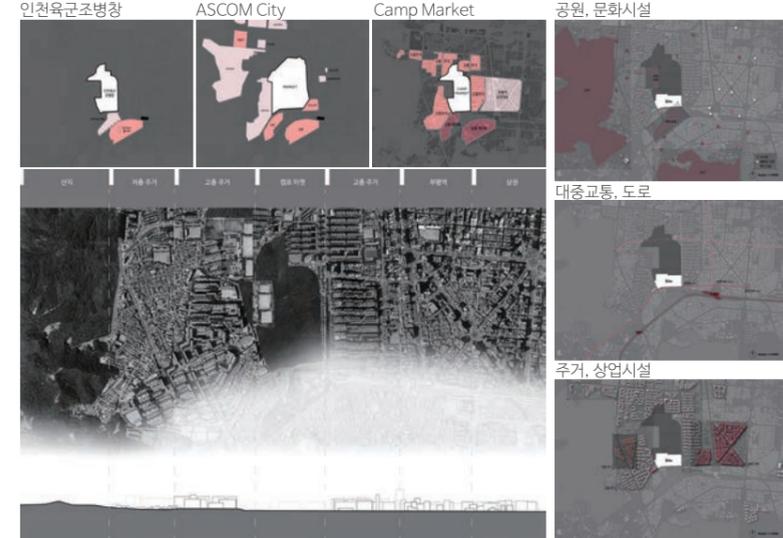
부평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앞으로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Re: Boot Camp'는 오랜 시간동안 벽 안에서 오염된 토양의 재생에 더불어 시민과 대지의 관계를 정화하며 부평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앞으로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상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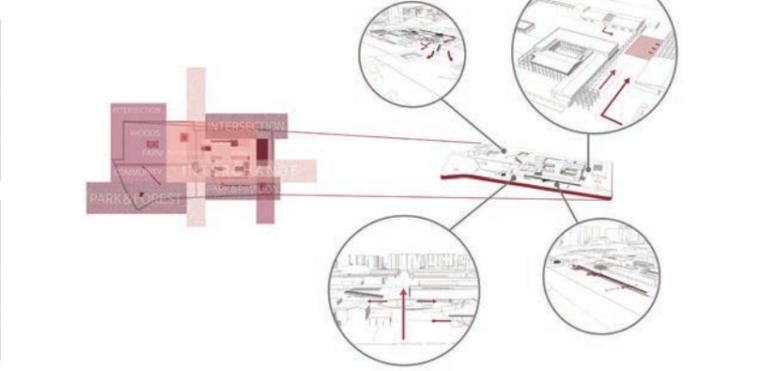
위치 부평구 산곡동 일원
면적 10,804 m²
규모 지상 2층, 지하 1층



Sit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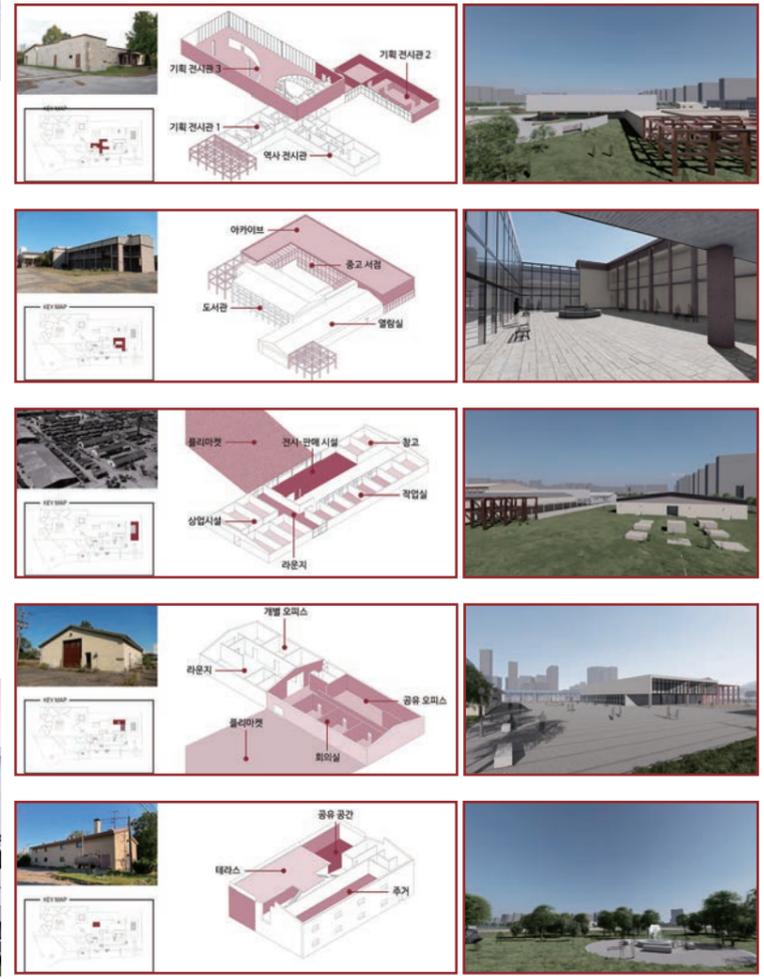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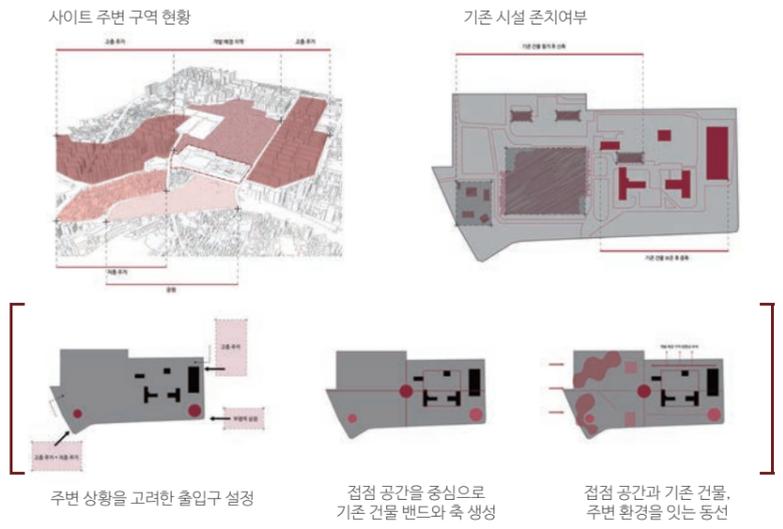


Zoning & Sequ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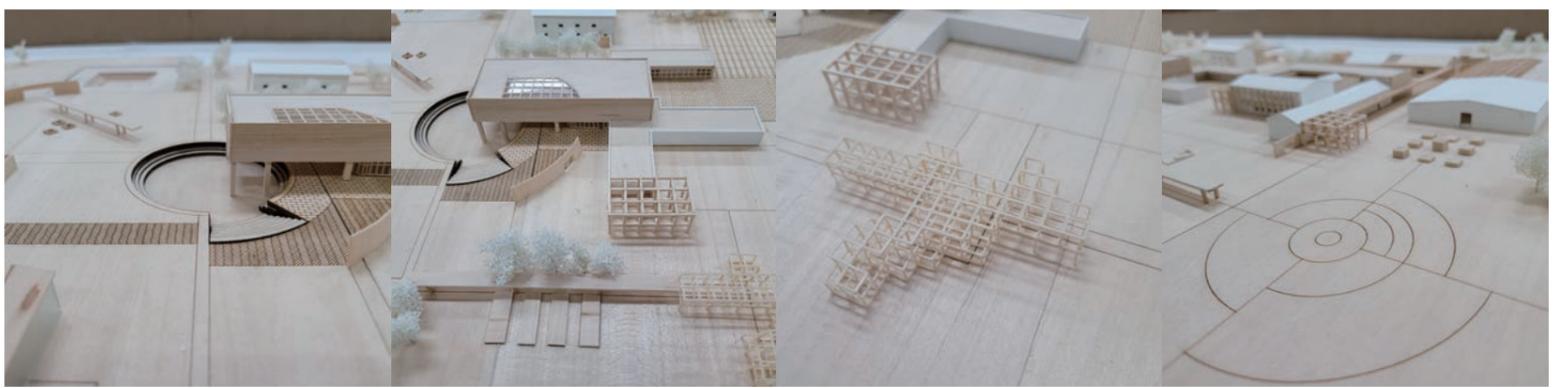


각각의 테마로 나뉘어진 지역이 축을 통해 적절히 흩어지고 모인다. 유기적인 흐름을 통해 마음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복합 공원이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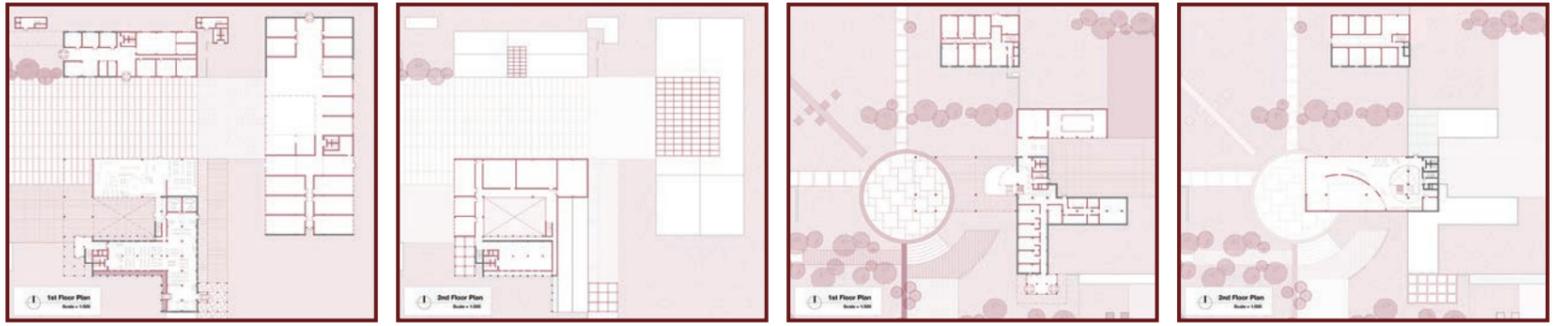
Desig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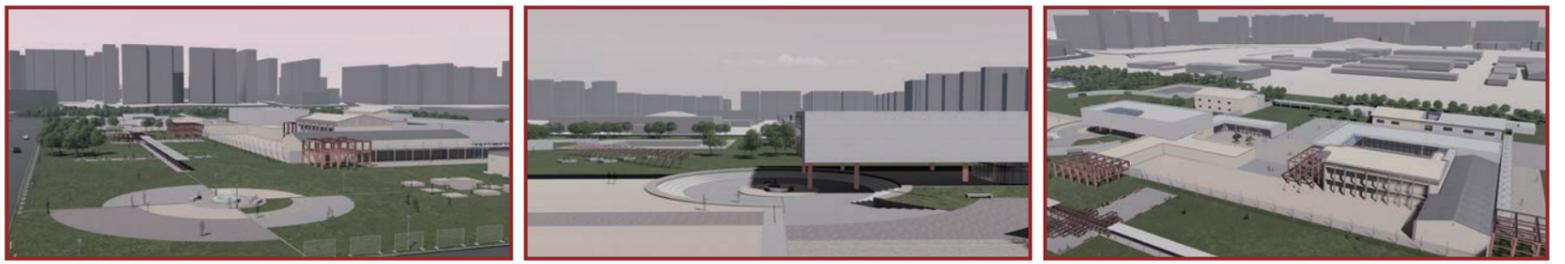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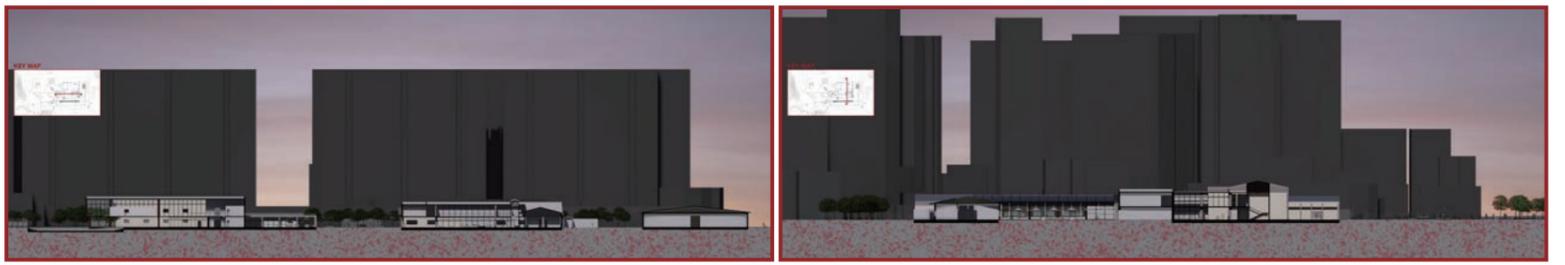
Floor Plan



Sequence Image



Section



Protect, Connect, Flow!

신천 유수지 입체복합도시 계획(안)



정현재

도시와 자연 사이, 인공환경의 역할은 무엇인가? 유수지는 집중 호우 시 하천의 범람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약취 및 물리적 단절로 인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유수지는 시대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변화를 거쳐왔다. 신천유수지 또한 복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공공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재생방안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고밀화된 도심 속, 유수지는 더욱 더 적극적인 대지의 활용을 요구받는다. 본 프로젝트는 노후유수지 입체복합개발을 개념을 적용하여 신천유수지 입체복합도시 계획안을 제안한다.

“PROTECT”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유수지 기능을 확충하고, “CONNECT” 입체복합화를 통해 지하와 복개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단절된 자연과 도시를 연결한다. “FLOW” 신천유수지 입체복합도시를 통해 회복된 활력은 주변 맥락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상생한다.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4
대지면적	29,426㎡
건축면적	11,617㎡
건폐율	39.4%
용적률	377.6%
용도	복합문화시설, 업무시설, 공공주택



[Design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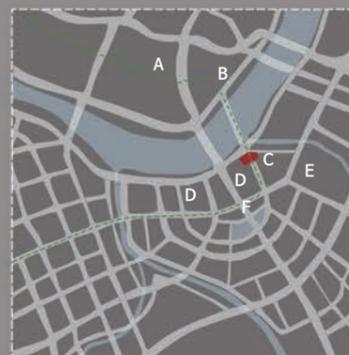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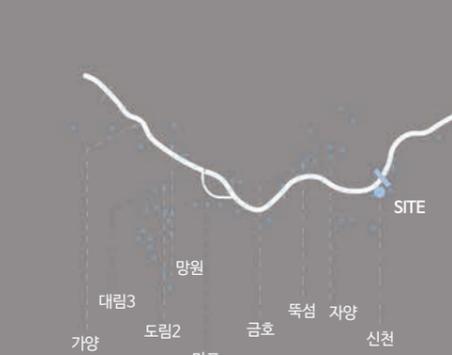
1. 유수지 지하화



2. 잠실나루역 입체복합화



3. 지형적 단절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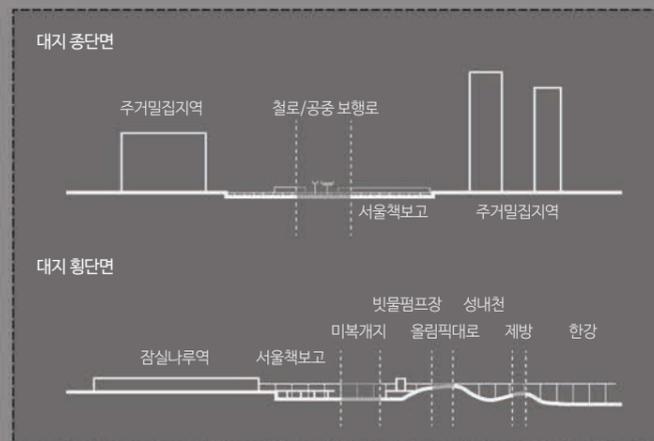


A. 건대입구역 B. 동서울 종합터미널 C. 잠실초고교 D. 공동주거 밀집지역 E. 올림픽공원 F. 상업지역



1. 잠실나루역-서울책보고
2. 잠현초등학교-서울책보고
3. 잠실나루역-주차장
4. 주차장-어린이영양도서관
5. 한강공원산책로-서울책보고
6. 잠실나루역-잠실한강공원

한강과 서울, 동서방향의 연결을 위한 올림픽 대로, 남북을 잇는 한강 위 대교들, 도심 곳곳을 파고드는 도로와 지하철, 한강의 범람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재시설, 한강이라는 자연요소를 중심으로 성장한 서울은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를 인공환경으로 채워나갔고, 고밀화된 도심 속 건설된 인프라스트럭처 사이 도시와 자연의 유기적 관계는 파편화되었다. 다양한 미래의 수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겪는 도시 속 인공환경의 역할은 무엇인가?



도시 확장 및 연결을 위해 건설된 도시의 인공환경으로 인해 대지는 사방으로 단절되어 있다. 한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쌓인 제방과 올림픽대로로 인해 남북방향의 동선이 단절된 상태이다. 홍수로부터 도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시설인 유수지로 인해 동서방향의 연결이 단절된 상태.



서울의 유수지는 홍수로 인한 한강의 범람으로부터 도시민을 지키기 위한 방재 시설로 조성된 인공 환경이지만 사용률이 낮고 미가동시 약취 등의 문제로 인해 기피시설로 인식된다.

유수지 활용 패러다임의 변화

[1950~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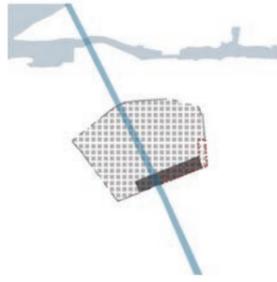
- 1950년대 서울 유수지 조성
- 도시 확장에 따라 상부 복개 후 주차장으로 활용 시작

[2000~2010]

- 유수지 방재기능 강조, 복개 지양
- 체육시설, 생태공원 등 미복개지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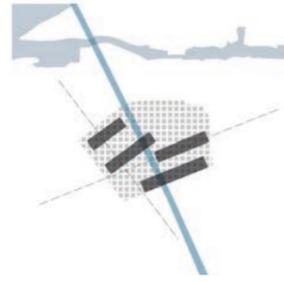
[2010~]

- 복개면의 면적, 건축물 용도 규제를 통한 복합화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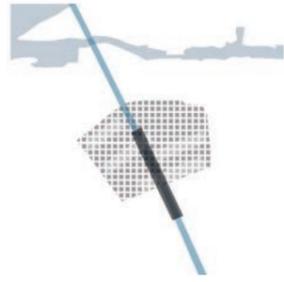
1. 기존 서울책보고 매스 확장

2019년 신설된 공공 현책방 서울책보고의 긍정적 영향을 대지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 면적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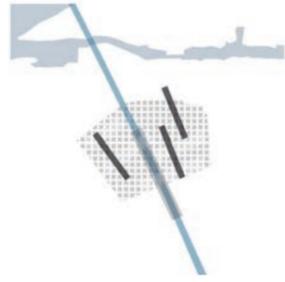
2. 축을 활용한 매스 배치

대지 내 축을 활용해 기존 매스를 반복배치하여 프로그램을 대지 전체로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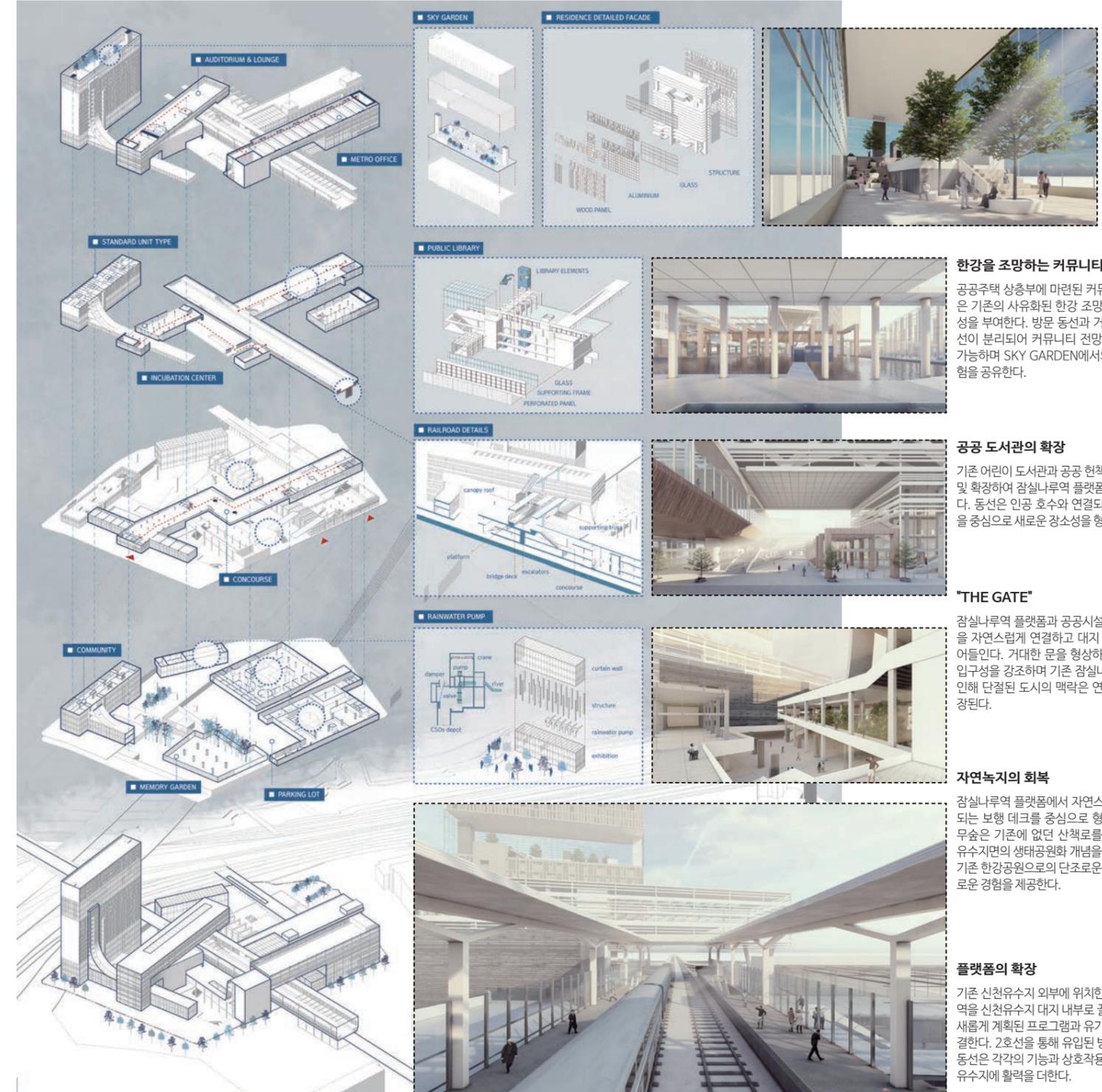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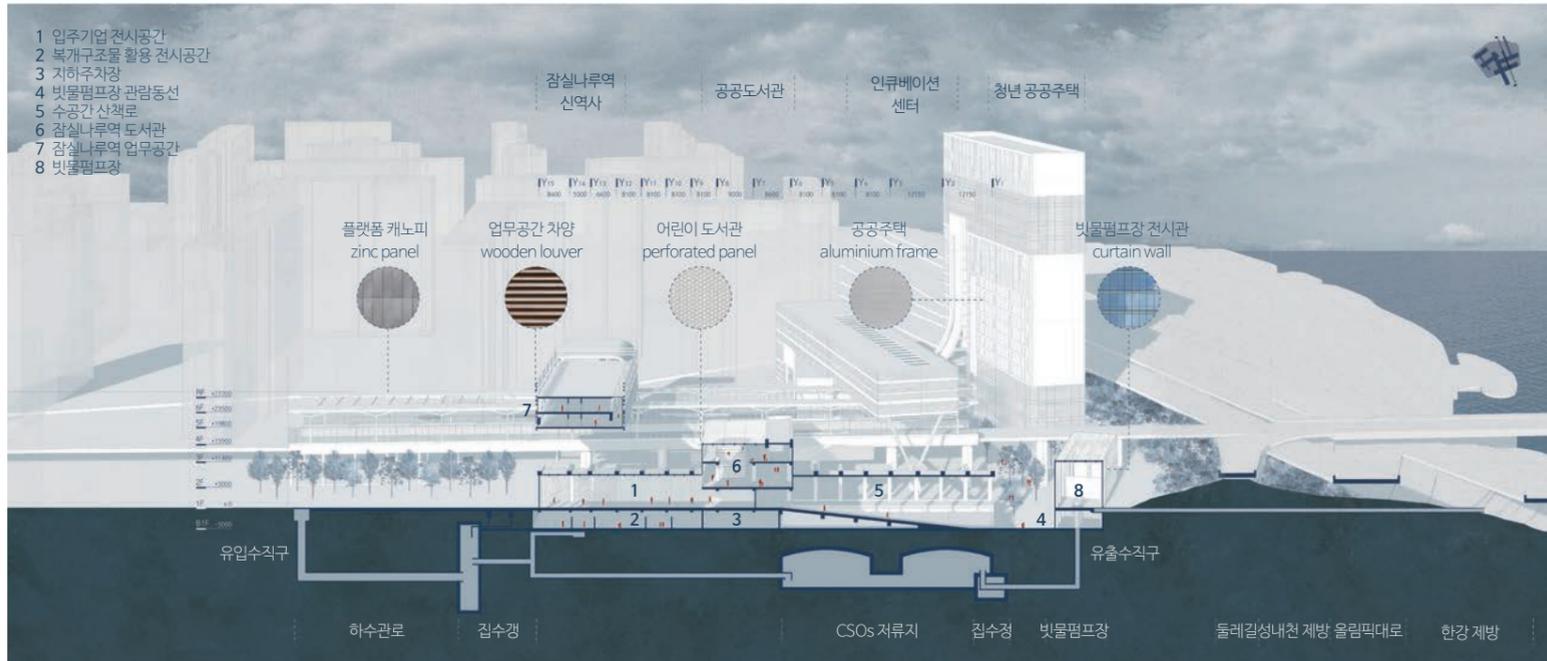
3. 잠실나루역 플랫폼 확장

노후화된 플랫폼 정비 및 동서방향의 단절 해소를 위해 대지 내부로 플랫폼 확장 및 전면 도시광장 확보



4. 프로그램의 상호 연결

재배치된 프로그램을 남북방향으로 연결하여 제방으로 인해 단절된 도시와 자연공간의 연계



CITY IN THE CITY

커뮤니티의 생활 방식을 재구성한다



주우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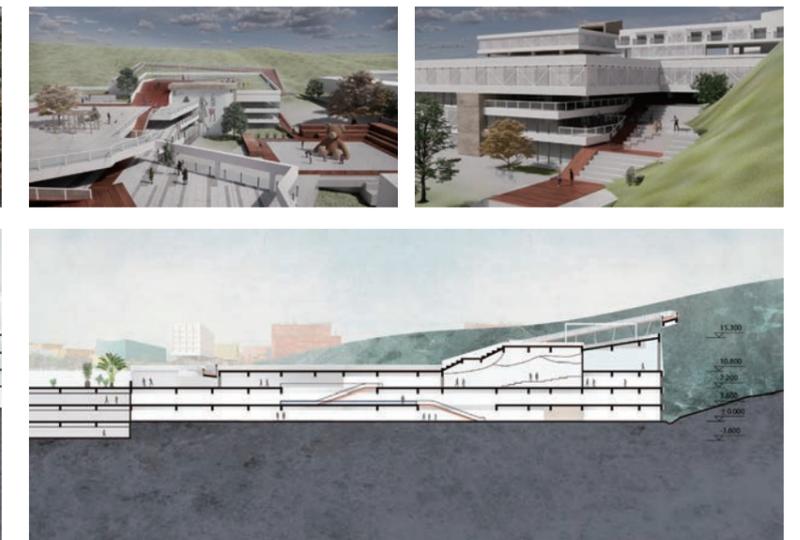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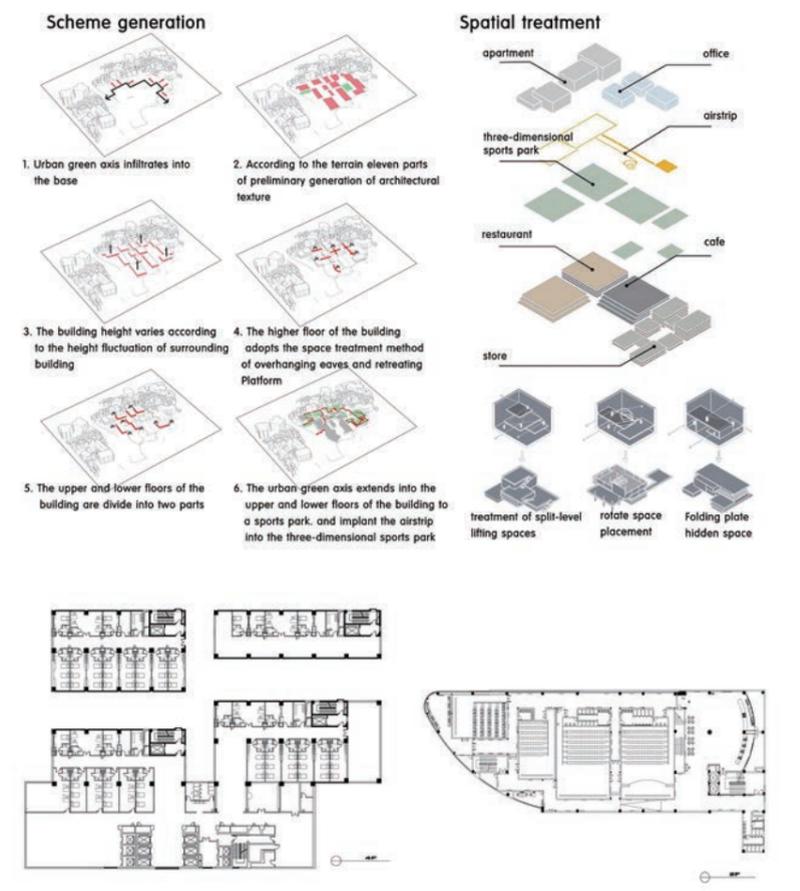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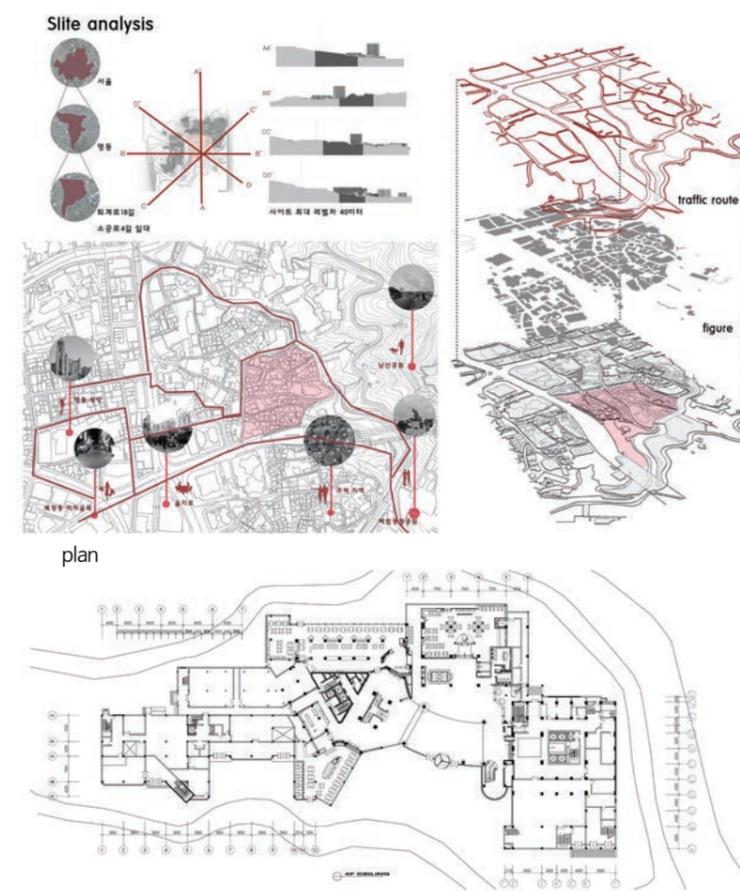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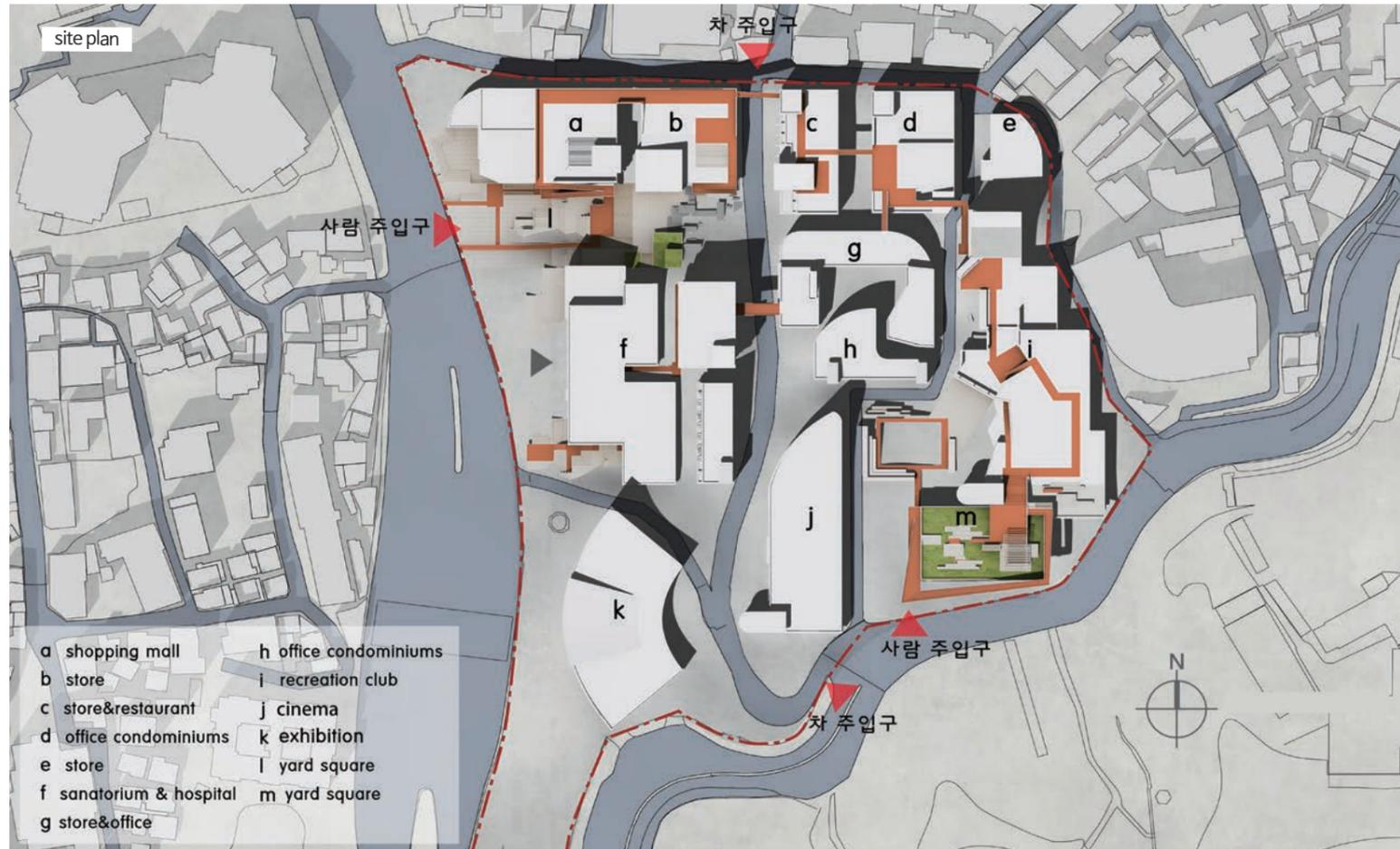
코로나 19 사태 이후 생활권이 안쪽으로 접히면서 사람들은 자신 내면 세계의 수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사람 간의 이해와 포용, 안전하고 건강한 사교 관계를 갈망한다.

그러나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도래에 따라 사람들의 내면 세계 수요는 빠른 생활 리듬과 고정적인 생활 패턴에 의해 희석되어 지난 집-직장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갔다.

서울 명동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관찰과 사고를 결합해 명동 퇴계로 일대의 긴장된 도시 부지를 대상으로 포스트 팬데믹 시대 맞는 새로운 커뮤니티 교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활동 장소를 제공하고 커뮤니티의 생활 방식을 재구성하며 인간 관계를 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위치 서울 명동 퇴계로18길 소공로4길 일대
면적 47900㎡





Gradation Hospice

삶과 죽음의 모호한 경계, 도심 속 호스피스



최승호

이 프로젝트에서는 보편적인 가치를 다루고자 하였으며, 보편적 가치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해당되는 가치로서 삶과 죽음을 선정하게 되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공간은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과 죽음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맞이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죽음의 시기를 어느정도 예상이 가능하며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놓인 사람으로는 말기질환 환자인 호스피스 이용자들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고 과연 호스피스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지리적으로는 자연환경과 삶의 터전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모색하였으며, 공간의 성격으로는 환자의 쾌적한 거주성을 위하여 1인실을 제안하며, 커뮤니티 공간과 프라이빗한 공간을 명확하게 나누어 주며 전체적인 공간은 일상성과 치유적 공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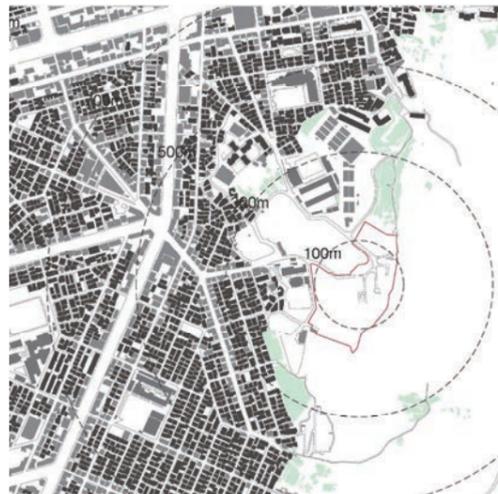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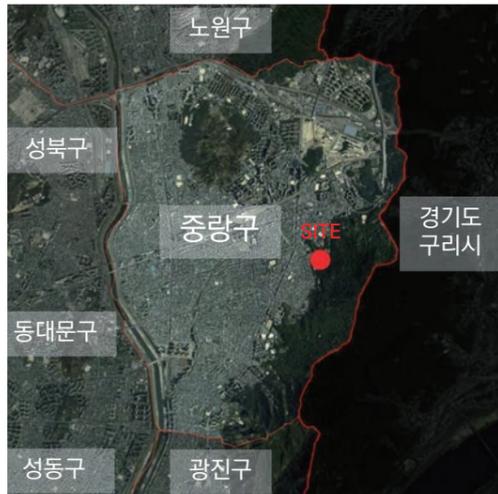


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69-1입
면적 232,389㎡
규모 지상 8층





Site Issues



Design Concept



고저차가 심한 산지지형에 위치한 사이트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정원과 같은 공간을 제한하여 외부활동에 제약이 많은 환자들 자연환경을 최대한 가까운 공간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저차를 이용하여 각층에서 외부공간으로 연결되는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피난층으로 형성하여 위급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안전한 피난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Program Strategy

- 1. 환자와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 테라스 도서관



- 2. 보안과 간호동선을 고려한 중앙 Main Nurse Station



늘어나는 수명과 더불어 증가하는 말기질환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국내에는 환자의 삶을 질을 향상 시켜 남은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 3. 환자와 의료진 및 간호인력 등의 휴게공간 - 옥상정원



- 4. 가족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 복층형 가족병동



- 5. 외부활동이 제약적인 환자들을 위한 실내 정원 및 산책로



- 6.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제안



더 이상 죽음은 외면 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델타잉'에 대한 연구과 그에 맞는 공간들이 사회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No. 1 PIER

노후창고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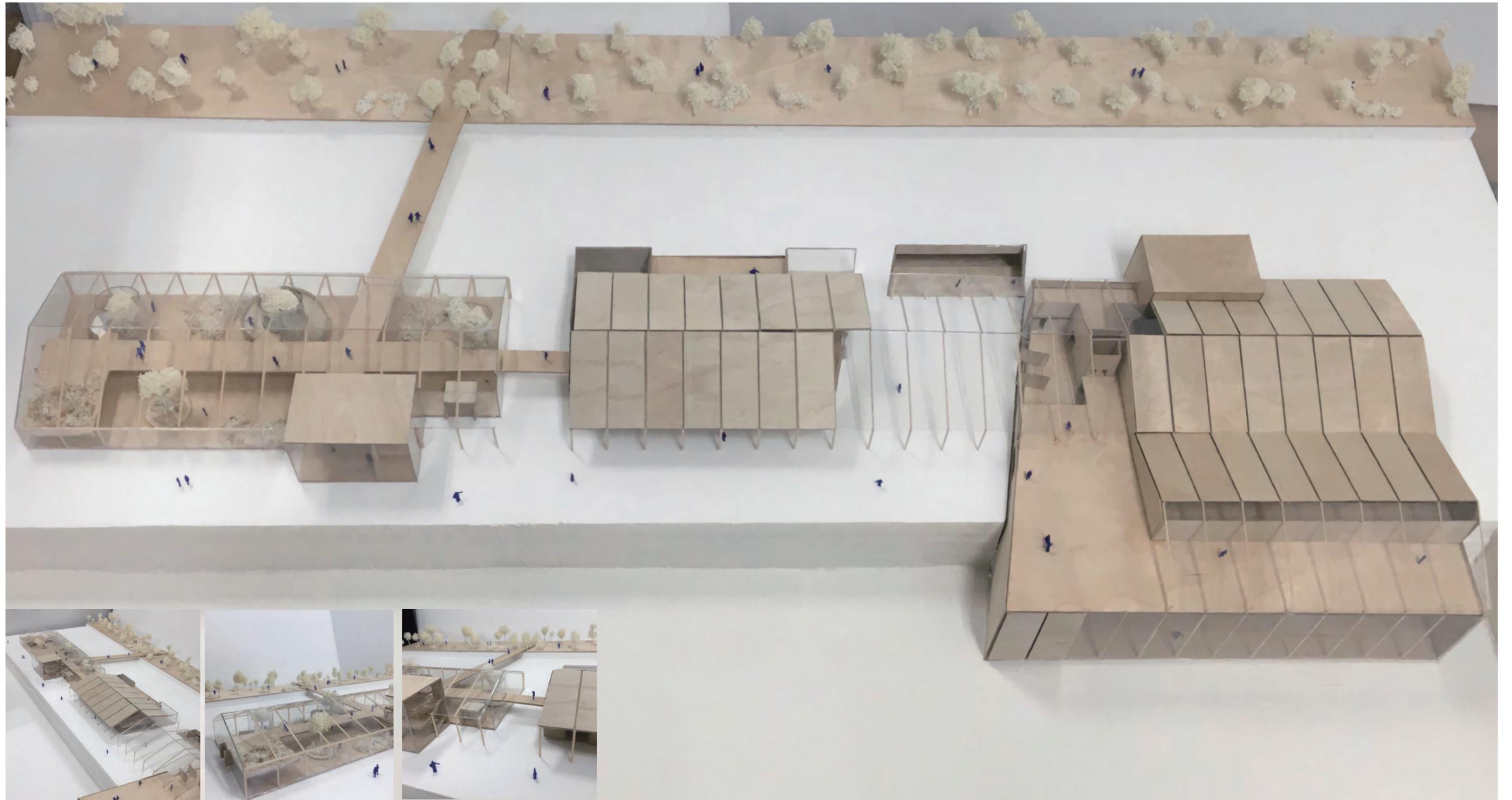
최은서

이 프로젝트는 인천 내항에 있는 노후창고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에 대해 디자인을 계획하고 제안하였다.

현재 인천항의 북항, 신항과 같은 신항만의 개장으로 인천항 내항의 비중은 줄었지만, 인천 내항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의 수출주도 경제를 견인한 물류 중심지로서의 가치를 담고 있다.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인천 내항의 대규모 유휴공간에 문화를 입혀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인천 제 1부두는 인천에 처음으로 생긴 항구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가치와 기존에 있었던 11,13호창고, 12호창고가 있었던 공간을 Play, Innovation, Eco, Renovation의 개념으로 재생하여 수변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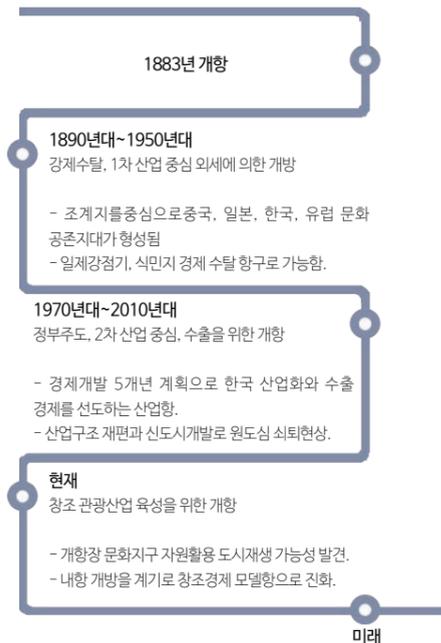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191-6
면적 61,466 m²
규모 지상 2층, 지하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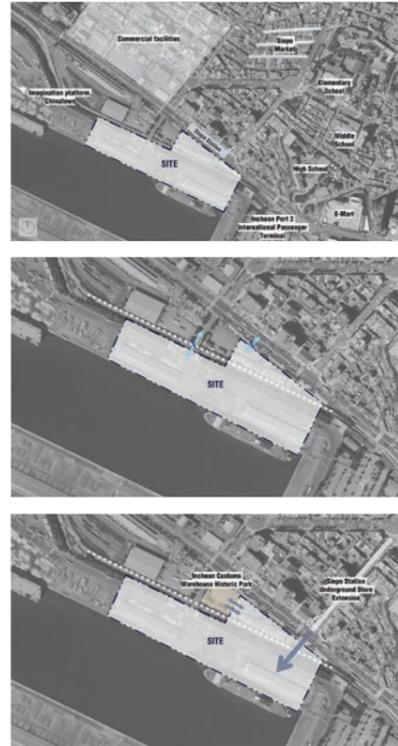
Site Condition



Site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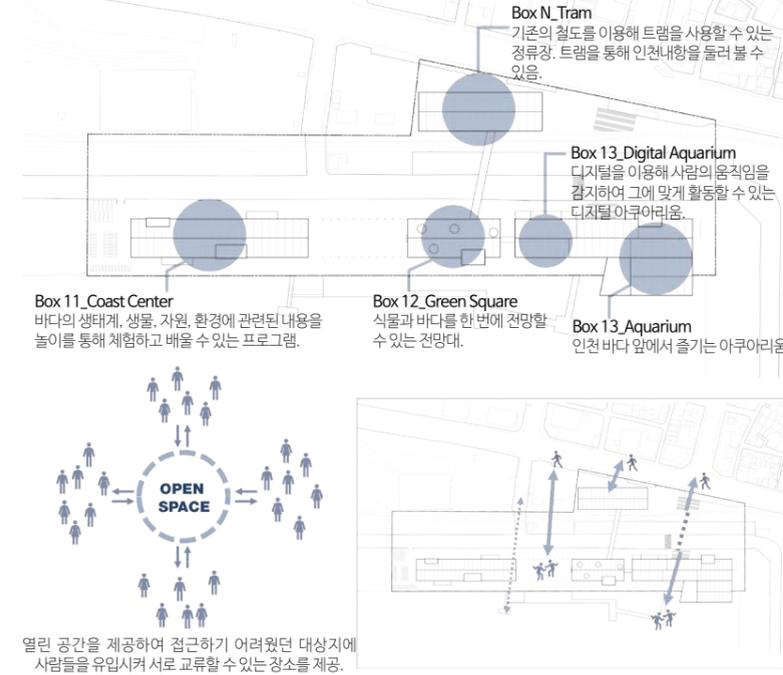


Problem &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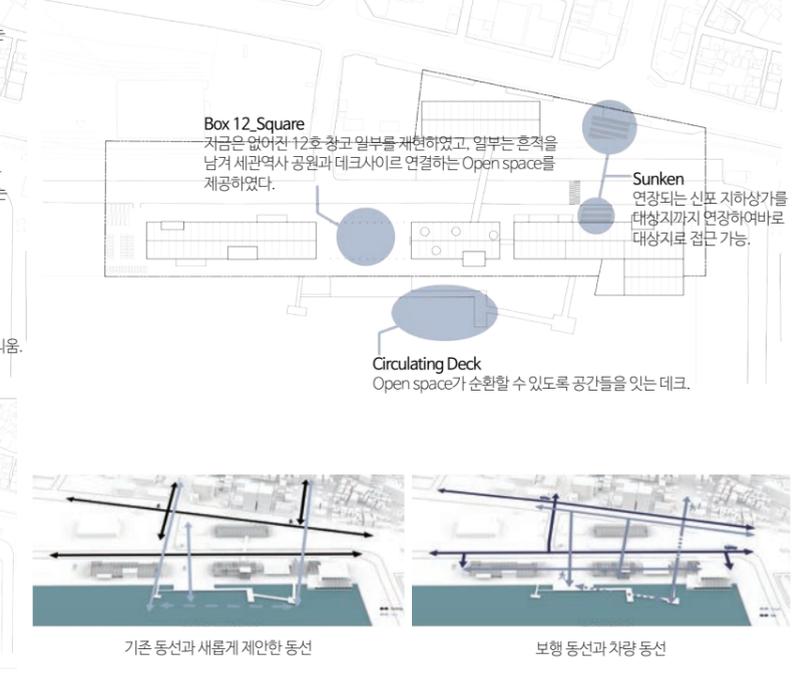
PLAY

유입 인구가 없는 단절되어 있는 대상지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열린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각 건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사람들이 모든 건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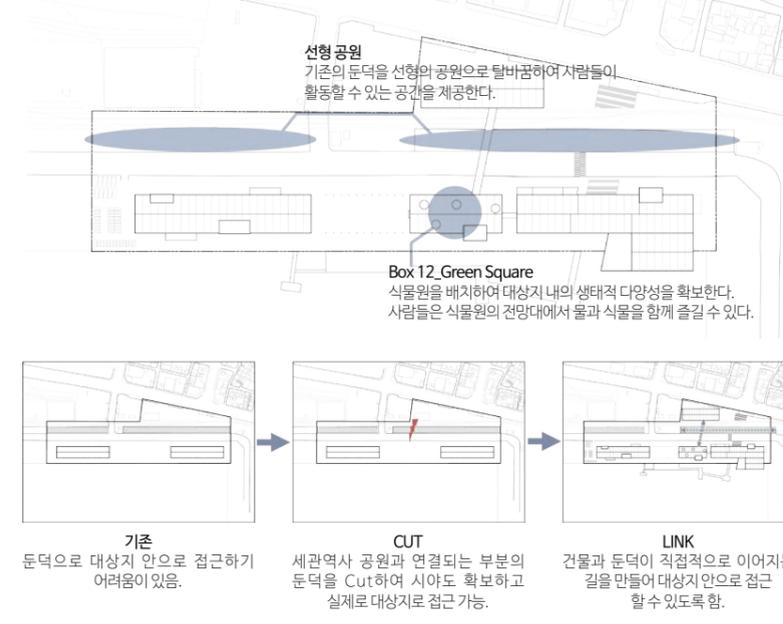
INNOVATION

항구의 기능을 하던 대상지가 기능이전을 하면서 대규모 유휴부지가 생겼다. 이곳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혁신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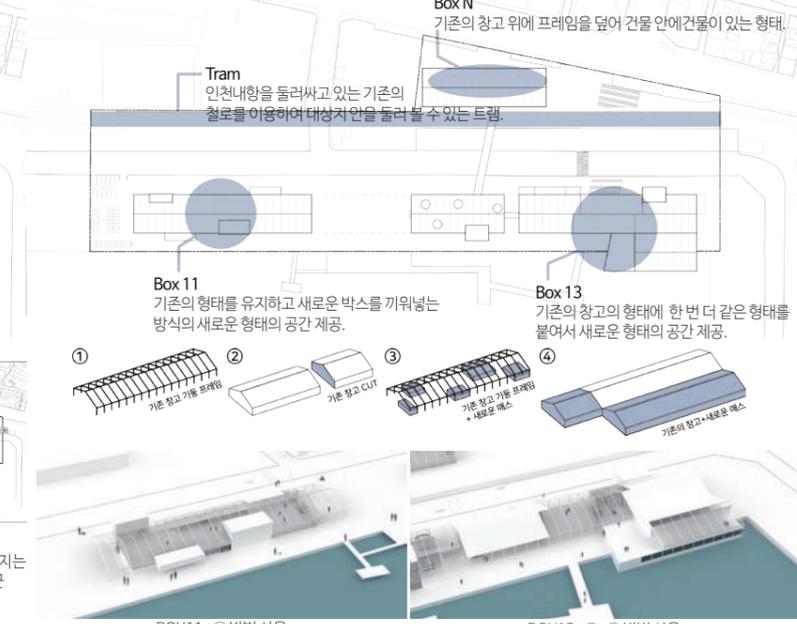
ECO

콘크리트 포장으로 녹지가 없는 대상지, 생태적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기존의 둔덕의 녹지를 이용하여 대상지 안으로 녹지를 불러 들인다. 인천의 바다와 식물을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RENOVATION

기존에 있는 창고의 형태를 살려 재개발이 아니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장소를 재생한다. 김구 선생님이 직접 노역한 벽면을 전시에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역사적 인식을 심어준다.



Hilton: Low stares / sLow steps

밀레니엄 힐튼 증축 프로젝트



한동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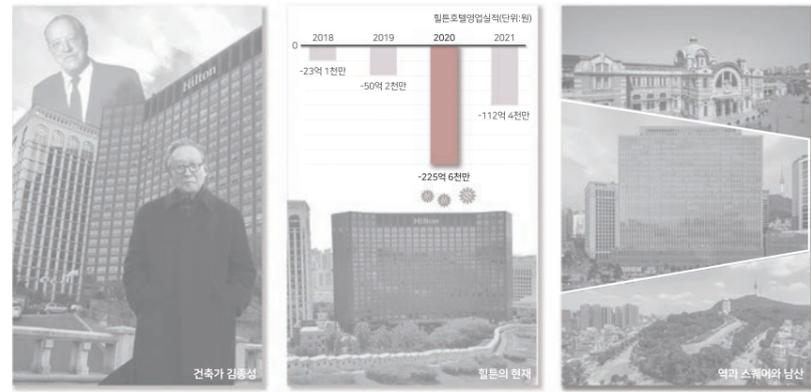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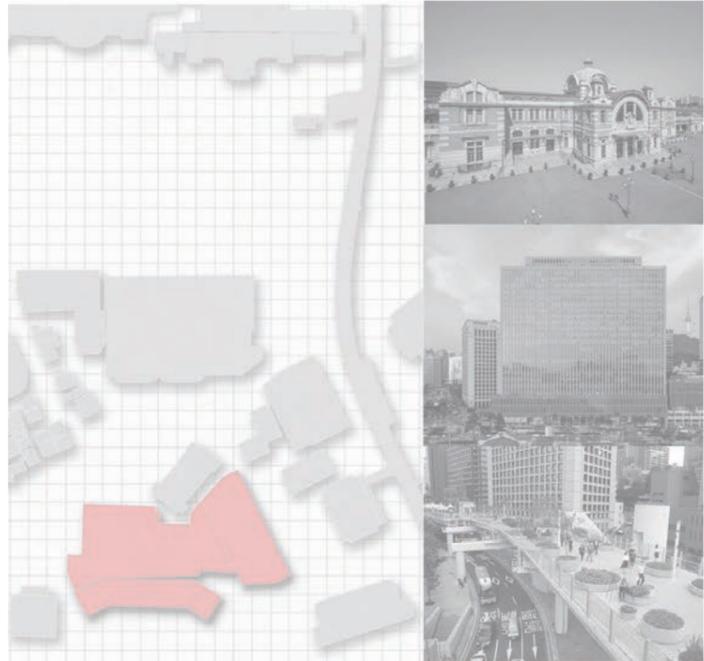
밀레니엄 힐튼의 철거는 결정되었다 이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겠지만 나의 졸업 작품 안에서는 영원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축적 가치는 어느 시점까지 인정될까?
고대 시대 부터 근대까지만이 역사적 가치로 인정되며 그 이후의 건축은 낡은 건물일 뿐일까?

건축은 그 시대와 역사를 반영한다. 활용성, 수익성, 물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것만을 추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제2의 힐튼, 제3의 힐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 증축 프로젝트를 바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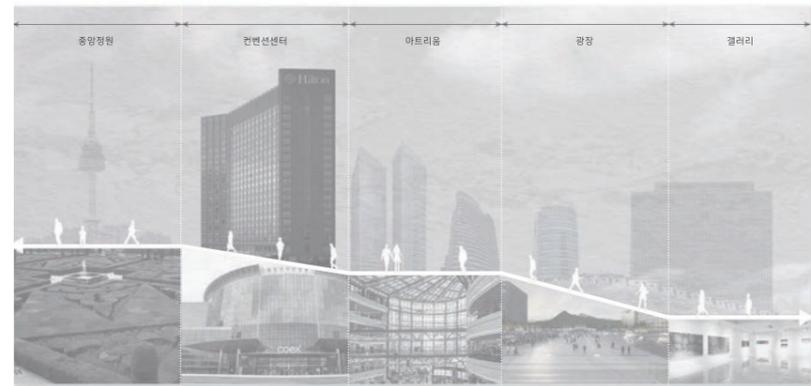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50
면적 95,488.9㎡
규모 지상 23층, 지하 3층





Site Issue

힐튼호텔은 건축가 김중성의 작품으로서 미스의 철학을 계승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표현된 현대적 건축양식은 그 존재 자체로도 건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와 반대로 현재 호텔의 재정상황은 코로나로 인해 매우 큰 적자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힐튼 자체가 갖는 도시에서 자연까지 이어지는 맥락이라는 사이트의 특징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큰 강점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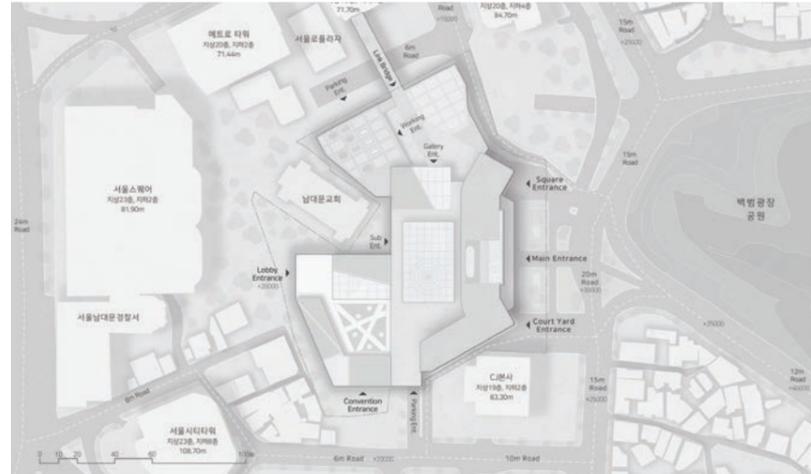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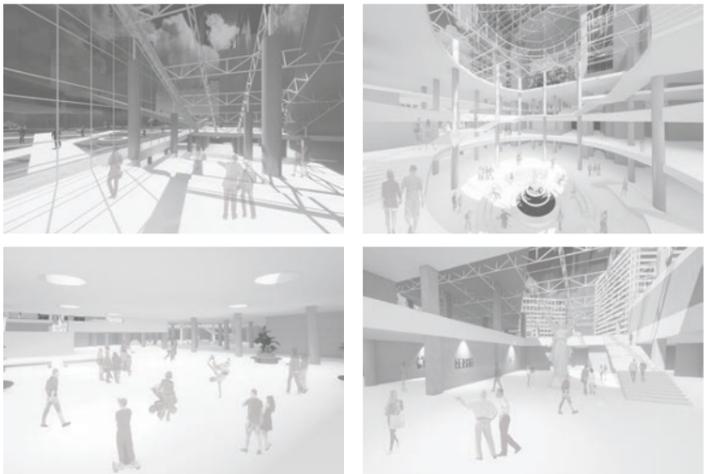
Prologue

건축물의 가치는 무엇일까? 현대 사회의 건축은 자본과 직결되어 그저 소유물 즉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결정된다. 하지만 건축은 자본 이전에 그 형태와 시대가 맞물려 갖게 되는 역사적, 미학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광장과 공원 같은 공공의 외부공간은 경제활동이 추가 되지 않지만 삶에 있어서 필요한 존재이듯이 건축물 또한 내부공간으로서 공공성을 통해 자본적 가치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건축물과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힐튼호텔을 통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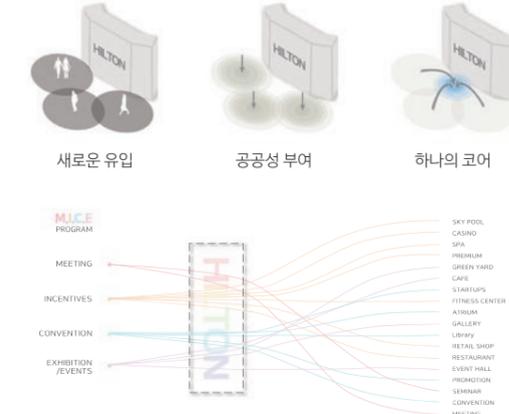
Concept Diagram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 유지일 것이다. 수평적 관계 형성을 대표할 수 있는 공공적 공간을 선택적으로 맥락에 부여하여 연속시킨다. 우리가 하여금 자연스러운 흐름을 느끼게 하며 집결 시키게 된다. 호텔이라는 직선적 존재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새로운 추억을 기록하여 그곳에 낮은 시선을 제시하고 느린 발걸음으로 그곳에 머무르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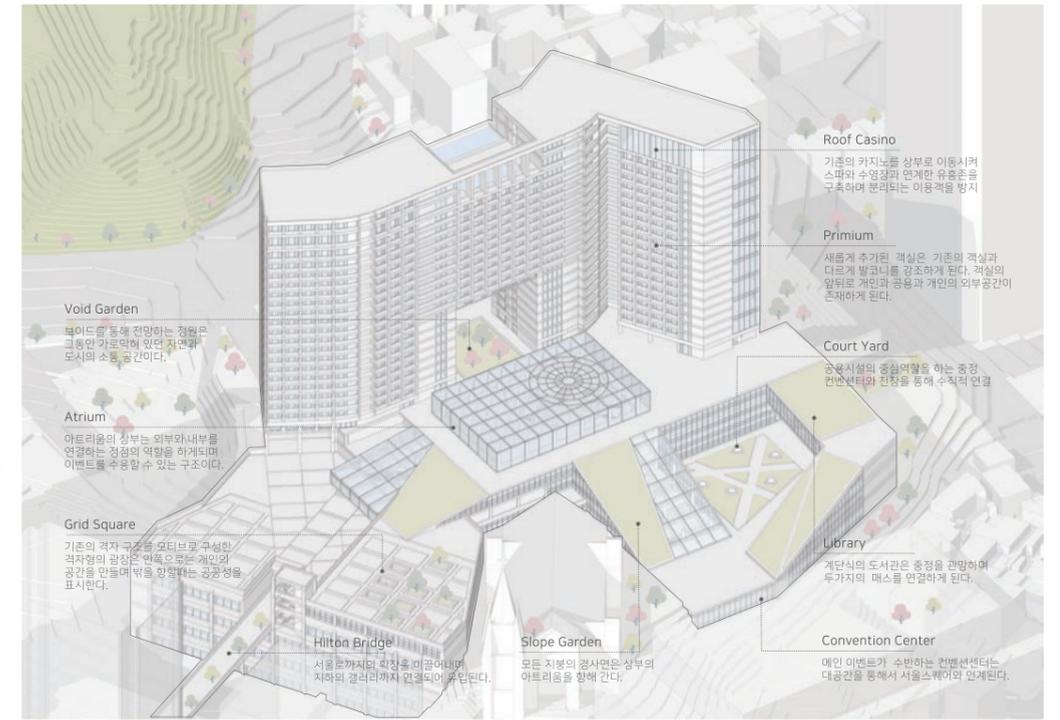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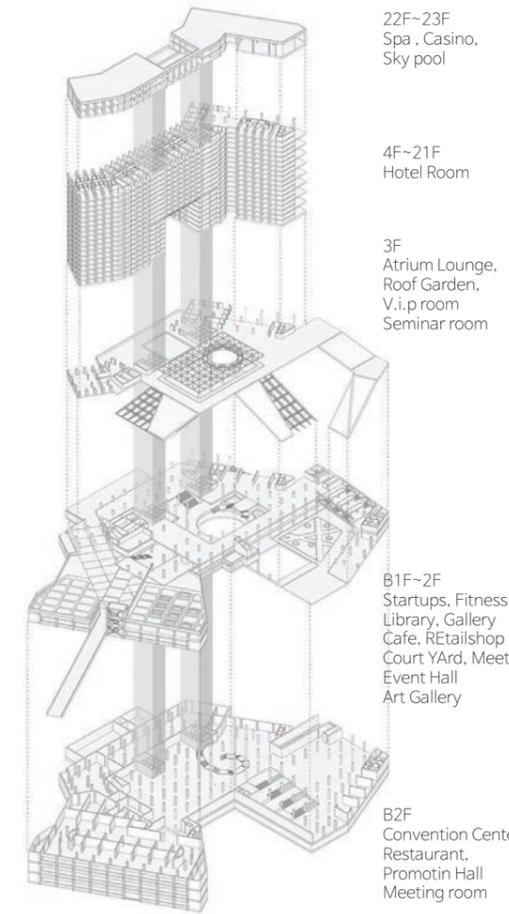
Sit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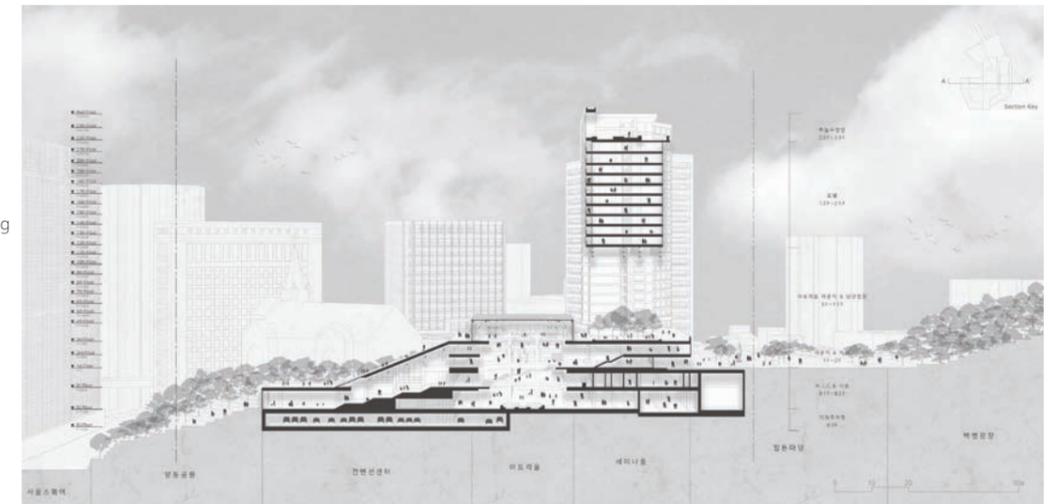
Concept Process



Axonome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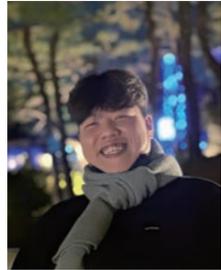


Mass Process



Urban Animation Street

남산 '만화거리'의 재활성화를 위한 제안



홍원택

이 프로젝트는 포스트-코로나 담론을 토대로 명동과 남산을 잇는 '만화 거리'에 주목한다. 만화로 특화된 거리에 만화에 대한 스토리보다는 명동을 중심으로 '유커(游客)'들이 만드는 역동적인 컨텍스트가 후천적인 부산물로 자리 잡은 아이러니한 공간이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자제되기 전만 해도 이 거리는 여행객들이 만드는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을 상기하고, '만화'의 속성을 이러한 유목문화의 플랫폼 위로 재설정하여 정책적 거리문화의 허구를 실제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도는 만화 거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굳이 '애니메이션 센터'를 지리적 맥락의 범주에서 벗어난 대지에 건립하려는 시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포스트-코로나 담론에서 간과된 '거리'의 재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기왕에 특화된 '만화'의 주제와 접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 연구에서는 폐교위기에 접한 남산초등학교를 새로운 "센터"로 개선(renovation)하는 가정 아래, 명동 지하철역사를 기점으로 남쪽 출구를 골목길로 연장하여 '만화 거리'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새로운 유목 공동체 공간을 제안하는 것을 프로젝트의 목표로 설정한다.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2일대

면적 8,975.18㎡

규모 지상 8층, 지하 2층





남산

주거지

만화거리

상업시설

퇴계로

명동가로

SITE ISSUE



사이트의 옹벽은 남산의 능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대지의 동서를 나누는 벽이 되었다. 이를 옹벽의 방향의 수직의 방향으로 틈을 내어 프로그램을 수록한다. 애니메이션 센터가 건립되지만 정작 애니메이션 교육을 위한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시설은 상업시장으로 나아가고, 이는 선순환의 고리의 시초이다. 기존 거주민과 관광객, 학생을 위한 도서관이 있어, 관광객은 쉼터를. 거주민과 학생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기존의 주거지였던 만큼 학생들을 위한 주거가 필요하다.



남촌은 피난민이 모여들어 판자촌을 이뤘다. 남산자락에 3평남짓의 판자집들이 빼곡히 자리잡았다. 1966년 판자촌의 화재로 인해 남촌의 변화가 이뤄진다.



판자촌의 화재로 인해 70년대부터 남산 능선에 주거지를 재건하고, 기존의 남산초를 다시 지으며 현재의 주거지로써의 모습을 가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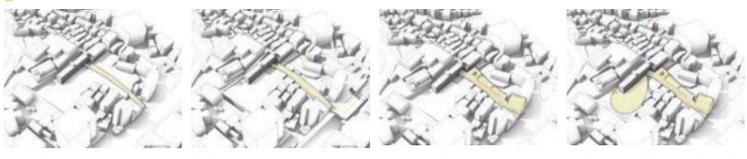
현재 남산초는 남산자락에서 가장 큰 옹벽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옹벽으로 가로막혀있는 남산의 능선을 연결하는 것이 디자인 목표이다. 또한 남산초는 명동과 남산동의 도심공동화로 인한 초등학교 인원의 감축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는 남산초의 미래의 활용성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한다.

SITE CON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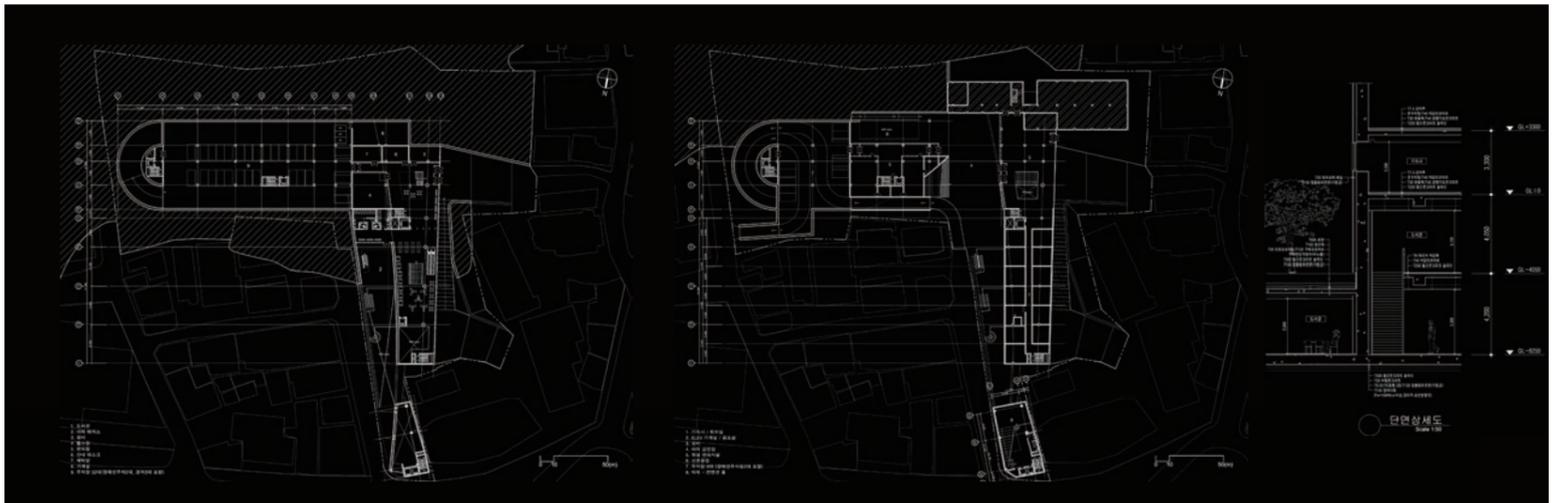
명동과 남산을 잇는 '만화거리'는 만화로 특화된 거리에 만화에 대한 스토리 보다는 명동을 중심으로 '유커'들이 만드는 역동적인 컨텍스트가 후천적인 부산물로 자리 잡아 있으며, 이는 정책적 거리문화의 허구이다. 따라서 남산과 명동 사이의 경계지역과 동시에 이 대지에서 만화 거리 활성화라는 적절한 프로그램과 방안을 계획한 후, 이 대지의 경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자 한다.

PLANNING STRATEGIE



1. 기존 사이트 옹벽에 반하는 큰 벽 형성.
2. 진입 레벨에 맞게 대지 내 레벨 조정.
3. 프로그램 형성. (거주, 도서관, 공연장)
4. 큰 벽의 끝맺음을 하도록 Landscape 형성.

Synopsis



ANY-CAMPUS

Any-campus의 학생과 교원을 위한 공간으로 학생회관, 교실 등 제공한다. 기존의 남산초를 리모델링한다.



ANY-VILLAGE

Any-campus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제공, 방학과 같은 휴관일에는 게스트하우스로 관광객에 개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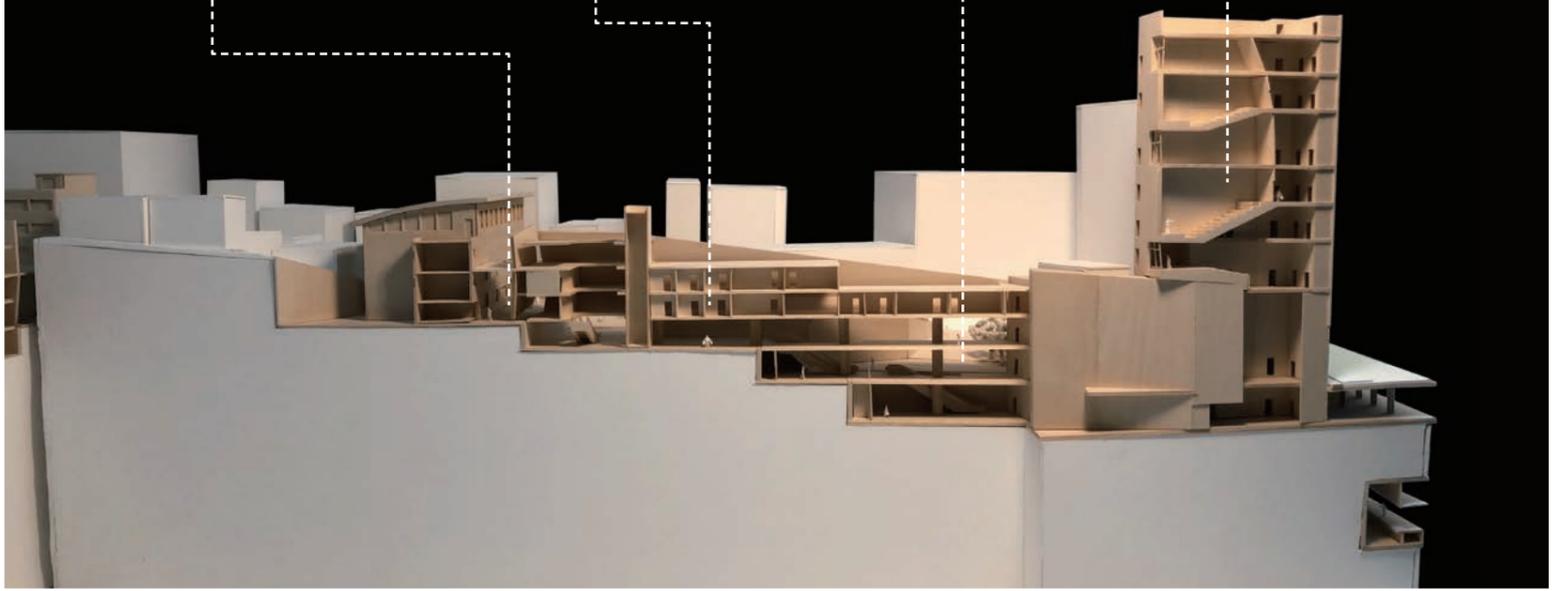
Library

기존 남산동의 주민들과 Any-campus의 학생을 위한 도서관을 다양한 출입구로 제공한다.



ANY-THEATER

퇴계로와 명동역과의 연계를 위해 크고 작은 공연장과 킨벤션 및 전시가 가능한 다목적 홀을 제공한다.



PART of city

건축을 통한 도심산업의 방향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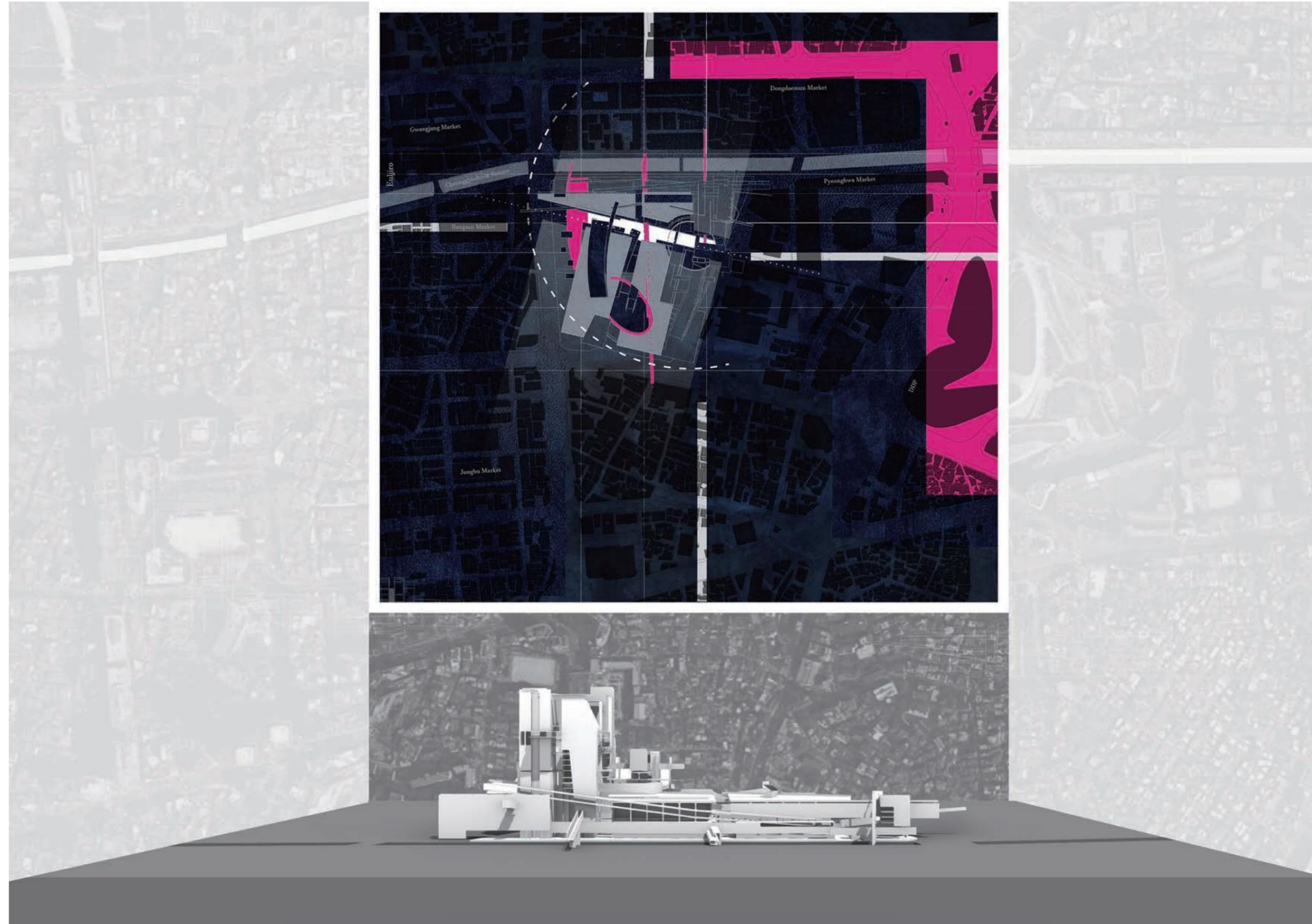


황인아

도심 속 산업은 사람들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하지만 불편한 존재로 남아있다. 산업은 외곽으로 떠나고 도시에는 사람만이 남아있다. 최종적으로 소비만 하는 장소로서의 도시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고 단순하며, 다양성의 기회를 찾을 수 없다. 을지로와 동대문, 그리고 각 종 시장들은 제조와 판매, 소비가 모두 이루어지는 서울 도심 속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산업장소이다. 그리고 과거 이 일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미군부대부지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고 이 땅의 잠재력을 건축을 통해 도심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제시한다.

을지로와 동대문, 각 종 시장들은 서울 도심 속에서 거의 유일한 산업공간으로써 역할을 하고있다. 이 중심에 미군부대부지 남아있다.미군부대부지는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70여년이 넘게 유지되었다. 미군부대는 주변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평화시장과 을지로, 방산시장 등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군수물자를 통해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그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거 사이트는 주변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70여년이 지난 현재는 오히려 단절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주변의 산업공간 또한 점차 외곽으로 밀려나며 도심 속 산업은 자리를 잃고 있다. 이 때 사이트가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 주변 각각의 산업공간들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미군부대부지
면적 66,649.1㎡
규모 지상 5층, 지하 30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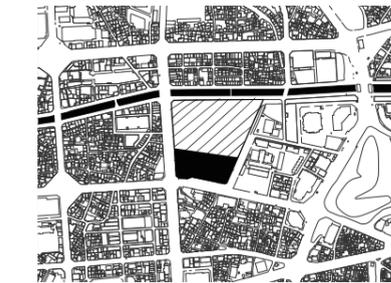
Site Analysis

[대조되는 도시 스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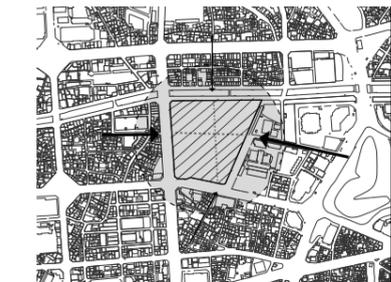
사이트의 동서로 규모가 큰 빌딩들과 과거 시장의 도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방산시장이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사이트 양쪽으로 전혀 다른 스케일과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녹지공간의 단절]



도심 속에서 공원은 중요한 녹지공간이자 뻥뻥한 빌딩 속 휴식 공간이 되어준다. 그러나 사이트에 위치한 훈련원 공원은 청계천과의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이트로 인해 단절되어 섬처럼 남아있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주변 산업공간들의 파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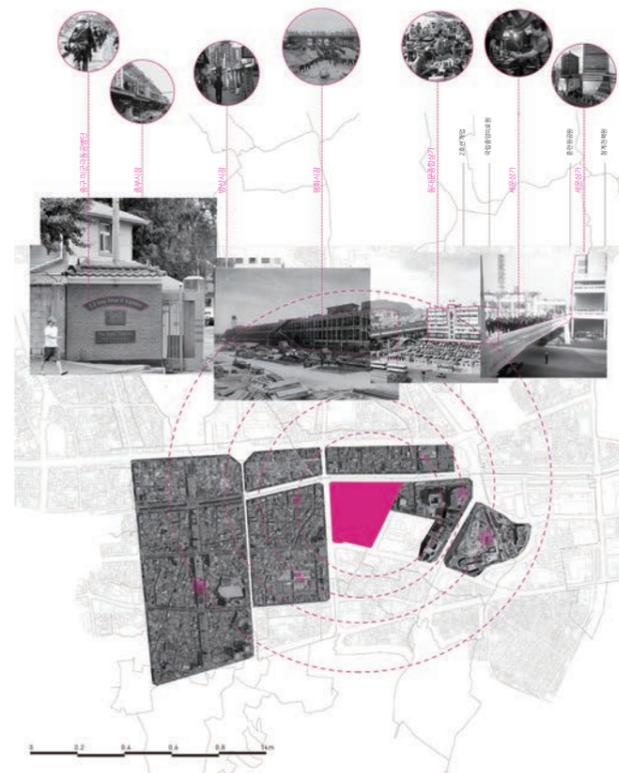
동대문과 방산시장 등 주변의 산업공간들은 사이트로 인해 단절되어 있어 연결점을 찾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각 산업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공동체로서 사회적 연대가 흐려지고 있다.

[기존의 평화시장과 지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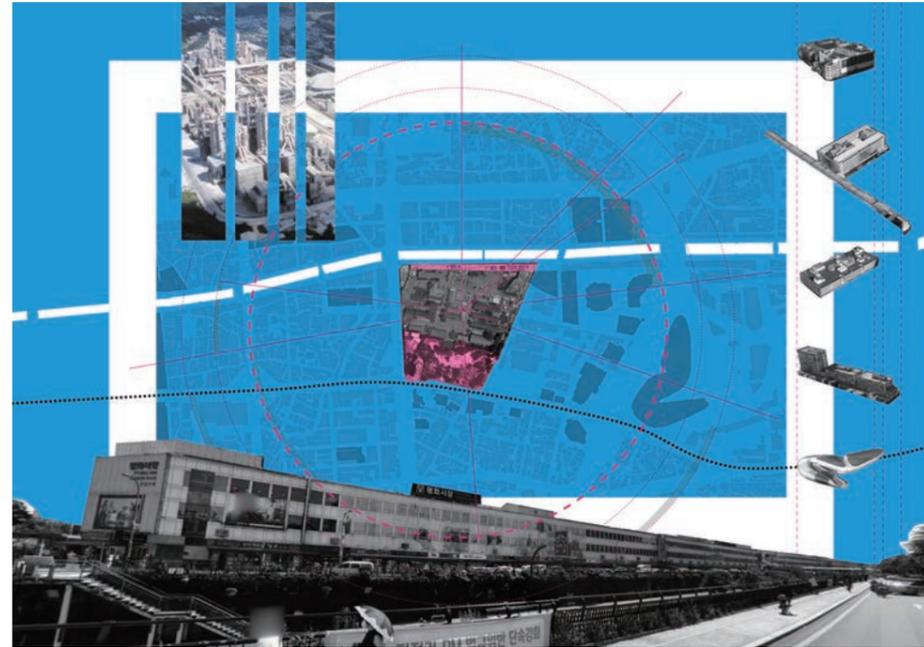


평화시장은 동대문의 시각으로서 의미가 깊은 건축물이다. 그러나 과거 고가도를 대응했을때와는 달리 현재에 있어 장축의 건물은 주변과의 단절을 불러온다. 지하공간은 동대문과의 연계를 통한 성장을 기대했지만 사이트로 인해 주변과 단절되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Site Iss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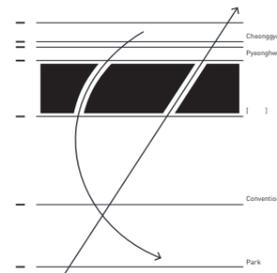
Concept



과거 사이트의 주변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70여년이 지난 현재는 오히려 단절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주변의 산업공간 또한 점차 외곽으로 밀려나며 도심 속 산업은 자리를 잃고 있다. 이 때 사이트가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 주변 각각의 산업공간들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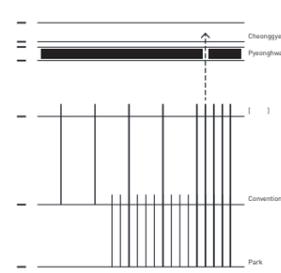
Design Strategy

[청계천과 공원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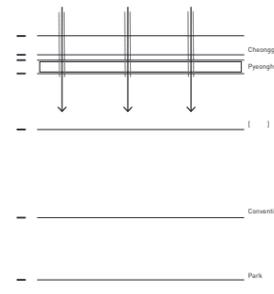
1. 청계천과 휴원공원을 연계하는 디자인과 함께 녹지공간을 사이트 내부로 이끌어들이고, 다시 물의 흐름처럼 내부공간에서 밖으로 내보낸다. 이를 통해 내부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변과의 연결을 할 수 있게 한다.

[지하구조에서부터 시작되는 컨벤션센터]



컨벤션센터라는 대형건축물을 통해 도심산업의 전반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컨벤션센터의 축은 기존의 지하구조에서 시작하여 연결되며 이러한 축이 평화시장까지 뻗어 나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우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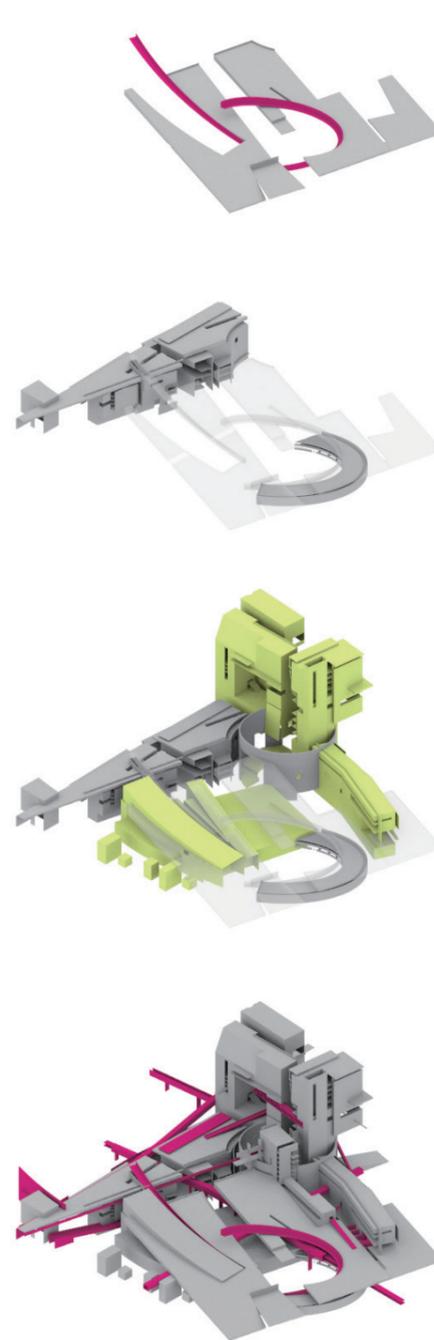
[평화시장의 숨길]



평화시장이 시공될 당시 청계천은 복개되어 있었고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었다. 과거 평화시장의 모습은 고가도로를 대응하기에 적합했지만 현재의 평화시장은 가로에 답답함을 준다. 이를 길들의 축을 통해 평화시장을 쪼개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Program Process



[다양한 레이어 속 자연]

지상보다 5m정도 아래에 위치한 청계천의 흐름은 주변과의 녹지공간과 연결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하로부터 녹지의 흐름을 연결시켜 지상, 그리고 지붕까지 다양한 레이어 속에서 이어지게 하고 도심 속 새로운 녹지 공간의 형태를 이끌어 낸다.

[기존의 평화시장과 지하공간의 활용]

기존의 평화시장의 레이어를 통해 도매의 성격과 함께 소매와 함께 상업공간을 형성하며,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의 공존과 함께 상생하는 공간이 된다. 지하공간의 사무실은 자연의 흐름과 함께 이어지며 빛이 들게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과거 주변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연결성을 가지지 못한 공간을 다양한 공간과의 연결을 통해 활성화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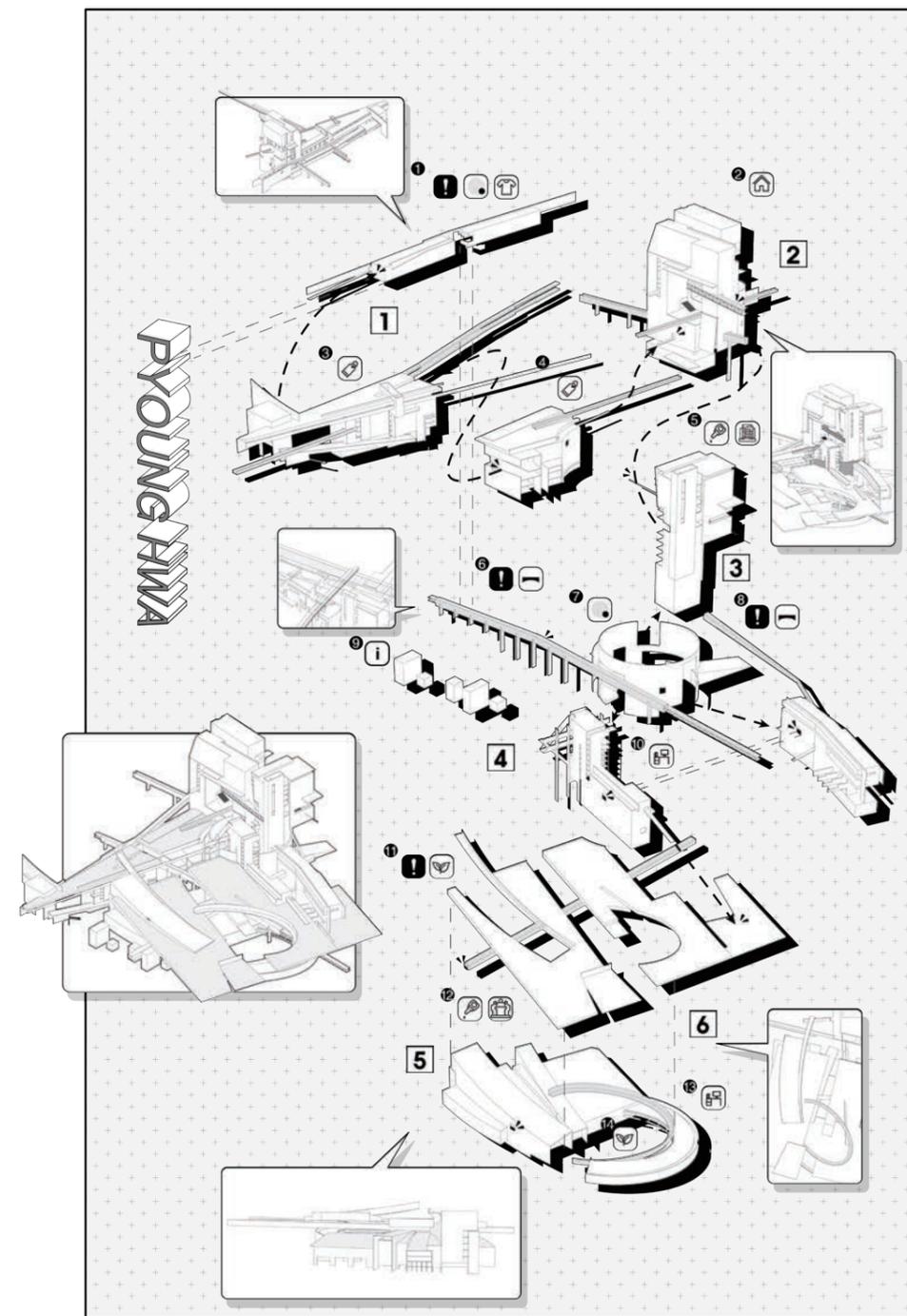
[과거와 연결된 새로운 매스 형성]

새로운 공간에는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도심 산업의 성장을 위한 연구시설 및 공장 등이 보조역할을 할 수 있게하고,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을 통해 작은 자족도시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화를 이끌어낸다. 새로운 매스들은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스케일의 공간으로 이루어져있는 시장들에서부터 큰 스케일의 두타물 등의 빌딩들의 스케일 맞추어 서로 다른 두 공간에 자연스러운 연결을 시켜준다.

[도심 속 복잡한 관계 속 거리들]

도시 내 공간들은 다양한 관계 속에 존재하며 이들을 이어주는 길들 또한 대로에서부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골목길이나 지름길까지 사람들에게 의해 다양하게 생겨난다. 그러한 도심 속의 연결관계들을 다양하고 복잡한 길, 연결관계 통해 표현한다.

Programatic Components



1. 평화시장. 2. 주상복합. 3. 상업시설. 4. 상업시설. 5. 연구시설. 6. 연결브릿지. 7. 통합의 공간. 8. 연결브릿지. 9. 인포메이션. 10. 사무실 및 연구실. 11. 옥상정원. 12. 컨벤션. 13. 사무실. 14. 정원.

INHA ARCHITECTURE
59TH GRADUATION EXHIBITION
2022 DESIGN THESIS PROJECT

발행일 2023. 2. 18
발행처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비매품

Copyright ©2022 Inha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INHA

ARCHITECTURE

인하대학교 건축학전공 2022 졸업작품집